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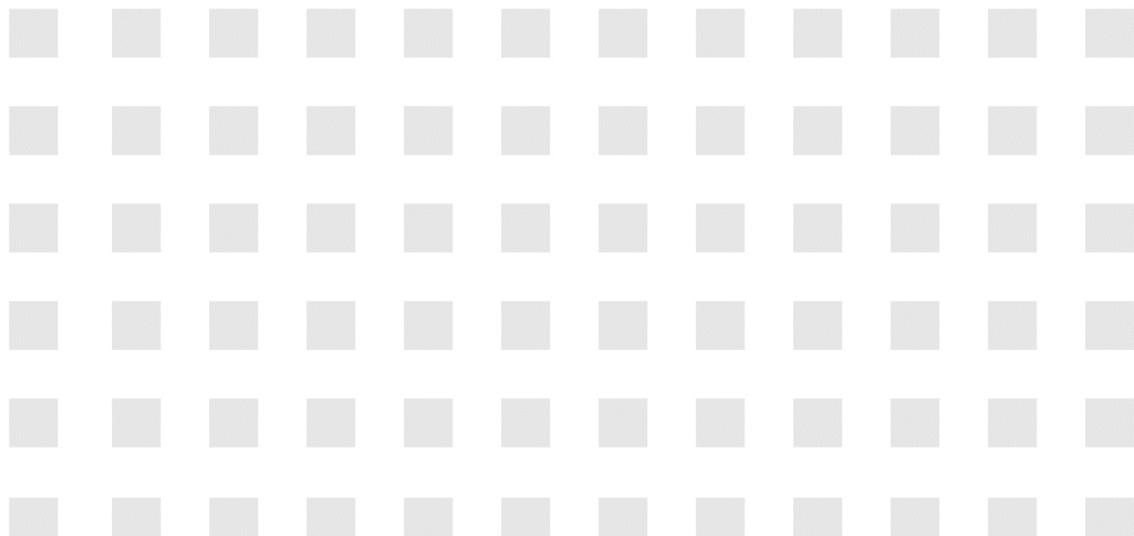
〈배비장전〉을 활용한 제주목 관아의 문학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
신희경·박소현



〈배비장전〉을 활용한 제주목 관아의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
신희경·박소현



발 간 사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문학으로는 대표적으로 구비문학, 유배문학, 한라산 유산기 등 기행 문학, 그리고 제주 기층민의 삶을 보여주는 고소설 〈배비장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위 문학들 중에서도, 〈배비장전〉을 활용한 문학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배비장전의 주 공간의 배경이자, 제주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지인 제주목 관아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을 고찰하고, 〈배비장전〉과의 연계를 통한 문학 관광지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탐라국 시대부터 성주청 등 주요 관아 시설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어 그 역사가 깊습니다. 복원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역사공간입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목 관아의 장소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연구를 위해 애쓰신 신희경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센터 고은솔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제주학의 다양한 연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 추진 방법	6
II. 전국 주요 관아지 활용의 실태	7
1. 관아와 관아지(官衙址)	7
2. 관광지로서 주요 관아지의 현황	9
2-1. 접근성과 장소성의 문제	9
2-2. 관아지 활용의 긍정적 사례	15
III. 관광지로서 제주목 관아	20
1. 제주목 관아의 특징	20
1-1. 제주목 관아의 역사	20
1-2. 제주목 관아의 주요 구성	21
1-3. 제주목 관아의 콘텐츠	27
2. 관광지로서 제주목 관아의 장점	31
2-1. 접근성과 인접성	31
2-2. 장소성	32
IV. 〈배비장전〉의 내용과 특징	34
1. 〈배비장전〉 주요 서사단락	34
2. 〈배비장전〉의 성격과 특징	35

2-1. 풍자성	35
2-2. 판소리적 성격	45
2-3. 제주와 제주민	51
V. 제주목 관아와 〈배비장전〉의 관광 연계 방안	62
1. 전시관 조성	62
1-1. 전시관으로서 교방지의 의의	63
1-2. 전시물	64
2. 마당극 상설 공연	70
2-1. 〈배비장전〉의 콘텐츠 변개 양상	70
2-2. 마당극의 개념	73
2-3. 마당극의 성격	74
2-4. 마당극의 기본 원리	78
2-5. 마당극 공연 장소	81
2-6. 〈배비장전〉의 마당극 공연의 의의	82
3. 제주목사 행차 재현	83
3-1. 전통 문화 행차 재현의 가치와 필요성	83
3-2. 〈배비장전〉 행차 경로	85
3-3. 행차 재현 경로	86
VI. 시사점 및 활용 효과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3

표 차례

〈표 1〉 연구 추진 방법	6
〈표 2〉 전국 주요 관아지	8
〈표 3〉 문학 공간의 개념	33

그림 차례

〈그림 1〉 일반교통과 관광교통의 차이	10
〈그림 2〉 양주 관아지의 입지	11
〈그림 3〉 부여 홍산현 관아의 입지	12
〈그림 4〉 영월부 관아의 입지	13
〈그림 5〉 인천 도호부 관아의 콘텐츠	14
〈그림 6〉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입지	15
〈그림 7〉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콘텐츠	17
〈그림 8〉 전라감영의 입지	18
〈그림 9〉 전라감영의 콘텐츠	19
〈그림 10〉 제주목 관아의 구성	21
〈그림 11〉 2023년 제주목 관아 행사 포스터	30
〈그림 12〉 쿨림풍악 리플릿	30
〈그림 13〉 제주목 관아의 입지	31
〈그림 14〉 교방지	62
〈그림 15〉 신구서림본 〈배비장전〉	64
〈그림 16〉 국제문화관본 〈배비장전〉	65
〈그림 17〉 세창서관본 〈배비장전〉	65
〈그림 18〉 국립 제주박물관 실감 영상 일부	67
〈그림 19〉 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전시 체험 일부	68
〈그림 20〉 해남 대로	69
〈그림 21〉 대동여지도 제주도와 화북포 부분	70
〈그림 22〉 제주지역 〈배비장전〉 공연 포스터	72
〈그림 23〉 행차 재현 경로	86
〈그림 24〉 2023년 탐라퍼레이드 경로	87

연구요약

I. 서 론

-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3관왕을 달성한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지임
- 자연관광 콘텐츠에 비해 역사·유물 등을 활용한 인문관광 콘텐츠의 수는 많지 않으며 특히 문학과 관련된 관광지는 제주문학관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역사 문화 전시관 등에 불과함
- 제주 문학관은 신화와 전설, 역사와 현실, 삶과 문화를 담은 제주 문학을 콘텐츠로 하여 척박하고 메마른 화산섬을 일구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관광 콘텐츠로서의 의미를 보유
 - 제주 문학 집적의 거점을 표방하는 제주 문학관이지만 고전문학은 구비 설화, 유림문학, 유배문학, 기행문학으로만 구성
 - 제주와 제주목 관아가 주요 무대가 되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고소설인 〈배비장전〉은 제외
 - 〈배비장전〉이 일반 대중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고소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배비장전〉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 유도 필요성
- 제주목관아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 본 연구는 제주목관아가 주 무대가 되는 고소설 〈배비장전〉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제주를 대표하는 고소설 〈배비장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제주목관아가 가진 역사성과 관광지로서의 중요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전국 주요 관아지 활용의 실태

- 관아지(官衙址)는 일반적으로 관아가 있던 터의 유적 건조물(遺跡 建造物)로서 복원 정도에 따라 건물 일부와 주변 읍성(邑城)을 포함하기도 함

○ 전국 주요 관아지 현황

	관아지명	소재지
①	강릉대도호부 관아 (江陵大都護府 官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②	경상감영지 (慶尙監營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③	경주부 관아건물 (慶州府 官衙建物)	경북 경주시 동부동 159-3
④	밀양관아지 (密陽 官衙址)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348 (내일동)
⑤	부여 홍산현 관아 (扶餘 鴻山縣 官衙)	충남 부여군 홍산면 동현로 38
⑥	삼척도호부 관아지 (三陟都護府 官衙址)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번지
⑦	안동 대도호부 (安東 大都護府) 옛터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93
⑧	안산 관아지 (安山官衙址)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⑨	양주 관아지 (楊洲官衙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15
⑩	영월부 관아 (寧越府 官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61
⑪	인천도호부관아 (仁川都護府官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⑫	임천관아지 (林川官衙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54
⑬	전라감영지 (全羅監營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
⑭	통영삼도수군통제영 (統營 三道水軍統制營)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
⑮	통진이청 (通津 吏廳)	경기도 김포시 군하로276번길 27 (월곶면)

○ 관광지로서 주요 관아지의 문제점

- 접근성 부족: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양주 관아지(楊洲官衙址), 인천 도호부관아(仁川都護府官衙) 등
- 인접성 문제: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 경주부 관아건물(慶州府 官衙建物) 등

- 콘텐츠 부족: 부여 흥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양주 관아지(楊洲官衙址), 인천 도호부관아(仁川都護府官衙),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 경주부 관아건물(慶州府 官衙建物) 등

III. 관광지로서 제주목 관아의 장점

○ 접근성과 인접성

-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인근 관광 시설과의 높은 인접성

○ 장소성

- 고소설의 배경이 되는 관아: <배비장전>의 제주, <양반전>의 정선, <장화홍련전>의 철산(평안도) 등
- <배비장전>의 배경으로서 제주목 관아는 장소가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활용하기에 유리

IV. <배비장전>의 내용과 특징

○ <배비장전>이 가진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 풍자성

- <배비장전>은 목사의 주도로 애랑과 방자가 공모하여 배비장의 위선을 폭로
- <배비장전>의 풍자는 배비장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배비장을 포함한 양반 사회와 제주 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풍자 양반 사회와 관인들에 대한 풍자

○ 판소리적 성격

- <배비장전>은 현재는 소설로만 알려져 있으나 조선시대에 판소리 형태로 존재
- <배비장전>의 풍자 주체가 제주민이라는 점에서 판소리에 투영된 평민적 세계관과 맞물려 있음
- <배비장전>은 판소리 창으로 구연되었기 때문에 각기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장면 중심의 공연물로서 활용 가능

○ 제주와 제주민

- <배비장전>의 배경은 제주목 관아를 비롯한 제주
- 배비장 훼절의 주체인 방자와 애랑은 제주민

V. 제주목 관아와 <배비장전>의 관광 연계 방안

- 전시관 조성: <배비장전>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주목관아 안 교방지에 별도의 작품 전시 공간 조성
 - 도서: 3종의 초기 출판본 사본, 창본 사본, 1950년대 이후 주요 출판물 선별 전시 및 해설
 - 해제 안내판
 - <배비장전>의 주요 내용
 -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 관련 내용
- 마당극 상설 공연
- 제주목사 행차 재현

VI. 시사점 및 활용 효과

- 관아지와 문학작품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관광 콘텐츠로 다른 지역의 관아지와 차별성 부각
- 역사 유적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탐방하는 최근의 관광 행태의 변화에 부응
- 마당극 등 지역 이벤트 또는 축제 등을 제작하고 개최함으로써 제주지역 공연 예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문화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큐레이터 및 관아 전시관 상주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지역 인력의 경제활동 지원
- 기존 관아 전시물(디오라마, 마네킹 연출 등)이 가진 정적인 성격을 탈피한 새로운 전시 가능성 제시
-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화하는 관광객의 패턴에 부응
- 제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습득하는 관광콘텐츠의 개발은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재고와 함께 관광의 지속성과 함께 제주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3관왕을 달성한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지임
 -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과 함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자원으로 제주에는 산, 해양, 음식, 역사, 성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존재
- 하지만 자연관광 콘텐츠에 비해 역사·유물 등을 활용한 인문관광 콘텐츠의 수는 많지 않으며 특히 문학과 관련된 관광지는 제주문학관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역사 문화 전시관 등에 불과함
- 제주 문학관
 - 신화와 전설, 역사와 현실, 삶과 문화를 담은 제주 문학을 콘텐츠로 하여 척박하고 매마른 화산섬을 일구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관광 콘텐츠로서의 의미를 보유
 - 유림문학: 제주의 유림은 향교, 굴림서원, 삼성사, 삼천서당 등의 교육기관과 제주에 유배 왔던 사람들의 교학활동, 제주의 별시(別試) 등을 통해 형성. 이러한 유학의 기반 아래 제주 유림의 문학활동이 이어져 왔으며 문집을 통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음
 - 유배문학: 김정(金淨), 정온(鄭蘊), 광해군(光海君), 송시열(宋時烈), 김정희(金正喜)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유배. 이들의 유배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으나 제주 사람들에게는 한반도의 문화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유배인들은 제주의 자연, 독특한 문화에 대한 감상, 유배의 소회 등 제주에서 많은 문학작품을 남김

- 제주 문학 집적의 거점을 표방하는 제주 문학관이지만 고전문학은 구비 설화, 유림문학, 유배문학, 기행문학으로만 구성
 - 제주와 제주목 관아가 주요 무대가 되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고소설인 <배비장전>은 제외
 - <배비장전>이 일반 대중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제주 도를 대표하는 고소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줌
- 본 연구는 제주목관아가 주 무대가 되는 고소설 <배비장전>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제주를 대표하는 고소설 <배비장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제주목관아가 가진 역사성과 관광지로서의 중요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연구의 필요성

1-2-1. <배비장전>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 유도 필요성

-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문학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송시열과 김정희의 유배 시를 꼽음. 제주도가 한양에서 가장 멀고 단절된 지역이기에 유배문학은 제주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인식됨

팔십 넘은 늙은이가 / 八十三年翁
푸른 파도 만리에 있네 / 滄波萬里中
말 한마디가 어찌 큰 죄일까마는 / 一言胡大罪
세 번 내쫓기니 또한 궁하다 하겠네 / 三黜亦云窮
북녘 대궐 하늘을 뒤돌아 보았건만 / 北極空回首
남쪽 바다에는 다만 계절풍만 부네 / 南溟但信風
담비 털웃 내리셨던 옛 은혜 새기면서 / 豹裘舊恩在
외로운 충의에 눈물만 흐르네 / 感激泣孤忠 (송시열)

붉은 새 하늘가 한 바다 가장자리 날고 / 朱鳥天邊大海湄
삼신산 꿈틀꿈틀 서쪽 맥(脈)이 달리었네 / 神山蜿蜒走西支
들 가운데 작은 고을 북두성 같은데 / 野中小治僅如斗
푸른 돌의 성곽은 짧은 대를 이었구나 / 靑石郭連短竹籬
홍연이라 보기는 청하의 비갈이요 / 水鉛寶氣靑霞碣
송죽 같은 굳센 절개 동문의 사당이네 / 松竹勁節東門祠
인가들은 모두 다 수성 아래 의지하고 / 人家盡依壽星下
수선화 천 송이에 또 다시 만 가지 갈라지네 / 水仙千朵復萬枝
원우의 죄인 신세 혜주 밥을 먹고 / 元祐罪人惠州飯
입극의 비바람에 오랑캐 땅을 잊었다오 / 笠屐風雨忘居夷

섬 아이 바다 남정 근자에 친숙해져 / 島童海丁近相熟
 이따금 현정(玄亭) 찾아 기자(奇字)를 묻곤 하네 / 有時叩玄兼問奇
 독표는 화저의 고기보다 더 나은 듯 / 獨豹勝似花猪肉
 보리누룩 새로 빚은 막걸리 한 병에다 / 麥麵新醅酒一鷁
 오색 구름 많은 곳은 꿈조차 실 같은데 / 五雲多處夢如縷
 답답 깨는 봄 산은 푸른 눈썹 비끼었네 / 破悶春山橫翠眉 (김정희)

- 한라산 유산기를 비롯한 유람기 역시 제주의 뛰어난 풍광을 작품의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학

한라산 아래 평지에서 존자암 까지 30리 가량이요, 존자암에서 여기까지 역시 30여리이다. 그런데도 정상을 쳐다보니 평지에서 바라보는 높은 산 같았다. 봉우리 형세가 우뚝 막아서 마치 솟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말을 내려 막대를 짚고 오르는데 열걸음에 한번 쉬었다. 목이 말라 견디기 어려원 아이종을 시켜 바위 밑에서 얼음을 따오게 하여 씹으니 경장(瓊漿)을 마시는 것 같았다.

최정상에 당도하자 그곳은 웅푹 파여 못을 이루고 있었다. 석봉이 둘러싸여 주위가 7,8리나 되어 보였다. 바위에 기대어 굽어보니 물은 유리알 같이 맑아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못 주위로 흰모래가 깔리고 향기로운 덩굴이 뻗어 구질구질한 것이라고는 한점도 눈에 뜨이지 않았다.

인간 세계의 바람과 3천리나 떨어져 있으니 난소(鸞簫)가 들리는 성싶고 황홀히 지거(芝車)가 보이는 듯하다. 그 우뚝 용기한 형상이나 바위가 쌓인 모양이 무등산과 흡사한데 높고 크기는 배가 되는가 싶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무등산과 한라산은 암수로 짹을 이룬 산이다’ 하는데 필시 이 때문일 것이다.

산위의 돌은 다 적흑색으로 물에 들어가면 둥동 뜨니 또한 진기한 일이다. 눈 앞에 펼쳐진 것으로 말한다면 해와 달이 비치는 데 따라 배와 수레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두루 마칠 수 있겠으나 나의 시력의 한계로 단지 하늘과 물 사이에 그칠 따름이다. 역시 한스러워할 노릇이다.

사람들 말이 “등반하는 사람이 여기 당도하면 꼭 소낙비를 만나는데 오늘처럼 청명한 날씨는 처음 본다”고 한다. 멀리 하늘 저쪽을 바라보니 바다 위에 무슨 물체가 둥글어 수레 위의 일산과 같다. 희고 검은 것들이 점점이 열을 지어서 마치 바둑판 위에 놓인 바둑알처럼 보였다. 모두들 섬이라고 말하는데 청순은

“빈도는 매년 여기 올라와서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남쪽 바다에는 도서가 없지요. 저건 구름이외다”

고 하여 섬이라거나 아니라거나 서로 다투고 있으 즈음에 그 물체가 점차 가까워보는데 구름이었다. 다들 돌아보며 깔깔 웃고서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임제, 〈南溟小乘〉)

- 이상의 문학은 한문으로 창작된 것이며 창작의 주체는 양반인데다 유배와 유산은 모두 제주에 밟 딛고 사는 제주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즉 외지인이며 양반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의 생활이며 제주의 풍광임

- 이러한 작품들이 제주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는 있으나 제주 기층민의 삶과 정신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고소설 <배비장전>에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로 방자와 애랑이 등장. 물론 배비장과 목사도 있기는 하지만 작품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외지인으로서 제주에 부임한 목사와 비장이 아니라 제주에 거주하는 기층민으로서 방자와 기생
 - <배비장전>은 풍자적 성격을 가진 작품으로 풍자의 대상이 외지에서 온 양반 관료를 향한 것이며 그 주체가 제주민이라는 점에서 의미
- 양반 관료에 대한 비판과 저항정신이 제주를 배경으로 형상화된 <배비장전>은 제주민의 삶과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주에 대한 자긍심과 <배비장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2-2. 제주목관아의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 고소설의 배경과 관광 콘텐츠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설정된 고소설: <만복사 저포기>(남원), <이생규장전>(개성), <취유부벽정기>(평양), <이화전>(여산), <숙영낭자전>(안동), <부용상사곡>(평양), <장화홍련전>(철산), <콩쥐팥쥐전>(전주), <김인향전>(안주), <황월선전>(문촌), <정진사전>(괴산), <김씨열행록>(관동), <허생전>(목적동), <양반전>(정선), <오유란전>(평양), <이춘풍전>(서울), <춘향전>(남원), <심청전>(해주), <배비장전>(제주)
 -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른 고소설의 배경지 고증
 - 지역문화정체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축제 또는 이것과 연관된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아이템 찾기와 맞물려 있음
 - 지역축제란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정해진 일자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최되는 축제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 삶과 전통문화적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행사¹⁾
 -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각 지역이 새로운 축제 아이템을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고소설의 주인공 또는 사건전개 배경지의 지역연고성 확보는 호재
 - 지역문화축제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축제의 경제적 효과 때문
 -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것은 축제를 문화산업 발전에 주요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

1) 류정아,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주5일제 등으로 인한 여가 생활문화가 증가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화전략으로서의 축제가 부각되자, 지금까지의 제의적 축제와는 다른, 지역적 문화산업으로서의 축제나 이벤트 등 문화 상품들이 지역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소설 주인공의 지역 연고성을 고증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
- 지역의 산물과 자연, 그리고 문화자산을 통해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
- 지역문화정체성과 전통문화의 정화(精華)가 지역을 배경지로 하는 고소설
- 국민 모두에게 공감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익숙한 스토리라인과 주인공의 캐릭터가 각인되어 있는 고소설은 지역주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허구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사물로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와 어울려 새로운 문화관광의 물꼬가 됨
- 관광의 본질이 타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있다고 볼 때 지역의 고유성, 역사성, 문화성은 대단히 중요한 자원
- 각 지역 간의 경쟁적 문화축제 개발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의욕을 촉진케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지역과 유관한 고소설의 주인공 또는 소설 배경지를 놓고 그것을 선점하기 위하여 지역자치단체 간에 연고권을 확보 분쟁이 야기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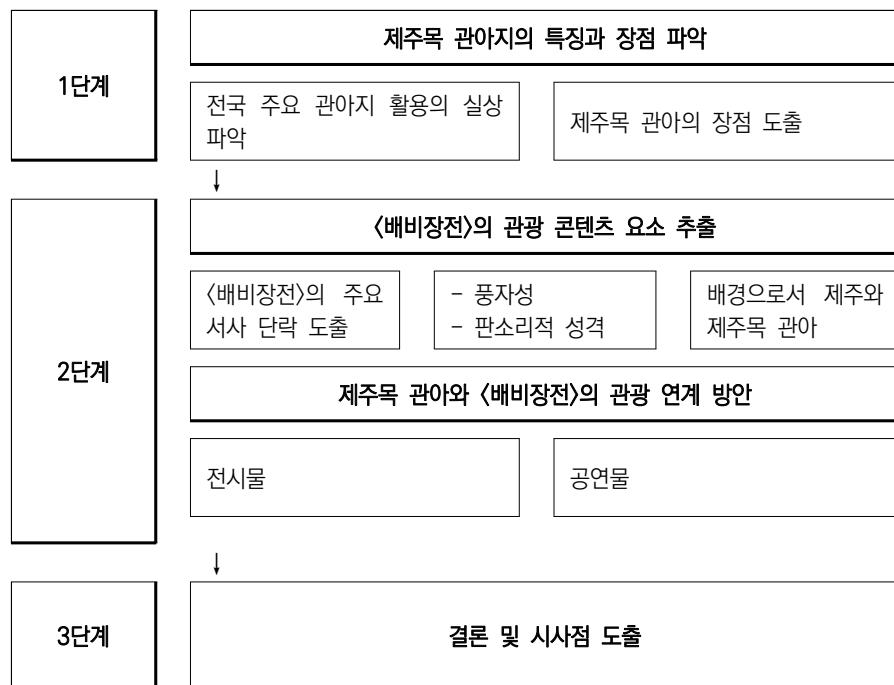
■ 고소설의 배경으로서 제주목 관아

- 현재 관아지(官衙址)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가 남아 있으며 이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자체 증가하고 있음
- 관아지의 전시나 행사는 민속놀이, 공예 체험, 관아 관련 유물 전시 등으로 대동소이함
- 제주목 관아지는 고소설의 배경이 되는 유일한 관아지
- 관아를 배경으로 하는 고소설 작품으로는 〈배비장전〉과 〈양반전〉, 〈장화홍련전〉 등이 있는데 작품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전무.
- 〈배비장전〉의 주요 사건이 제주목 관아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제주목 관아는 고소설과 연계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
- 제주목 관아를 배경으로 하는 〈배비장전〉을 활용하여 제주목 관아만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

2. 연구 추진 방법

- 제주목 관아의 특징과 장점 분석
 - 전국 주요 관아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배비장전>의 내용 분석
-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와 제주목 관아의 장소성 고찰
- 제주목 관아의 관광 콘텐츠로서 <배비장전>의 활용 요소
- 제주목 관아와 <배비장전>의 관광 연계 방안

〈표 1〉 연구 추진 방법



II. 전국 주요 관아지 활용의 실태

1. 관아와 관아지(官衙址)

■ 관아(官衙)는 관사(官司)·관청(官廳)으로 부르는 곳

- 관아는 관원들이 나랏일을 보는 건축물을 말함. 일반적으로 관부(官府), 관서(官署), 관사(官舍), 관청(官廳)이라고도 하며 국가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공해(公廨)라 하기도 함.²⁾
- 궁궐 내의 중앙행정 관아와 지방의 각 도에서 관찰사가 집무하던 감영(監營), 고을 수령이 집무하던 동헌(東軒)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통칭.³⁾
- 넓은 의미로는 궁실을 제외한 나랏일에 필요한 곳. 좁은 의미로는 지방에 파견된 목민 관이 공무를 처리하던 곳
- 조선의 관아 건축은 유교적 국가체제에서 민본주의에 근본을 둔 위민·애민 사상의 통치이념을 정치사회에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지방관의 수령질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 된조선시대 정치, 행정, 국방 등 공공기관의 유적터를 포괄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정치사상과 입지를 중심으로

■ 관아의 구성

- 지방관아는 보통 아사와 객사를 중심으로 크게 행정적 기능의 시설과 군사적 기능을 가진 시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지방관아 시설은 군현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 지방관아 시설은 아사(동헌과 수령관아), 객사, 향교(문묘), 향청(좌수와 별감 집무소), 군관청(軍官廳), 장관청(將官廳), 읍사(邑司), 작청(作廳), 질청(秩廳), 병방청(兵房廳), 형방청(刑房廳), 공방청(工房廳), 전제청(田制廳), 관청(官廳), 공청(貢廳), 소성청(小星廳),

2)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474쪽

3) 송제용, 「전주고도 관아배치의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40쪽

사령방(使令房), 통인방(通印房), 관노청(官奴廳) 등으로 구성.

- 조선의 관아건축은 대체로 조선 초기에 건립. 조선 중기는 임란으로 소실된 건축을 복구하는 시기. 조선 후기는 경제적 여건의 호전으로 관아를 개수하거나 중수하는 시기
- 20세기는 일제강점기와 도시 현대화 사회의 실현으로 관아가 철거되거나 일부는 학교나 지서 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
- 관아지(官衙址)는 일반적으로 관아가 있던 터의 유적 건조물(遺跡 建造物)로서 복원 정도에 따라 건물 일부와 주변 읍성(邑城)을 포함하기도 함
 - 현재 발굴 혹은 복원된 관아지는 관아(官衙), 감영지(監營址), 관아건물(官衙建物) 등으로 명명됨

〈표 2〉 전국 주요 관아지⁴⁾

	관아지명	소재지
①	강릉대도호부 관아 (江陵大都護府 官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②	경상감영지 (慶尙監營址)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③	경주부 관아건물 (慶州府 官衙建物)	경북 경주시 동부동 159-3
④	밀양관아지 (密陽 官衙址)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348 (내일동)
⑤	부여 흥산현 관아 (扶餘 鴻山縣 官衙)	충남 부여군 흥산면 동현로 38
⑥	삼척도호부 관아지 (三陟都護府 官衙址)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번지
⑦	안동 대도호부 (安東 大都護府) 옛터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93
⑧	안산 관아지 (安山官衙址)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⑨	양주 관아지 (楊洲官衙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15
⑩	영월부 관아 (寧越府 官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61

4) 문화재청(<https://www.cha.go.kr/main.html>)검색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복원된 관아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이하 각 관아지의 위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지도서비스(<http://www.nsdi.go.kr/lxmap/index.do>)를 활용하여 편집하였음.

	관아지명	소재지
(11)	인천도호부관아 (仁川都護府官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12)	임천관아지 (林川官衙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254
(13)	전라감영지 (全羅監營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6
(14)	통영삼도수군통제영 (統營 三道水軍統制營)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
(15)	통진이청 (通津 吏廳)	경기도 김포시 군하로276번길 27 (월곶면)

2. 관광지로서 주요 관아지의 현황

■ 관광은 사람 간 혹은 사람과 공간의 교류(Crouch, 1990)

- 관광객들의 체험은 구체화되고, 관광은 여러 감각을 통해 강조
- 문화와 장소의 상품화, 자본주의 체제에서 관광 생산과 소비의 특징 등의 문제와 관련

2-1. 접근성과 장소성의 문제

■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통행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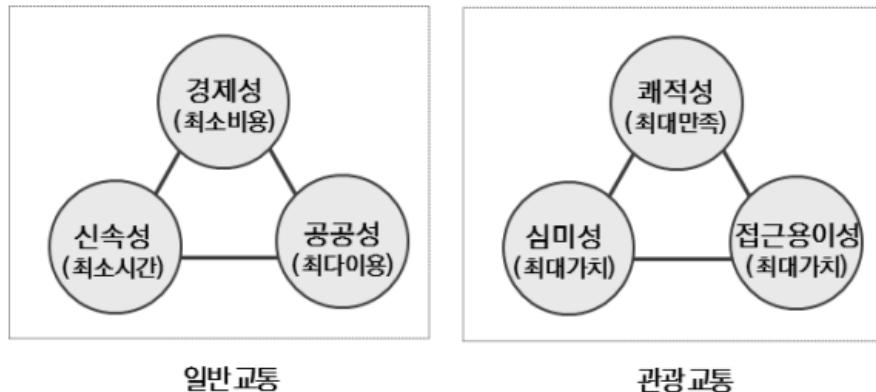
- 공간적 개념에서의 접근성은 특정 교통수단을 통해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공간 이용의 용이성(Dalvi and Martin, 1976)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대상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 시간 거리, 비용 거리, 심리적 거리 등으로 설명
-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리적 거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심리적 친숙도 또는 거리감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접근성을 형성함

■ 관광(tourism)의 어원적 의미는 돌다, 순회하다의 의미를 내포하며, 관광 활동을 위한 이동 행위에는 공급과 수요의 요소가 작용하게 됨

- 관광 목적지의 자원, 서비스, 인프라 등 매력 요인들이 관광의 공급 요소가 되고, 출발지에 있는 잠재 관광객의 여건과 취향이 관광의 수요 요소로서 역할을 하게 됨

- 접근성은 이러한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접근성의 정도가 연결의 정도를 결정(Kahtani et al, 2011).
- 특정 지역(장소)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및 토지 이용계획, 접근수단의 도입과 운영, 원활한 시간 배치와 운영,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여건 등 네 가지 요인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함(Geurs and Wee, 2004).
 - 관광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의 이동을 위해 도로, 철로 등 연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버스, 기차, 승용차 등의 접근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즉, 지역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 및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접근 인프라의 개선,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됨
- 특히 일반 교통과 달리 관광 교통에서는 심미성, 쾌적성, 접근용이성이라는 특성이 부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경관이 우수한 곳, 쾌적한 여건, 관광자원에의 원활한 도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함

〈그림 1〉 일반교통과 관광교통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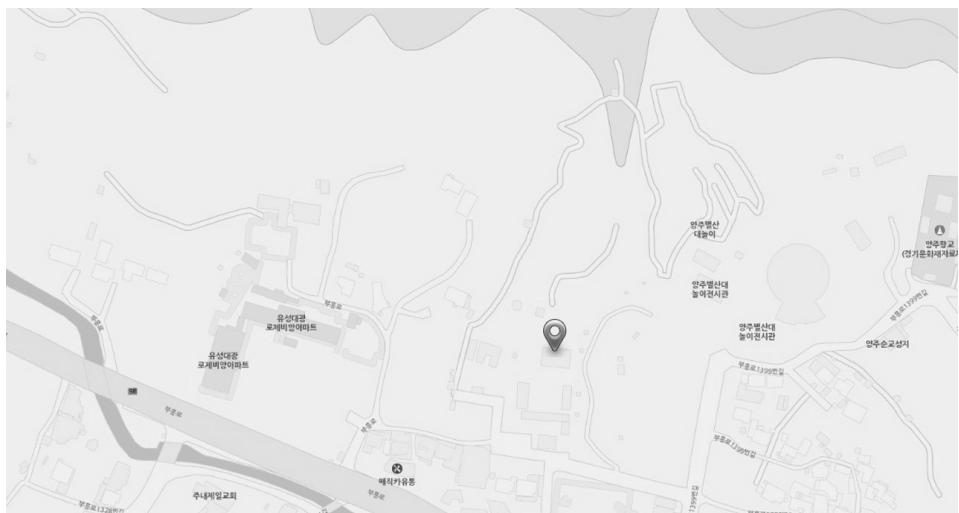
출처: 김향자, 김송이(2015)

- 양주 관아지(楊洲官衙址),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등의 경우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음
-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 경주부 관아건물(慶州府 官衙建物) 등의 경우 양주 관아지, 부여 홍산현 관아에 비해 중심부에 위치하나 주변에 인접한 관광지가 없음
- 인천도호부관아(仁川都護府官衙)를 비롯한 다수의 관아지는 관아지가 가지는 고유한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2-1-1. 양주 관아지(楊洲官衙址) : 접근성·인접성 부족

-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
 - 1506년(중종 1년)부터 1922년까지 양주의 구읍이 있었던 곳으로 한양 동북부의 중심이었던 양주목의 관청
 - 5차례의 발굴 조사로 2017년에 동현부 부속 건물인 동행각, 서행각, 내삼문, 사령청, 외삼문, 중렴성문, 외령성문과 관사였던 내아, 내아 삼문 등을 복원
 - 전국 관아지 중 가장 최근에 복원
 - 행각, 삼문, 내아 등 동현부와 부속 건물 등이 비교적 충실하게 복원
 - 입지와 접근성
 -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에서 200m 정도 이동하여 버스로 환승
 - 1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있으나 배차 간격이 최소 20분에서 140분 정도 소요
 - 인근에 양주 향교와 별산대 놀이 전수관이 있으나 연계 관광 형성이 미비

〈그림 2〉 양주 관아지의 입지



2-1-2. 부여 흥사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 접근성·인접성 부족

- 사적 제 418호
 - 객사 비릉관, 동현인 제금당, 관아 정문인 집릉루, 형방청 등이 남아 있음. 관아를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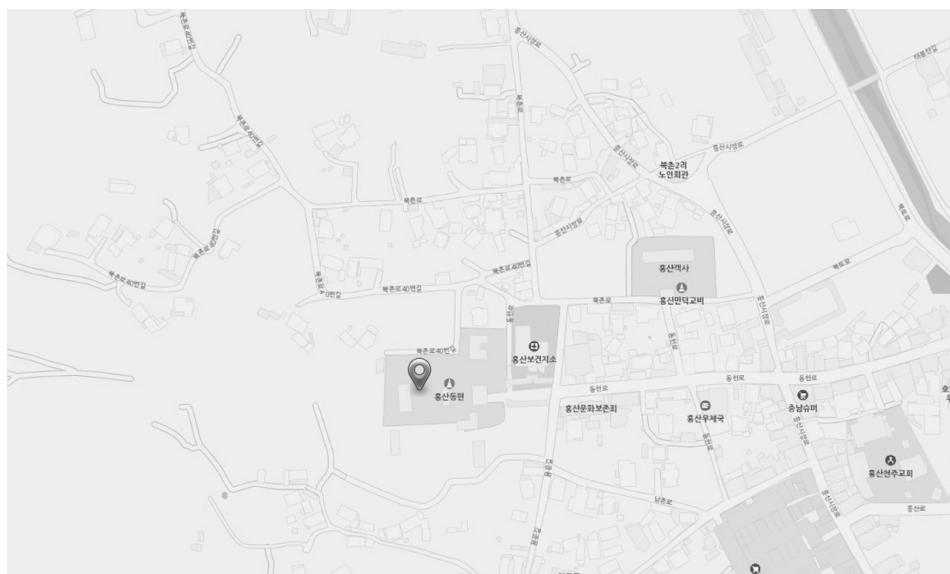
세운 시기는 미상이나 <여지도서>, <홍산읍지>, <호서읍지> 등의 기록을 통해 18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 동원과 객사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
- 홍산 동현: 1871년(고종 8년)에 중수. 광부 구 부여 경찰서 홍산 지서로 사용되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중수
- 형방청: 전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 일제 강점기에 잠업 전수소로 사용되다가 광복 이후 주택으로 사용되기도 함. 세워진 연대와 중수한 기록,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어 조선시대 관아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유산
- 관아의 규모와 형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

■ 입지와 접근성

- 공주역, 익산역,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 등 이용할 수 있으나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여 택시로 이동해야 함
- 주변에 식당 등 편의시설 미비
- 화장실 없음

〈그림 3〉 부여 홍산현 관아의 입지



2-1-3.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 : 인접성·콘텐츠 부족

■ 사적 제 534호

■ 영월 객사와 관풍헌 및 자규루가 있던 터. 관아와 동현 영역은 사라지고 객사 영역의 건물만 남아 있음.

- 객사 바로 북쪽에는 동현 영역과 건물군이 <월중도>에 나타나있으나 복원되지 못하고 있음

■ 객사는 조선 초기에 건립

- 1456년(세조 2년) 청령포에 머물던 단종이 홍수가 나자 이곳으로 옮겨 거처. 1년 후인 1457년(세조 3년)에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17세로 승하.
- 단종이 기거하던 관풍헌은 객사의 동익현에 해당하며, 단종 승하 이후 폐허로 방치되다가 18세기 말 정조에 의해 중수됨.

■ 입지와 인접성

- 영월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에 인접
- 단종의 유배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연계된 관광지인 청령포에서 약 4Km 거리 소요
- 영월부 관아~청령포 대중교통(버스)이 있지만 배차 간격이 큰 편임

〈그림 4〉 영월부 관아의 입지



2-1-4. 인천도호부관아(仁川都護府官衙) : 콘텐츠 부족

■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 1호

■ 1413년 인천군으로 개칭 된 후 1460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

- 원래 15~16동의 건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객사의 일부와 19세기 초 건물인 동헌과 창고만 남아 있음

■ 도호부 관아 자리에 문학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재현물로 현재의 위치에 이전 개축.

■ 콘텐츠

-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을 토대로 하는 고유한 스토리 부재
- 투호, 칠교, 목판 짹기 체험 등 관아지가 아니어도 체험 가능한 상설 행사
- 현실성 떨어지는 전시물: 얼굴이 모두 동일한 마네킹, 지저분한 의상, 조잡한 형틀
- 방 안에 전시된 가마와 한옥 구조에 대한 고증 없는 건물 등 형식적인 전시와 복원

〈그림 5〉 인천 도호부 관아의 콘텐츠



2-2. 관아지 활용의 긍정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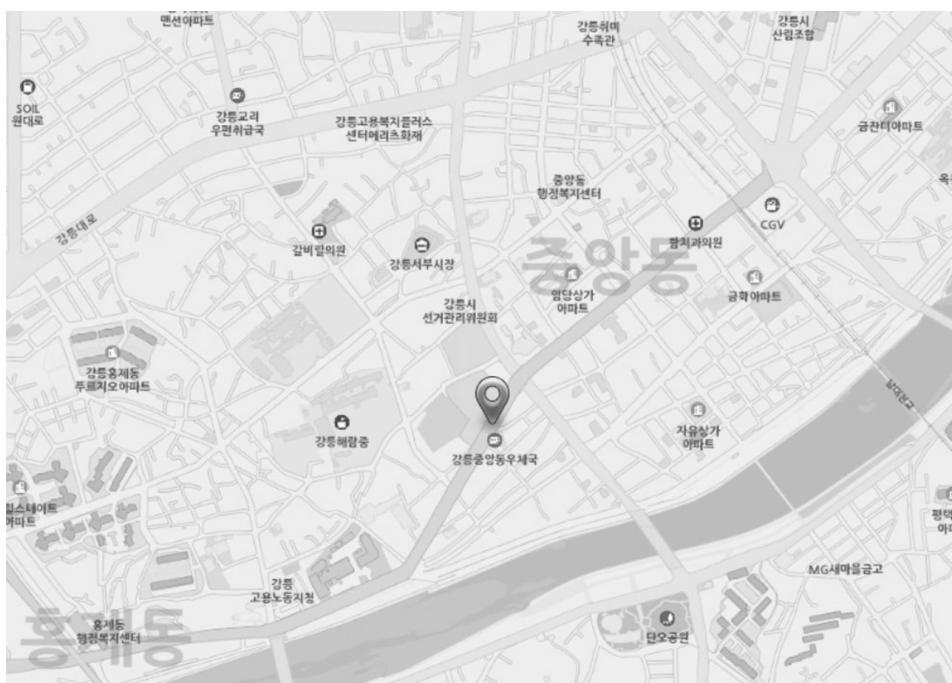
■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 전라감영지(全羅監營址)의 경우

2-2-1.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

■ 사적 제388호

- 936년(고려 태조 19년)에 세워져 83칸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객사문(국보)만 남아 있음.
- 객사문은 고려시대 건축물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 안되는 건물 가운데 하나로, 공민왕이 쓴 ‘임영관’이란 현판이 걸려 있음
- 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관아 성격의 건물터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임영지』의 기록을 통해 옛 강릉부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유적 으로 평가

〈그림 6〉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입지



■ 객사를 비롯한 총 83칸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거의 모두 헐렸고 지금은 강릉 객사문과 칠사당만이 남아 있음.

- 1929년에 임영관을 헐고 강릉보통학교를 세웠고 1975년 9월에 강릉경찰서가 들어섰다가, 강릉경찰서가 포남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공터로 남아 있었음.
- 강릉시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야 유구가 발굴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발굴조사가 행해졌고 1993년 발굴조사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

■ 입지

- 강릉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주변에 숙박 시설과 식당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
- 강릉 단오제 전수 교육관, 단오공원 등이 위치하여 인접 관광지도 존재

■ 콘텐츠

- 강릉 대도호부 관야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미디어·디지털·IT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문화유산과 결합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로운 방법으로 알리고 향유
- 강릉 문화재 야행: 지역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진행된 문화 재활용사업. 2017년과 2019년에 문화재활용 우수사업에 선정. 강릉을 상징하는 강릉대도호부를 중심으로 야경, 야사, 야화, 야식의 4가지 테마로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구성
- 수문장 교대식, 역사투어,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 등 8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콘텐츠
- 명주 인형극 축제: 공연, 전시, 체험을 한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관야지 활용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로 정적인 관람 형태를 탈피한 관야지 활용의 좋은 예

〈그림 7〉 강릉 대도호부관아 관아의 콘텐츠



2-2-2. 전라감영지(全羅監營址)

■ 전라북도 기념물 제107호

- 1392년(태조 1년) 조선왕조 성립과 동시에 전주에 전라감영이 설치. 1895년(고종 32년)까지 약 500년간 존속. 감영의 정문인 포정문(布政門), 감사 집무실 (宣化堂), 감사 주거 공간 연신당(燕申堂), 내아(內衙), 관풍각(觀豐閣) 등 40여 채가 있었음.
 - 일제강점기에 도청(道廳)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심 건물인 선화당은 도청의 부속 건물 용도로 사용되다가 한국전쟁 때 1951년에 화재로 소실
 - 2015년에 옛 도청 건물을 철거하고 2017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선화당, 연신당, 내아, 관풍각 등 복원
- 조선시대 전라도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가 설치된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
- 입지
 - 전주시의 중심가에 위치하며 전주 남부시장을 비롯하여 상권과 숙박 시설을 갖춤
 - 풍남문, 한옥마을 등 연관된 관광지가 인근에 존재

〈그림 8〉 전라감영의 입지



■ 콘텐츠

- 터치 스크린으로 한지와 방각본 제작 과정을 체험
- 관찰사의 하루를 비롯하여 교귀식과 망궐례 등 감사의 생활 및 행사를 체험.
- 마네킹과 개성 없는 전시물이 아닌 동적인 체험과 공연으로 구성
- 1884년에 전라감영을 방문한 주미공사 조지클레이턴 포크가 전주의 음식과 기방을 묘사한 일기와 사진을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음
- 전주가 한식의 중심지라 점과 연계하여 장소성을 부여하고 관아지를 통해 홍보하는 좋은 예
- 선화당 벽면에 미디어아트로 제작 전시 중
- 한식의 본고장이라는 지역성과 풍파지관으로서의 역사성을 살린 전시·공연 콘텐츠
- 접근성과 인접성이 좋은 장점을 활용한 대표적인 역사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림 9〉 전라감영의 콘텐츠



III. 관광지로서 제주목 관아

1. 제주목 관아의 특징

1-1. 제주목 관아의 역사

-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濟州牧) 관아
- 관덕정(觀德亭)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으며, 탐라국 시대부터 성주청(星主廳) 등 주요 관아시설(官衙施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
- 관아시설은 1434년(세종 16년) 관부(官府)의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 타 없어진 뒤 바로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1435년에 골격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 내내 중·개축(重·改築)이 이루어짐.
- 제주목 관아는 일제강점기 때 집중적으로 훼철되어 관덕정을 빼고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음
- 제주시에서는 탐라국 아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제주목 관아를 원래의 양식(樣式)으로 복구(復舊)하고자,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문화 층(文化層)과 함께 문헌상에 나타난 중심 건물인 홍화각·연희각·우련당·귤림당 등의 건물터와 유구(遺構)가 확인되고 유물 출토
- 1993년 3월에 제주목 관아지 일대가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초석·기단석(礎石·基壇石) 등을 토대로 하고,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와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 등 문헌(文獻) 및 중앙문화재위원·향토사학가·전문가 등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관아지 복원 기본설계 완료.
- 민관(民官)이 합심하여 복원하게 된 제주목 관아는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2002년 12월에 복원(復元) 완료.

1-2. 제주목 관아의 주요 구성

〈그림 10〉 제주목 관아의 구성



1-2-1. 관덕정

- 1448년(세종 30년) 안무사(安撫使) 신숙청(辛淑淸)이 창건한 후 1480년(성종 11년)에 목사 양찬에 의해서 중수
- 서거정(徐居正)의 중수기:

이 정(亭)을 만든 것은 놀이나 관광이 아니라 본래 설치함이 무열(武闥)을 위한 사습(射習) 하되 과녁을 쓸 뿐만 아니라 기사(騎射)를 익힐 것이요, 기사 뿐만 아니라 전진법(戰陣法)을 익힘으로써 적변(賊變)이 있을 때는 삼읍 백성들이 상산지세(常山之勢)로 수군, 육군, 보병, 기병이 각각 나와서 사력을 다하여 싸워 적군의 목을 베어 이로써 부모처자를 구하고, 이로써 한 고을을 보전하며, 이로써 나라의 간성이 되어 역사에 공명(功名)을 세운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 1599년(명종 14년), 1690년(숙종 16년), 1753년(영종 29년), 1779년(정조 2년), 1833년(순조 33년), 1851(철종 2년), 1882년(고종 19년) 등 총 7차에 걸쳐 중수
- 1924년 일본인 島司 前田善次가 보수하면서 15척이나 되는 곡선의 처마를 2척이나 줄여 보수하니 전통적인 멋 소실
- 1969년 10번째 중수시 대대적으로 해체하여 새로 보수하고 주위에 문을 달아 흰 폐인 트칠을 하여 관덕정의 위용 소실.
- 1948년 9월에 제주도의 임시도청으로, 1952년에는 도의회 의사당으로, 북제주군청의 임시청사로, 그리고 1956년에는 미공보원 상설 문화원으로 사용
- 1959년 국보 제478호로 지정. 1963년 보물 제322호로 재지정
- 관덕정 내부에는 관덕정과 ‘탐라형승’, ‘호남제일정’의 현판이 걸려 있음. 실내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작자 미상으로 내용은 두보(杜甫)의 〈취과양주굴만교(醉過楊州橘滿轎)〉·〈상산사호(商山四皓)〉·〈적벽대첩도(赤壁大捷圖)〉·〈대수렵도(大狩獵圖)〉·〈진중 서성탄금도(陣中西城彈琴圖)〉·〈홍문연(鴻門宴)〉·〈십장생도(十長生圖)〉 등

1-2-2. 외대문

- 문헌에 “탐라포정사(耽羅布政司)”, “진해루(鎮海樓)”로 표기
- 관아의 관문으로 1435년 홍화각 창건시에 건립했다고 전하며, 1699년 남지훈 목사가 개건
- 2층 누각 건물로 종루로도 활용
-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탐라방영 총람〉에 목관아 정문으로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음
- 〈남한박물〉에 의하면 총 18칸으로, 관아가 존속했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대문

1-2-3. 하마비

- “수령이하게하마(守令以下皆下馬)”라는 글로 수령 이외에는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게 함.
- 목사가 있는 것을 알리며 목사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가 이 지역에 이르면 누구나 몸가짐을 근엄하게 하여 소란을 떨거나 방자한 행동을 삼가하게 했던 포석.

1-2-4. 심약방지

- 심약(審藥)이 거처하는 방. 심약은 조정에 바치는 약재(藥材)를 심사·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는 종9품의 관원
- 1849년(헌종 15년)에 장인식(張寅植) 목사가 개건(改建)

1-2-5. 영주협당

- 군관(軍官)들이 근무하던 관청.
- 1832년(순종 32년)에 한응호(韓應浩) 목사에 의해 중건(重建)되면서 공제당(共濟堂)으로 개칭

1-2-6. 굴림당

- 굴림당은 거문고를 타고 바둑을 두거나 시(詩)를 지으며 술을 마시는 장소로 이용되던 곳
- 이원조(李源祚) 목사의 〈굴림당중수기(橘林堂重修記)〉

이 땅에 굴명(橘名)으로 된 국과원(國果園)이 모두 36곳인데, 홀로 이 굴림당(橘林堂)만이 연희각(延曦閣) 가까이에 있다. 입추(立秋) 이후가 되면 서리가 내려서 많은 알갱이가 누렇게 익는다. 공무(公務)를 보는 여가(餘暇)에 지팡이를 짚고 과원(果園)을 산책하노라면 맑은 향기가 코를 찌르고, 가지에 열매 가득한 나무들을 쳐다보노라면 심신(心神)이 다 상쾌해진다. 그러나 굴림당의 창건(創建) 연대는 알 수 없다

- 1743년(영조 19년) 안경운(安慶運) 목사가 개건(改建)하였고, 1769년(영조 45년)에 중수(重修)한 뒤 건물이 노후하여 이원조(李源祚) 목사가 1842년(헌종 8년)에 다시 중수함

1-2-7. 목관아 비석군

- 과거 제주목관아 내에 소재했던 비석과 도내 각지에 산재해 있던 망실위기에 처한 비석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놓음

- <영상이공최응영세불망비>, <사상양공현수영세불망비>, <행목사윤공계교민선정비>, <목사윤공구동청덕선정비>, <사상한공응호거사대>, <사상백공희수휼민선정비>, <사상정공기원거사비>, <사상조공희순영세불망비>, <판관강공재의거사비>, <목사양공현수제폐비> 등이 있음

1-2-8. 망경루(탐라순력도 체험관)

- 망경루는 북두성(北斗星)을 의지하여 임금님이 있는 서울을 바라보며 그 은덕을 기리는 신지(信地)로 중요한 제주목 관아의 하나
- 1556년(명종 11년) 김수문(金秀文) 목사가 창건한 뒤 1668년(현종 9년) 이인(李演) 목사가 개건(改建)하였고 1806년(순조 6년)에는 박종주(朴宗柱) 목사가 중수(重修)
- 1861년(철종 12년)에 신종익(申從翼) 목사가 이 누대(樓臺)에 좌탑(坐榻)을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훼철(毀撤)되었음.
- 오점(吳靄)과 김양수(金亮洙)의 상량문(上樑文)

1-2-9. 연희각

- 목사가 집무하던 곳. 상아(上衙)의 동헌(東軒), 목사의 정아(正衙) 등으로도 불림.
- 이원조(李源祚) 목사의 <연희각기(延曦閣記)>:

연희각은 예전에 기문(記文)이 없어서 건치(建置) 연월일을 상세히 알 수가 없다. 현판(懸板) 도 누가 명명(命名)하고 누가 쓴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건물은 겹쳐마에 깊숙한 지붕으로 좌대(座臺) 위에 높게 지어져 있다. 그 이름을 연희(延曦)라고 한 것은 외신(外臣)이 충성(忠誠)을 다하고자 하는 정성(精誠)을 표현한 것이다.

- <탐라지(耽羅志)>에 의하면, 심연(沈演)의 시(詩)가 부기(附記)되어 있고 목사의 겸직(兼職)이었던 절제사(節制使)가 방어사(防禦使)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연희각은 1638년 전후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
- 1884년(고종 21년)에 홍규(洪圭) 목사가 중수(重修)하였으나 1924년 여름에 일제(日帝)에 의해 강제로 헐림

1-2-10. 동헌 내아지

- 지방수령(地方守令)의 처첩(妻妾)이 거처하는 내당(內堂)
- 제주목의 경우, 목사(牧使)의 처첩들이 와서 거처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간혹 사도(使道)의 친인척이 유람(遊覽)을 위해 방문하거나 자제들이 안부를 물기 위해 찾아 왔을 때 거처(居處)하였음

1-2-11. 노비 행랑지

- 관노비(官奴婢)들이 거처하는 곳
- 동헌의 내아 앞에 길게 둘러 지은 행랑(行廊)
- 『남한박물(南宦博物)』에 의하면, 행랑채에는 관노 · 악공 · 영급창(營及唱) · 목급창(牧及唱) · 관비(官婢) · 기생(妓生) 등이 거처하였던 곳으로 기록

1-2-12. 예고지

- 예방고(禮房庫)
- 진상에 필요한 전복(全鰐) · 해삼(海蔘) · 표고버섯 · 미역 · 비자(榧子) · 동백(冬柏) · 오징어 · 추복(追鰐) · 인복(引鰐) · 은어(銀魚) · 생어(生魚) · 청밀(淸蜜) · 백임(白荏) · 민어(民魚) · 석어(石魚) · 수어(水魚) · 청어(靑魚) · 백자(柏子) · 석화(石花) · 해의(海衣) · 백립(白蠟) · 오미자(五味子) 등 각종 물품을 보관하던 장소

1-2-13. 예리장방지

- 지방관아의 예방(禮房)에 소속된 서리(胥吏)들이 집무를 보거나 거처하던 방

1-2-14. 우련당

- 1526년(중종 21년)에 이수동(李壽童) 목사가 성(城) 안에 우물이 없으면 적이 침입하여 성(城)을 포위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구급하기 어렵다 하여, 못을 파고 물을 가두어 연꽃을 심은 뒤 그 위에 세웠던 정자(亭子)이며, 연회 장소로 사용되던 곳
- 1694년(숙종 20년) 이익태(李益泰) 목사가 중건. 영조(英祖) 때에는 김정 목사가 중수

하고 못 가운데 석대(石臺)를 쌓아서 꽃과 대나무를 심고 향의실(享儀室)이라 개명(改名)하고 공물(貢物)을 봉진(封進)하는 장소로 사용

1-2-15. 영리장방지

- 제주영(濟州營)에 소속된 서리(胥吏)들이 집무(執務)를 보거나 거처(居處)하는 방(房)

1-2-16. 호적고지

-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 등 세고을(三邑)의 호적(戶籍)을 보관했던 장소

1-2-17. 애매헌지

- 1668년(현종 9) 이인(李瑊) 목사가 향교를 가락천(嘉樂泉) 서쪽의 옛터로 이건(移建)하고 망경루(望京樓)를 중수(重修)할 때 같이 중수하였다고 함

1-2-18. 회랑지

- 절제사(節制使)가 사무를 보던 곳
- 1435년(세종 17년) 최해산(崔海山) 안무사(按撫使)가 창건한 뒤 1648년(인조 26년)에 김여수(金汝水) 목사가 중수
- 1713년(숙종 39년)에 방어영(防禦營)으로 승격되어 별도로 정아(正衙)를 설치함에 따라 영리청(營吏廳)이 되었음
- 1772년(영조 48년) 양세현(梁世絪) 방어사(防禦使)가 중수(重修). 1829년 (순조 29년) 이행교(李行教) 방어사가 개건(改建).
- 홍화각이라는 명명(命名)은 왕의 어진 덕화(德化)가 백성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붙여진 것
- 홍화각은 탐라고각(耽羅高閣)이라 불리었을 정도로 관아건물 중에서 가장 웅장하였음
- 기문(記文)으로 <고득종기(高得宗記)>와 <김진용중수기 (金晉鎔重修記)>, <이원조중수기 (李源祚重修記)> 등이 전함

- 194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훼철(毀撤). 현재 고득종(高得宗)이 쓴 ‘홍화각(弘化閣)’ 편액(扁額)과 ‘홍화각기(弘化閣記)’가 새겨진 현판(懸板)이 고·양·부삼성사(高·梁·夫三姓祠)에 보관되어 있음

1-3. 제주목 관아의 콘텐츠

1-3-1. 제주목 역사관

- 제주목을 테마로 하는 역사 체험 전시 공간
- 제1전시실: 제주목 관아
 - 제주목 관아의 역사적 변천사와 발굴 및 출토 유물 전시
 -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크게 세 번에 걸쳐 재건되었음을 확인
 - 1~3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제주목 관아의 중심시설인 동현지와 내아건물시설과 중대문-동현지 마당으로 연결되는 중심도로가 밝혀짐
 - 1998년도 4차 발굴조사에서 외대문, 중대문지를 비롯하여 홍화각, 애매헌, 호고, 호적고, 우련당, 향리방, 영리장방, 성내연못, 우물 등의 시설물과 이를 둘러싼 담장지 확인
 - 이와 같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초석·기단석 등과 「탐라순력도」(1703)와 「탐라방영 총람」(1760) 등의 고문헌을 토대로 2002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
 - 발굴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주조석과 ‘시주만호(施主萬戶)’, ‘목사(牧使)’, ‘곽지촌(郭支村)’, ‘천호 대승석(千戶 大承碩)’ 등의 글씨가 새겨진 기와를 비롯한 다양한 문양의 기와, 막새 등 출토
 - ‘내성(內膽)’이란 글씨가 새겨진 분청사기 접시편, 인명(金大尹, 金生, 大男, 막개), 관직명(別官, 官上) 등이 글씨가 새겨진 백자 등도 확인
 - 1416년 (태종 16년) 제주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의 건의에 의해 제주의 지방행정구역은 제주목(濟州牧)·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에 삼읍체제로 개편
- 제2전시실: 제주 목사
 - 제주도는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1목 2현 체제로 편재되어 전라도 관찰사(종2품)의 관할 하에 있었음. 이에 제주목에는 제주목사(정3품), 정의·대정 양현에는 현감(종6품)이 파견. 목에는 목사를 보좌하는 관리로 판관(종5품)을 두었음
 - 원칙적으로 1목 2현 모두 상위관서인 전라도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지만,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전라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관찰사의 권한 중 일부를 제주 목사에게 이양함으로써 목사는 제주목을 총괄하면서 정의·대정현 지역을 감독·규찰

- 제주 목사는 행정적 기능 외에 군사적인 기능 수행이 강조. 군사적 직책이 겸임됨에 따라 절제사(만호 · 안무사 · 방어사) 등의 직함을 사용. 형벌, 소송의 처리, 세금의 징수, 군마 관리, 왜구의 방어 등 제주도의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사후에 전라도 관찰사에게 1년에 2차례 보고
- 조선시대 제주 목사를 역임한 이는 총286명. 제주목사의 임기는 2년 반(30개월)이나 일신상의 이유나 문책 등의 사유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이가 많았으며 부임을 명받았으나 오지 못했던 이도 12명임.
- 조선시대의 관리 임용에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주 출신이 제주목사로 임명될 수 없었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대략 1년 10개월 정도임

■ 제3전시실: 제주읍성

- 제주 읍성 내 주요 건물 및 변천사 등 당시 제주목의 생활상과 역사를 이해하고 조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부임 목사의 생활상 및 행렬도 전시
- 제주읍성의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1105년(숙종 10) 탐라군이 설치되면서 성곽이 축성되었는데 당시 읍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탐라국시대의 성곽을 일부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
- 조선초기 제주읍성은 지금의 산지천과 병문천을 자연 해자(垓字)로 삼고 그 안쪽에 성벽을 쌓아 만들어짐
- 1565년(명종 20년) 곽흘 목사가 성 안에 우물이 없어 백성들이 겪는 불편함을 없애고, 읊묘왜변의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동쪽 성을 가락천 밖으로 넓혀 축성함으로써 이로부터 산지천과 가락천이 제주읍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
- 임진왜란 후인 1599년(선조 32년) 성윤문 목사가 제주성의 대수축 공사를 단행. 남·북수구에 흥예를 놓고, 그 위에 각각 제이각과 죽서루를 건립
- 이후 폭우 때마다 산지천이 범람하여 민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1780년 (정조 4년) 김영수 목사에 의해 길이 551보, 높이 9척의 간성(間城)이 축조
- 한말까지 유지되었던 제주읍성은 일제강점기 내려진 1910년 읍성 철폐령으로 차례로 헐림. 1920년대 후반에는 대대적인 산지향 축항공사가 이루어져, 바다 매립을 위한 골재로 사용되면서 제주읍성은 대부분 헐림.
- 현재 오현단 위쪽(제주시 이도1동)에 일부 잔해를 간직하고 있는 성벽을 제주도 기념물 제3호(1971. 8. 26)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음
- 고지도: 대부분 18~19세기에 제작된 옛 지도에 나타난 제주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당시 제주의 행정구역 · 방어시설 · 자연 · 생활상을 상세하게 담고 있음

1-3-2. 탐라순력도 체험관

■ 망경루 1층에 <탐라순력도>를 테마로 한 역사 체험공간을 조성. 1700년대 조선시대 제주의 사회생활, 명승지 방어유적, 진상 등 이형상 목사가 제주를 순력하던 여러 상황들을 각각의 그래픽 패널 및 영상물을 통하여 당시 제주의 생생한 생활상과 역사를 이해하고 조명해 볼 수 있음

■ 탐라순력도

-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1702년(숙종 28년)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도 내 각 고을을 동-남-서-북으로 순력(巡歷)한 내용과 여러 행사 장면 등을 제주목 소속 화공 김남길(金南吉)로 하여금 41폭의 채색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오씨 노인에게 간략한 설명을 쓰게한 후 만든 화첩
- 총43면인 탐라순력도(가로 35cm × 세로 55cm)는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漢拏壯囑) 1면과 순력 및 행사장면 39면, 제주도를 떠나는 장면을 그린 호연금서(浩然琴書) 1면과 화기(畫記) 2면으로 구성. 호연금서를 제외하고는 화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해서체인 4글자로 제목을 달았고, 중간에는 김남길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는 그림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
-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초 제주도의 지리, 지형, 풍물 및 관아, 성곽, 군사, 방어, 진상, 경관 등의 자세한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거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귀중한 자료

1-3-3. 행사

■ 체험 행사

- 공예체험
- 거문고 체험
- 서예체험
- 쿨림테라피 명상체험

■ 야간 개장 정기 공연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 쿨림풍악: 제주목 관아 망경루 앞 마당
- 수문장 교대의식: 관덕정 광장
- 버스킹 공연: 관덕정 광장

〈배비장전〉을 활용한 제주목 관아의 문학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

〈그림 11〉 2023년 제주목 관아 행사 포스터



〈그림 12〉 굴림풍악 리플릿



■ 기타

- 제주 국제 관악제
- 단오맞이 민속 마당
- 설 민속 놀이마당

2. 관광지로서 제주목 관아의 장점

2-1. 접근성과 인접성

■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인근 관광 시설과의 높은 인접성

- 제주 공항에서 제주목관아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20분 안팎 소요
- 제주의 쇼핑거리 칠성동과 탑동 지하상가 등과 인접, 식당가 및 숙박 시설을 구비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리

〈그림 13〉 제주목 관아의 입지



2-2. 장소성

2-2-1. 장소(Place)와 장소성(Placeness)

- 공간(空間, space)은 지구표면에 나타나는 거리나 방향, 위치 등의 기준을 가진 물리적 개념
- 장소는 인간의 해석을 통해 가치관이 투영된 심리적 개념이며,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형성
 - 장소는 정체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실체로 모든 사물은 장소 안에 물리적인 위치를 갖고 인간은 그 장소를 지각하고 경험함으로써 공간-인간-사물의 상호 관계를 만듦
 - 장소는 인간에 의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특정 공간의 특성으로 동질적인 공간은 우리가 그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장소가 됨⁵⁾
 - 장소성은 인간의 기억이나 경험을 통해 장소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인지하게 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
 - 장소성은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어떤 장소를 다른 장소와는 구별되게 만드는 총체적 특성. 장소성은 장소 차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재창조할 수 있는 요소
 -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체험이나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문화적 정체성 등을 통해 형성. 장소성은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에 대한 종속, 장소의 정체성 등으로 세분류

2-2-2. <배비장전>의 배경으로서 제주목 관아

- 문학작품과 문학작가가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시켜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작가의 생가나 기념관, 작품의 시비, 누정 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문학과 관광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관광콘텐츠는 개발 가치가 큼
 - 관광객들은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호기심, 일상의 탈출 등을 목적으로 문학작품이나 작가와 관련있는 장소를 방문
- 장소성 발현을 통해 관광 자원화가 가능. 문학공간을 활용하여 관광하는 형태를 문학관광(literary tourism)이라 불리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문학기행으로 상품화하기도 함

5) 이 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19쪽.

- 관광객들은 문학공간의 방문을 통해 작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거나 작가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와 허구의 연상으로 인해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유발
 - 문학공간과 문학관광이 가진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 문학작품 속에 그려지는 미적인 경관의 상징성, 개인적인 장소 경험, 환경에 대한 애착, 장소의 역동적 변화 등은 독자들에게 공간의 구체적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 공간에 대한 방문 욕구를 일으킴⁶⁾

〈표 3〉 문학 공간의 개념⁷⁾

분류	개념
작품 중심 문학 공간	소설과 시 등의 배경이 된 공간 문학작품 줄거리와 연계된 공간 주인공의 생활공간
작가 중심 문학 공간	작가의 활동 무대 작가의 생가와 거주지 작가의 이동사와 관련된 공간
소설 향유 관련 공간	소설의 창작, 제작, 유통, 독서 등과 관련된 공간

■ 고소설을 활용한 관아지 관광 연계 부재

- 고소설의 배경이 되는 관아: 〈배비장전〉의 제주, 〈양반전〉의 정선, 〈장화홍련전〉의 철산(평안도) 등
- 현재 고소설의 배경으로서 관아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없음

■ 〈배비장전〉에서 설정되고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인 제주목 관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 및 관광 컨텐츠 구축 가능성

- 문학작품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의 대중적 이미지와 지역 특유의 장소성 형성
- 관광객의 관점에서 주제가 있는 명소는 그 위치를 파악하고 인식하기 편하다는 장점
- 〈배비장전〉의 배경으로서 제주목 관아는 장소가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활용 하기에 유리
- 현재 제주목 관아에서 진행 중인 공연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컨텐츠에서 범위를 넓혀 제주의 새로운 관광환경 구축 가능

6) 이은숙 외, 「종로 문학공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문화역사자리』 19-2, 문화역사자리학회, 2007, 1-14쪽.

7) 임희순 외, 「문학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컨텐츠 개발 연구」, 『탐라문화』 4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신희경, 「고전소설 공간 디자인 위한 제언」, 『돈암어문학』 33, 돈암어문학회, 2018. 를 토대로 재구성

IV. <배비장전>의 내용과 특징

1. <배비장전> 주요 서사단락⁸⁾

- ① 김경이 제주목사를 제수 받고 배선달은 예방 비장이 되다.
- ② 배비장이 근심하는 가족에게 주색을 멀리할 것을 약속하고 제주도로 떠나다.
- ③ 제주도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다.
- ④ 제주에 도착하여 구관과 신관의 교체가 이루어지다.
- ⑤ 구관의 일행 중 정비장이 애랑과 이별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다.
- ⑥ 배비장이 정비장을 비웃다.
- ⑦ 배비장은 기녀와 함께 지내는 다른 비장들을 비웃으며 홀로 거처하다.
- ⑧ 목사 김경이 애랑과 방자와 함께 배비장을 훼절시킬 계략을 짜다.
- ⑨ 한라산 유람에서 배비장이 애랑이 목욕하는 것을 보다.
- ⑩ 배비장이 애랑을 잊지 못하여 방자를 통해 애랑에게 편지를 보내다.
- ⑪ 배비장이 밤에 애랑을 찾아가 애랑과 동침하다.
- ⑫ 방자가 남편인 체하여 애랑의 방 앞에서 기척하자 배비장은 애랑이 시키는 대로 거문고에 숨다.
- ⑬ 남편인 체 하는 방자가 잠시 나간 후 배비장은 쌀 궤에 숨다.
- ⑭ 애랑과 방자가 궤를 물에 빠트린 것처럼 꾸미다.

8) 김삼불 교주 <배비장전>은 교주자의 사상적 경향으로 인해 화해를 인정하지 않고 풍자에서 매듭지으려 하였기에 뒷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구서림본 <배비장전>을 善本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순궁, 「<배비장전>의 변개와 문화콘텐츠 양상」, 『반교어문연구』14, 반교어문학회, 2015, 21쪽) 본 연구의 서사 단락과 인용은 1916년 출판된 신구서림본의 쪽수를 표기하며 그 외의 자료는 이본과 그 쪽수를 표기한다.

- ⑯ 사공인 체 하는 사령에게 애원하여 궤에서 나오다.
- ⑰ 목사, 삼공형, 기생, 육방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비장이 동현 마당에서 알몸 망신을 당하다.
- ⑱ 배비장이 몰래 배를 탔다가 배 주인에게 발각된 후 뱃삯을 지불하지 못하여 방에 갇히다.
- ⑲ 애랑이 배비장을 구해준다.
- ⑳ 애랑의 그간의 일들이 목사의 계획이었음을 말하다.
- ㉑ 목사의 주선으로 배비장이 정의 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애랑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

2. 〈배비장전〉의 성격과 특징

2-1. 풍자성

■ 〈배비장전〉이 가진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 풍자성(諷刺性)

2-1-1. 소설 기법으로서의 풍자(諷刺)

■ 풍자의 개념과 특징

- 풍자는 문학의 종류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학 장르 안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정신이나 어조를 의미하기도 함
- 전통적으로 풍자는 지금을 묘사하고 비난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주제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시사적
- 풍자의 특성은 풍자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이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
- 풍자의 목적 중의 하나가 현실 비판이기 때문에 풍자 작품은 비판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
- 현실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태도에 근거를 두고 성립되며,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없을 경우, 측면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한 방법⁹⁾
- 풍자는 “대상과 주제를 깎아내리는” 기능을 가지며, “대상에 대해서는 우행의 폭로, 사악의 징벌이 도는 첨예한 비평이 되고 독자에게는 조소와 냉소가 되는 웃음의 현상”¹⁰⁾

9) 김영택, 「풍자소설의 개념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목원대논문집』 19집, 1991, 212쪽.

- 풍자는 골계(the comic 희극미)의 하위 범주에 놓이면서, 유머(humour), 위트(wit), 조롱(sarcasm), 독설(invective), 아이러니(irony), 시니시즘(cynicism), 냉소(the sardonic) 등 일련의 웃음과 관련된 미학적 용어들과 동류로 취급
- 유머의 동기가 발견이고 그 영역이 인간 본성이라고 하 때 풍자가 어떤 개선을 도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 영역에서 그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하는 일
- 유머의 동기인 발견이 풍자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영역인 인간 본성은 풍자의 영역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 모든 항목은 풍자의 항목에 대치하여 풍자의 성격 신장(伸張)과 구조심화(構造深化)에 가능성성을 줄 수 있음¹¹⁾
- 풍자(諷刺)는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보다 애둘러 유머와 함께 비판하는 것
- 계급 사회나 빈부격차 등 사회의 불합리성과 불균등에 대한 비판
- 풍자의 대상은 상층. 서민적 혹은 반사회적, 반권위적

■ 해학과 풍자

- 해학 : 해학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자기를 웃게 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부정(不定)된 자기(自己)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자기(自己: 선험적(先驗的) 자아(自我))가 자기를 웃게 하는 웃음으로서, 이것은 곧 자기 부정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긍정을 초래
- 풍자: 풍자는 “우습되 공격성을 띤다는 점에서 해학(유머)과 구별되며, 삶을 백안시(白眼視)하거나 냉소해 버리지 않는 점과 야유(揶揄)·조소로만 끝나지 않고 개선(改善)·시정(是正)의 의도를 지니는 점에서 시니시즘(Cynicism)과 구별. 결국 풍자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관적 골계의 하위개념으로 동시대의 사회나 인간의 부조리와 악폐(惡弊)를 개선하고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의 하나
- 해학은 애타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반면 풍자는 공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풍자가 비록 웃음을 수반하더라도 그 웃음에는 근본적으로 날카로운 공격성이 내재¹²⁾
- 자기를 포함한 비판은 공격성이 약화된 해학이고, 스스로를 제외시킨 비판은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풍자
- 풍자 정신은 표면상으로는 잘못이나 모순을 공격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더운 큰 인간애(人間愛)의 정당성으로 모순과 불합리를 시정하고 개혁하는 정신¹³⁾이며, 인간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정신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휴머니즘에서 근거¹⁴⁾

10)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452쪽.

11) 오현봉, 「풍자의 개념 연구」, 『국어교육』71, 한국어교육학회, 1990, 85쪽.

12) 송현호, 「채만식 소설의 풍자 유형 연구」, 『중한인문과학연구』8,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2, 49쪽.

13)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72, 138쪽.

14) 김지원, 『해학과 풍자의 문학』, 문장사, 1982, 35쪽.

2-1-2. 〈배비장전〉의 풍자성

■ 〈배비장전〉은 목사의 주도로 애랑과 방자가 공모하여 배비장의 위선을 폭로

(목) 너의 여러 기싱 중에 빼비장을 흑흑게 혀야 웃게 혀는 즈 있게 되면 중상(重賞)을 줄 거시니 누가 능(能)히 거횡(舉行)할 것느냐
 그중에 애랑이 아미(蛾眉)를 슬구리고 호치(皓齒)를 잠간 여러 공손이 엿조오되
 (의) 소녀(小女)가 비록 민첩(敏捷)지 못한 오나 사도 분부디로 거횡 혼나이다
 (목) 오-네 능히 빼비장을 휘절(毀節)시기면 춤 제주기싱(濟州妓生) 중(中) 인자(人才)라 혼 리로다 (〈배비장전〉, 36쪽)

■ 〈배비장전〉의 풍자는 배비장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배비장을 포함한 양반 사회와 제주 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풍자 양반 사회와 관인들에 대한 풍자

■ 배비장의 위선

- 배비장은 제주 부임 전, 가족에게 주색을 멀리할 것을 약속

이썩에 배비장 실인(室人)이 것해 있다 혼는 말이
 (실) 제주(濟州)는 도중(島中)이나 물식(物色)이 번화(繁華) 혀야 즈(自來)로 식향(色鄉)이라 만일 그곳 가셨다가 쥬식(酒色)에 몸이 잠겨 회정(回程)치 못한으면 부모(父母)에게 불효(不孝)되고 처자(妻子)에게 못 훌(拂) 닐 두루 가(可)치 안소오니 심량조처(深諒措處) 혼 옵소셔
 (비) 그일은 염녀 마오 이팔가인체사(二八佳人体似) 슈 혼니 요간장금참우부(腰間長劔斬愚夫)라 슈연불견인두락(雖然不見人頭落)이나 암리초군골수구(暗裏招君骨隨求)라 혼 엿스니 딘장부(大丈夫) 뜻을 혼번 세은 후에 웃지 요마흔 녀조에게 신세를 맛조릿가 중횡(重盟)을 혼오리니 아무조록 방심(放心)하고 어마님께 효양(孝養) 혼오 (〈배비장전〉 3쪽)

- 정비장이 애랑과 이별하는 모습을 보고 냉소함
- 목사의 지시가 있기 전에 이미 애랑에게 미혹되는 것을 두고 방자와 내기를 함

이러듯 작별흘 제 신관 사도 례방 비장 이 거동 잠간 보고 방조 불너 웃는 말이 져 근너 션창 우에 청춘남조(靑春男子) 소년녀조(少年女子) 셔로 잡고 못 써나니 져 일이 웨인일고 방조 엿자오되 구관전비(舊官前陪) 정비장과 수정기싱 애낭이와 써나랴고 작별인 줄로 알외오 빼비장 그 말 듯고 비양(虚涼) 혼는 말이 참 허랑(虛浪) 혼 장부(丈夫)로다 이친척원부모(離親戚遠父母) 전 리(千里) 밖에 나려와서 천기(賤妓)에게 딘혹(大惑) 혼야 져다지 테면(体面)을 손상(損傷) 혼니 하인소시(下人所視) 안되였다
 방조놈 코우숨 혼며 혼는 말이
 (방) 나오리는 남의 말씀 슈이 마오 식계상(色界上)에는 영웅렬소(英雄烈士) 업슴닌다
 빼비장 여괴(厲氣) 닉여 혼는 말이

(비) 이놈 그러면 제가 나도 정비장 갓흔 스람으로 인명(認定) 흐느냐 내가 큰소리 흐는 것이 아니라 경향편답(京鄉遍踏) 습십 년(三十年)에 절디가인(絕代佳人) 경국미식(傾國美色) 두름으로 보았건만 원편 눈이라도 한 번만 쏨적엿스면 인소(人事)가 아니다
(방) 그러한 시면 황송 흐오니 소인과 닉기 흐옵시다
(비) 무슨 닉기를 흐랴느냐
(방) 나리그옵셔 상(上京) 흐시기 전에 저 계집에게 눈을 아니 쓰옵시면 쇼인의 슈다(數多) 식구(食口) 틱(宅)에 가서 든안밥을 먹겟습고 만일 나오리그셔 저 계집에게 반흐 오시면 타신 말을 소인 쥐옵쇼셔
빈비장 장담 흐되
(비) 그 일은 어렵지 안다 말갑시 천금(千金)이나 내가 만일 지계 되면 안구(鞍具)셔서 너를 주마 (<배비장전>, 30~32쪽)

- 김삼불본의 경우 배비장의 위선이 강하게 나타남
- 방자는 미색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지만 배비장은 양반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훈계를 함
- 자신이 지키지 못할 도덕적 덕목을 양반의 처지를 내세우다 결국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풍자가 가능

이렇듯 작별할제 신관 삿도 전배예방비장(前陪禮房裨將)이 이 거동 잠간 보고 방자(房子) 불러 묻는 말이
배) 저 건너 저 노상(路上)에서 청춘남자 소년여자 서로 잡고 못 떠나는 저 거동이 우엔일이니
방자 여짜오되
방) 기생 애랑(妓生愛娘)이와 구관 삿도의 정비장(鄭裨將)과 떠나너라고 작별인 줄 알외오
배비장(裴裨將) 그 말 듣고 비양하여 이른 말이
배) 허랑(虛浪)한 장부(丈夫)로다 이친척원부모(離親戚遠父母) 천 리 밖에 와서 아녀자(兒女子)에 대혹(大惑)하여 저대지 애걸(哀乞)하니 체면이 틀리었다. 우리야 만고절생(萬古絕色) 아니라 양귀비(楊貴妃) 서시(西施)라도 눈이나 뜨보게 되면 바색의 아들일다
방자놈 코웃음 하며 여짜오되
방) 나리도 남의 말씀 구이 마암소려. 애랑의 은은한 태도와 연연한 안색을 보시면 오목 요(凹)자에 움을 무어 게다가 세란가리를 하오리다
배비장 율기(律己)를 잔뜩 빼며 방자를 꾸짖는 말이
배) 이놈 양반의 정치(情致)를 어찌 알고 경솔이 말을 하는다.
방) 그러하으면 황송하오되 소인과 내기 하옵시다.
배) 무신 내기를 하랴느냐.
방) 나리께서 올려가시기 전에 저 기생에게 눈을 아니 뜨시오면 소인의 다솔식구(多率食口)가 댁에 가서 든안밥을 먹삽고 만일 저 기생에게 반하시오면 타신 말을 소인 주기로 하십시오.
배비장이 대답하되
배) 그는 그리하여라 말 값이 천금이로되 내기하고 너 소기랴. (김삼불본 <배비장전> 39~41쪽)

- 목사와 여러 비장들이 꽃놀이를 가서 기생과 즐기나 배비장은 “가장 청고흔 체 흐고” 출로 있음
- 배비장이 본래 여색을 멀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자와의 내기 때문임
- 얼마 지나지 않아 애랑이 목욕하는 모습에 미혹됨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모두 허식임이 드러남

목사 다시 기성 불너 춘쥬(春酒)를 권작흐며 여러 비장들과 춘흥(春興)을 자랑홀제 뷔비장은 가장 청고(清高)흔 체흐고 암상(岩上)에 독좌(獨坐)흐야 남 노는 것 비양흐고 글귀지어 을푸 것이다

년장(天長)흐니 한양(漢陽)을 로천니(路千里)오 히활(海澗)흐니 영쥬는 파만경(波万頃)이라 여화미인(如花美人)은 간초월(看楚越)이오 취룡강산무한경(醉弄江山無限景)을 송하(松下)에 독좌(獨坐)흐야 티백(太白)을 기우리니 장부의 굿은 절기 이로써 알니로다

이썩 뷔비장이 글을 읊고 무료(無聊)히 안겼다가 우연이 슈포동(水布洞) 록림간(綠林間)을 바라보니 량안도화 어린 곳에 주순세요(朱脣細腰) 일미인(一美人)이 러리락 비치락 만반교티(萬般嬌態) 다 부리며 춘광(春光)을 희롱(戲弄)흘 제 단계화(丹桂花) 명월굴(明月宮)에 월하 선녀(月下仙女) 그니는 듯 양디운우(陽臺雲雨) 깊은 밤에 무산신녀(巫山神女) 노니는 듯 상하 의복(上下衣服) 활활 버셔 반석상(盤石上)에 접쳐 노코 평사락안(平沙落雁) 본을 밖어 물에 풍덩 뛰여드니 아미산(峨眉山) 반륜월(半輪月)이 청강(清江)에 잠겼는 듯 별유뎐디무릉춘(別有天地武陵春)에 도화류수묘연거(桃花流水杳然去) 격으로 물결 싸려 누려가며 빅구(白鷗) 동동 반불침(半不沈) 격(格)으로 이리 덤벙 저리 덤벙 울렁출렁 굽니는 거동 록파담담(綠波淡淡) 저 연못(蓮池)에 세우(細雨) 쑤려 져진 솗이 구십춘광(九十春光) 쑥를 만나 부용화(芙蓉花)가 넓노는 듯

어언간 물 밖게 선쁜 나셔 맑은 물 한 줌 옥슈(玉手)로 담숙 쥐여 연적(硯滴) 갓흔 젓퉁이를 칠팔 원(七八月) 가지 씻듯 보도독 보도독 씨셔도 보고 청계화연(淸溪花葉) 만발(滿發)흔데 푸른 연엽(蓮葉) 속 제쳐서 호치단순(皓齒丹脣) 물었다가 양치질도 흐야 보며 버들입도 쥬루 록 훌터 만슈잔잔(滿水潺潺) 흐르는 물에 류엽선(柳葉船)도 쎄여 보며 솗가지도 직은 썩거 머리 우에 쇼자도 보고 솗송이를 쑤 쑤 쎄여 입에 담복 물어도 보고 양양발발(洋洋潑潑) 노는 고기 맛기 주어 흐름도 흐며 록음봉초(綠陰芳草) 청계변(淸溪邊)에 조약돌도 엎는 집어 양류간(楊柳間)에 왕리(往來)하는 쇠꼬리를 아주 톡 쳐 휘여, 날여도 보고 흑운(黑雲) 갓치 칙진 머리 구룡소(九龍梳)로 찰찰 비셔 두 손으로 후리쳐 트러, 산머리를 만드는 양은 금봉차(金鳳釵)가 조흘시고 쇠리 널분 금링어(金鯉漁)가 어변성룡(魚變成龍)흐랴 흐고 벽회(碧海) 담담 물결 싸라 구이구이 노니는 듯, 구티정남(九代貞男) 간데 업고 도로혀, 음남(淫男)이 되어, 눈을 모로 쓰고, 숨을 헐덕이며 쪼긴 듯이 호흡(呼吸)을 통치 못하고 혼조 흐는 말이 (비) 뉘 집 녀인(女人)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성호 수름 여러 명 긁치연겠다

그 녀조의 근본(根本)을 알고져 흐나 드를 데도 업고 물을 곳도 업셔 헷침만 모도와 싱키며, 안시가님만 쓰고 무슈히 조탄흐되

(비) 내 본디 경성(京城)에 생장(生長)흐야 팔도강상(八道江山) 명구승디(名區勝地) 아니 본곳이 업건마는 제주 갓치 조흔 강산 보든 바 처음이요 쥬스청루(酒肆青樓) 곳곳마다 미식(美色)도 마니 보았건만 져괴 보이는 져 녀조 갓흔 식튀(色態)는 삼성(三生)에 초견(初見)이라 져를 괴워 본 연 후에 웃지 춤아 공횡(空行)흐리(〈배비장전〉, 38~41쪽)

- 배비장이 애랑에게 수작을 걸기 위해 복통을 핑계로 산중에 남으려고 함
- “발서 흑흑 엿구나 슈군거리”는 것으로 보아 동관들은 모두 배비장의 복통이 꾀병임을 알고 있음

이러흘 즈음에 비도투림(飛鳥投林) 혀야 잘 곳을 차져가고 일모창오(日暮蒼梧) 혀야 석양(夕陽)이 직산(在山)이라 목수도(牧使道) 여러 소속(所屬) 거나리고 회정(回程) 혀야 도라갈 제
비비장운 뒤쳐질 마음 두고 꾀병으로 빠진다 “이고 빠야 이고 빠야” 여러 비장 동임(同任)들이 괴수치고 혀는 말이 발서 흑흑 엿구나 슈군거리며 것인사로 위로 혀되
(동임) 레방개셔는 급각란(急霍亂)인 듯 시부니 침이나 한디 마자시오
(비) 아니요 나 침마질 병 아니요 좀 진정 혀면 낫겠소
여러 비장들이 우승을 참고 방자 불너 혀는 말이 레방 나으니 병환이 본병환(本病患)이라 혀
시니 진정 혀여 잘 모시고 오너라 귀숙하고 쪘 빠비장더러 혀는 말이 이 연유(緣由)로 사도
게 잘 엿줄 것이니 마음 노코 진정 혀다가 가오시오
비 비장 심증(心中)에 딕단 환희(歡喜) 혀야
(비) 여러분 동관개셔 이처럼 냄려 혀옵시니 감수 만만 혀거니와 아모조록 사도고 미안치 아
니 혀도록 잘 엿주시기를 바라오 이고 이고 빠야 (<배비장전>, 41~42쪽)

- 동관들은 배비장의 의중을 알고 있으나 배비장만 이 상황을 모름으로써 웃음을 유발
- 동관들의 의도를 모르는 배비장의 거짓말은 양반에 대한 조롱

그 중에 동관 혀 누이 짓구지가 짹이 업는지라 잠시라도 빠비장 성화를 좀 시기라고
(동관) 글낭은 조곰도 냄려마시오 사도고서도 동관고서 이려혼 씩에 병나는 줄은 뒤강 짐작
해 시나 시불드다
그러나 드르니 이려혼 복통(腹痛)에는 혼 계집의 손으로 빠를 살살 문지르면 그 신효하기가
귀신굿다 혀니 기싱 중 묘훈 년 혀나 골나두고 갈거시니 잘 문질너 보시오
(비) 아니요 내 빙는 다른 이 빙와 달나셔 기싱은 보기만 혀야도 더 압프니 그런 말삼은 두
번도 마시오 이고 빠야
(동관) 그 빙는 좀 이상한 빙요 그려 계집말만 혀야도 알는다니 그러면 우리가 동시(同是)
락양지인(洛陽之人)으로 천 리(千里) 빛게 멀니 와서 정의가 형데(兄弟) 갓흔 터에 져처럼 고
통(苦痛)함을 보고야 참아 잠시인들 혼자 두고 가겟소 나와 갓치 있다가 진정되거든 동횡 혀
야 갈 슈밧게 업소
(비) 아니요 아니요 동관이 내 성미를 모르시오 나는 병이 나면 혼자 진정을 혀여야 소히 낫
지 만일 형데간이라도 갓치 잇스면 낫기는 식로이 혼칭 더 압흐게 되니 시름을 살니랴거든
제발 덕분 어서 가시오 이고 빠야 이고 빠야
(동관) 그러하시면 갈 수박게 업스니 이 마음에 혼조 갓다고 무정타 마이오 혀고 목수도(牧
使道) 따라 환관(還官)흘 제 (<배비장전>, 42~43쪽)

- 방자와 함께 목욕하는 애랑을 보려 감
- 애랑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함

- 배비장이 여색을 멀리하겠다는 다짐을 했음에도 애랑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봄
- 말로는 안 본다면서 음양정기를 핑계로 애랑을 보는 장면은 배비장의 위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
- 방자에게 무안을 당하면서도 싯구를 인용하면서 방자의 눈을 피하지만 방자는 이를 알면서 배비장을 속임
- 양반으로서의 권위와 유식함으로 포장하였으나 결국 방자가 이를 비웃음으로써 양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줌

비비장 방조한테 무안보고 봇그려워 하는 말이

(비) 오냐 다시는 안 보겠다

말로는 비록 아니본다 흐나 음양던기(陰陽精氣)의 서로 화합(和合)하는 힘(力)이 맛치 지남석(指南石)에 바날(生計)을 당기듯 흐야 자조 그리로만 가겠다.

방조 보다가

(방) 져눈

(비) 으, 나, 아니 본다

흐 면서도 겪눈질로 힐금힐금 그 녀조를 쏘이보겠다 이와 갓치 식광(色狂)이 되어다가 잠시 한 쬐를 웃어, 방조 불너 지동지서(指東指西)를 흐는데

방조가 그 가라치는 곳을 바라보면 이 동안에 비비장은 그 녀인을 보는 것이였다

(비) 방조야 져 경(景) 쪽타 동(東)편을 살펴보아라 근슈루대(近水樓臺)에 선득월(先得月)이라 소간부상삼박척(笑間扶桑三百尺) 흐니 금계서기월륜홍(金鷄栖月輪紅)이로구나
서편(西便)을 쪽 보아라

약수삼천리(弱手三千里)에 춘식(春色)이 묘연(杳然) 흐데 요지왕모(瑤池王母) 하강(下降) 흐 듯 일쌍(一雙) 청도(青鳥) 나라든다

남편(南便)을 쪽 보아라

대희망망천리파(大海茫茫千里波)에 곤화위봉수여람(鯢化爲鵬水如藍)이로구나

북편(北便)을 쪽 보아라

천연(青天)이 삭출금부용(削出金芙蓉) 흐니 진북명산(鎮北名山)이 제아니냐

중앙(中央)을 쪽 보아라

빅로(白鶯) 탄 여동빈(呂洞賓)고리 탄 리적선(李謫仙) 차례로 비상년(飛上天) 흐다

방조 그짓 속는 체흐고 가리치는 턱로 살펴보니 비비장은 그 동안에 녀인을 보는지라

방조 이 그동을 보고

(방) 져 눈 참, 일 낼 눈이로구

비비장이 삼작놀느니 두 손으로 눈을 얹는 가리며

(비) 나 아니 본다 념녀마라 (〈배비장전〉, 48~51쪽)

■ 망신 당하는 배비장

- 애랑과 수작하다 애랑의 남편이 온 줄 알고 애랑의 계교로 자루에 들어감
- 배비장은 자루 안에서 거문고 소리를 냄

일시 경 쯤 지난 후에 봉자놈 밧그로조쳐 언성을 변호야 고함호며 문녀려라 흐니
져 녀인 놀나난 체 흐고 일신을 벌벌 썰며 황황흘 체

봉자놈 음성 놈혀

(방) 이 요괴롭고 오이호 년 내 몸호나 옴족호면 문 압해 신 네 짹은 써날 날이 업스니 어느
놈과 둘이 밋쳐셔 두런두런흐느냐 오늘밤은 내가 쑥 직혔다 이 년놈을 혼 주먹에 새골 박살
흐리라

배비장 혼겁호야 황황호나 외문 집이 되여 도망흘 슈도 업고 알봄으로 이불 쓰고 녀즈더러
못는 말이

(배) 이 밤중에 누가 와서 이다지 야료를 흐오

(녀) 아무 말도 마시오 야단 낫소 출타(出他)흔 줄 밋엇더니 아니 갓소구려 그것이 남편이랑
작즈이오

(배) 그게 본부(夫) 낭군(郎君)이면 성품은 엊더호고

(녀) 성정으로 말호면 데일(第一) 악남(惡男)이라 흐여도 가호고 미련으로 말호면 도척(盜
跖)이 이상(以上)라 훌 수 잊고 괴운은 항우(項羽)오 우악은 장비(張飛)라 술 질기고 식암 발
나 제 마음에 화만 나면 빅쥬(白晝)에 발금(拔劍)기를 흥문연(鴻門宴) 잔치 시에 번쾌(樊噲)
의 방찌 쓰듯 공중(空中)으로 칼던지면 맹호(猛虎)라도 즉(卽) 솟 흐고 석벽(石壁)이라도 뚜러
지니 그듸 말고 옛날 장비(張飛) 복판(腹板) 쌋던 범강(范康) 장달(張達)이라도 사라보기는
틀넷스니 불상호신 그듸 목숨 날로 인희 죽게 되니 그 아니 원통호오 내가 죽고 그듸 살면
디신이라도 흐련마는

비비장 애결하며 이르는 말이

(빈) 옛날 진궁녀(秦宮女)는 형가(荊軻)의 큰 주먹에 소미(索密) 잡혀 죽을 진왕(秦王) 탄금(彈琴)
흐여 살넷스니 낭주도 의수(義疏) 닉여 이런 목숨 살녀주오

져 계집 흉계(凶界) 닉여 큰 조로 흐나를 흐야 두엇든 것이였다 조루 아구리를 급히 버리더니

(녀) 사이급의(事已急矣)라 도망흘 곳 업소오니 이 조루 속으로나 드러 가시오

(배) 거리는 웨 드러가라 흐오

(녀) 그리 드러가옵시면 조연 살 도리가 잇스리니 어서 밧비 드러가시오

비비장이 절이 간 식아씨 모양이 되야 방식도 못하고 드러가니

그 계집이 비비장을 조루에 담은 후 조루 친을 모두와 상토에 가머미여 등장 뒤 구석에 세
워노코 불 켜노니

봉자놈이 활각 문을 열고 쟁봇 드러셔 수면을 둘너보더니 음성을 변호야

(봉) 저 봉 구석에 세워둔 것이 무엇이니

(녀) 그것을 알아 무엇호시랴요

(봉) 이년아 내가 무르면 디답흘 것이지 몽식이 무엇이니 쥬리 봉망이 맛을 반번 보고 십부
냐

(녀) 닉가 무신 죄가 잇기에

흐면서 골을 펼적 닉여 웃둑 이러스며

(녀) 거문고에 식 줄 다려 셰웠습네

(봉) 농치는 체호고 응 거문고여 그러면 좀 쳐보세

흐며 디속지로 배부른 통을 탁 치니 배비장이 질식 흐여 압푸기 칭량업스나 참 거문고인 체
흐고 조루 속에서 목소리를 내여 둉덩둥덩흐니

(봉) 그 거문고 소리 장히 웅장하고 촛타 대현을 첫스니 소현을 뜨 쳐 보리라
이마 아리 코 근처를 한번 턱 치니 둉덩지덩 그 거문고 소리 이상하다 아리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총 그 거문고 이상고상하다. 져 계집 디답하고
여보 그 무식흔 말은 ھ지도 마오 옛날 녀와씨(女媧氏)가 오음륙률(五音六律) 니실 적에 궁
상각치우(宮商角徵羽)를 청탁(淸濁)으로 난호엇스니 상청음(上淸音)도 화답이랍네 ((배비장
전) 74~78쪽)

- 방자가 잠시 나간 사이에 애랑은 배비장에게 궤 속 들어가 숨으라고 함
- 배비장이 궤 안으로 들어간 후 방자는 궤를 태우겠다고 함

(녀) 월조가 술 사려 간다 ھ는 말 분명 엿드르려 ھ는 듯 십수오니 밧개는 씀작도 마시고
져 웃목에 노힌 피나무 궤를 열고 잠시 은신(隱身) ھ여 보시오
배비장 궤를 보고 문주는 놋치 안코 쓰든 것이였다 테듸 궤소(體大几小) ھ니 何以隱身) 훌고
져 계집 ھ는 말이 그 궤가 밧그로 보기는 적수오나 속이 디단 널너 은신은 훌만 ھ니 잔말
숨 마르시고 어서 밧비 드러가오
비비장 탄식하고 궤문 연고 드러가니 가위 함정에 든 범이오 독안에 든 쥐로구나 녀인이 궤
문 칙고 정말 거문고 하나를 자루에 담아 배비장 셋든 곳에 세우고 한총 기다릴 씩
봉자놈 박으로부터 드러오며 ھ는 말이
(봉) 아무것도 경황없다 내가 악가 문에 나아가다 눈이 절로 스르르 감기드니 비몽스몽간에
빅발로인(白髮老人) 한 분이 나를 부르시되 네 집안에 자로에 거문고와 피나무 궤가 있느냐
ھ시기에 내 말이 있노라 ھ엿더니
그로인 탄식하면서 말숨 ھ시기를 요마흔 잡물이 궤중(几中)에 드려 작희(作戲)가 무쌍(無
雙) ھ니 그제는 소화(燒火) ھ고 검문고는 내다가 팔나 ھ시기 짬작 놀나 눈을 쓴즉 역(歷)역
한 현몽(顯夢)이라 져 궤를 곳 현몽뒤로 사를 것이니 집 한 동 갖다가 불 피워라
이 씩 궤 속에 든 배비장 소화한다는 말 듯고 속으로 탄식하고
(비) 이제는 바로 화장(火葬)이로구나 이 일을 웃지하고
흘 씩 져 계집 악을 쓰며 ھ는 말이
(녀) 천만번 부당하고 조상전리(祖上傳來) 쇼중괴물(所重器物) 업셔질가 두렵거든 수름의 즈
손(子孫) 되야 까닭입시 소화란 말이 웬 말이요 그 뿐 아니라 져 궤 속에는 즈리로 업귀식
(業鬼神)이 계셔 우리 집 여러 식구 먹고 입고 쓰고 남게 점지하는 업제이니 어듸를 감히 요
동훈단 말이요
봉자놈 화를 내며 ھ는 말이
(봉) 네 횡실 져려 ھ니 너 다리고 못술겠다 가장집물 귀치 안코 절식소첩(折色小妾) 너도 실
타 업궤 ھ나 가졌으면 내 어듸 가셔는 못살겠느
ھ더니 그 궤를 질며지고 문 밧그로 씩 나스며
(봉) 이년 본부구정(本夫舊情) 잘 바리고 간부신정(奸夫新情) 네 쪽 ھ니 가득 차지 줄 수려라
져 녀인 제를 봇들며 ھ는 말이
(녀) 업제는 임주 가져가고 나 다려는 피가를 ھ라는가 이제는 못 노컷네
가듸(家垈) 촉지를 임주가 ھ고 업궤랑은 나를 주오 ((배비장전), 79~82쪽)

- 궤를 두고 거짓으로 실랑이를 하던 애랑과 방자는 결국 궤를 강에 버리자고 함
- 배비장이 듣 궤는 결국 동현 마당에 놓여짐
- 동현 마당에서 목사는 하인에게 배 지나가는 소리를 하라고 함
- 궤가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안 배비장은 자신을 비하하며 구해줄 것을 애걸

빈비장 이걸호며

(비) 나는 만 물건이 아니라 진정 스룸이니 죽을 목숨 살녀쥬오
(사) 사람이거든 거쥬성명(居住姓名)을 말호여라
(비) 네 나는 제주에 잠시 우거(寓居)하는 경성(京城) 서강(西江) 사는 乞 걸덕쇠(襄乞德釗)요
(사) 올타 닉 알겠다 제주라 호는 곳이 물색지지라 경성 사룸들이 종종 난피를 당흔다드니
너도 분명 유부녀(有夫女) 간통(姦通)타가 져 디경이 되엿지
(배) 올소 뉘신지는 몰르거니와 참 바로 아르셨소
배비장 그 중에도 조아라고
(비) 하날이 도으시고 귀신이 감동호사 뒤은인(大恩人)을 만맛세라 헌원씨(軒轅氏) 배를 모
와 이제불통(以濟不通)호신 뜻이 닉게 와서 활불(活佛)되네 슈중고흔(水中孤魂) 이니 목숨
살녀쥬면 적덕(積德)이니 적덕으로 살녀쥬오
(<배비장전>, 89~90쪽)

- 배비장은 알몸에 눈을 감고 헤엄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궤에서 나옴
- 동현 앞 마당에서 벌어짐으로써 목사를 비롯한 모든 관원들과 기생들이 보고 듣고 있는 상황

**빈소공 호는 말이 우리 배에는 부정탈가 못 올니겠고 궤문이나 여려줄 것이니 허엄호야 건
너갈가**

(비) 글낭은 염녀마오 닉가 룽산 삼기 왕느할제 기허염 낫치나 배왓소
(사) 이 물은 짠 물이라 눈에 들면 먹거시니 감고 해즈
(비) 눈은 쟁전(生前) 멀지라도 목숨이나 살여쥬오
(사) 그럴디경이면 눈이 멀지라도 날 원망은 마시오
하고 함정 갓지 잠긴 금 거복쇠를 톡쳐 여러 보니 배비장이 알몸으로 쑥 나서며 그리고 소
경될가 염여호야 두 눈을 잔득 가무며 니를 악물고 월칵 넙다 집흐면서 두 손을 헤우적헤우
적호여 갈 제
흔 놈이 나스며 이리 해즈 혼춤 이 모양으로 허여 갈 제 동현(東軒) 뒤청에다가 뒤궁이를
싹 부드치니
배비장이 눈의 불이 번적 나서 두 눈을 쓰며 살펴보니 동현(東軒)에 목叟(牧使)안고 뒤청(大
廳)에 숨형슈며 전후되우에 기싱들과 유향관속군로배(六房官屬軍奴輩)가 일시(一時)에 두 손
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우숨이라(<배비장전>, 90~91쪽)

■ 배비장을 희화화하는 것은 배비장을 비롯한 양반 권위에 대한 냉소

2-2. 판소리적 성격

2-2-1. 판소리의 의미와 특성

■ 판소리는 판(舞臺)의 소리를 의미. 판은 단순한 장소로서의 무대가 아닌 관중과 배우의 집결체를 뜻함

- 판소리는 17세기부터 등장한 한국의 전통 음악이자 고전 문학, 연극으로, ‘소리꾼’ 한 명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노래), 아니리(말), 너름새/발림(몸짓)을 섞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 판소리는 전대의 연희형태가 변형된 것

- 조선시대의 극문화는 고려의 것을 계승. 국가 신흥의 기세와 더불어 외국 사신의 영접에 대한 필요로 규모가 성대. 임병양란 이후에는 물력이 쇄잔해졌을 뿐 아니라 청에 대한 반감도 있어 객사영접의 시설이 줄어듦. 유학자들의 반대: 山臺戲를 비판. 유학자의 입장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 막대한 경비 소요가 이유. 영정조 대에 山臺饌禮 폐지. 산대나례의 폐지는 倡優들의 생활에 타격을 주었으나 지방 정착으로 산대도감의 전통극으로서 형성을 가능케 하고 이를 직업화 예능화 하는데 영향. 지배층의 멸시를 받았다 해도 시정 상공인이나 농어촌의 서민 계급의 오락적 요구 뿐 아니라 사대부층의 요구가 있어 지방 아전들의 직접적 참여와 함께 사적인 연희가 지속. 과거금제한 이가 경부시가를 삼일간 돌아다니는 遊街에 창우들이 재주를 부리는 공연 형태의 놀이가 진설

- 판소리는 일반 하층민을 대상으로 시작된 예술 문화이지만, 18세기에 들어 양반 계층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흥선대원군과 고종, 순종 등 최상위 신분층인 왕족 및 최고 통치자인 임금까지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판소리 명창들을 적극 후원하면서 판소리는 전역에서 사랑받는 문화로 자리매김

■ 판소리는 자체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가지며 그 자체의 미학과 존재 이유를 가짐.

- 판소리의 전통과 역사는 판소리 담당자들과 향유 계층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수세기 동안에 걸쳐 이룩한 것.
- 판소리가 문학적 요소나 음악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해서 문학이나 음악의 하위 장르가 되지 않음.

■ 판소리는 문학과 음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문학과 음악은 판소리의 구성 요소로 존재. 판소리가 자체의 기능과 목적을 충실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희적 요소를 수용한 것.

- 18세기 초반인 숙종 말에서 영조 초쯤에 형성된 이 판소리는, 판소리를 하는 창자와 사설, 창자의 동작과 고수, 여기에 관중의 추임새까지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적인 장르.

판소리는 본래 독창으로 합창이나 병창은 없으며, 대부분은 대체로 오래전부터 전해 오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광대들에 의해 전승

■ 한국의 전통극으로서 판소리는 사회풍자를 소재로 하여 민중의 오락을 그 중심 과제로 함

- 판소리에 있어서의 익살이나 재담 외설 등은 이의 중요한 구실이 되며 관객과의 융합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기능

■ 판소리의 특성

- **분할성:** 판소리는 한 마당 전체가 공연되기 보다는 어느 대목을 떼어서 부르는 것이 상례. 관객이 이미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어느 부분을 보려고 하는 데에 원인. 판소리가 그 모체를 균원설화에 두고 있거나 소설화를 통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부분만으로도 앞 뒤의 연결에 의구심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관객의 상상에 맡길 수 있음. 또한 전체의 이야기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의 독특한 내용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관객들은 주요 장면만을 보려 함. 판소리의 분할성은 구성상의 특질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본질.
- **변형성:** 일정한 배우에 있어서의 공연에 따른 의식적 변형을 의미. 작품의 해석이나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의 공연을 가능하게 하는 연극의 성격과는 구별. 판소리는 배우의 취향이나 의사 혹은 관객의 요구나 환경에 따라 일정한 부분에서 공연시간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함. 분위기에 맞춰 아니라와 창과 발림이 바뀌기도 함
- **시대성:** 시대성은 당시 민중의 의식을 표현하는 방법. 내용이 변화한다는 데서 변형성과 통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정신의 표출. 시대성에 따라 작품의 불필요한 부분으로 삽입되어 전체의 분위기를 훌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판소리만의 특질임.

2-2-2.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 판소리와 소설의 공통점

- **설화의 서사성:** 판소리와 소설은 설화라는 공통의 근원을 가짐. 두 장르는 근본적으로 설화의 이야기적 성격을 그대로 살려 재현. 중심 골격은 서사적 줄거리를 가짐. 균원설화에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여 균원설화의 성격이나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 판소리와 소설은 균원설화의 서사성을 수용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짐
- **형식의 개방성:** 고전소설은 대부분 작품이 여러 종류의 이본을 가짐. 그럼에도 기본 줄거리는 동일함. 모든 이본들이 동일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 판소리의 경우도 기본 줄거리를 따르면서도 삽입 가요 등을 통해 변형. 판소리와 소설의 개방성은 상호간에도 통용. 판소리가 소설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소설이 판소리를 수용하기도 함.

- 구연의 현장성: 소설이나 판소리는 이미 짜여진 대본을 가지고 낭송하거나 구연. 소설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독서보다 강독자의 강독에 의하거나 이야기꾼을 통해 향유하는 것이 상례. 그 대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 청중을 앞에 두고 구연하기 때문에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 변형. 판소리나 소설은 즉흥적 개작을 할 수 밖에 없고 손쉽게 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함. 소설과 판소리는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 넘나들면서 상대의 일부를 가져다 자체의 내용을 보완하고 확장

■ 판소리계 소설

- 판소리의 대본이 문자로 기록되어 전함으로써 형성된 소설
- ‘판소리 열두 마당’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조선 순조 때의 문인 송만재(宋晚載)의 〈관우희(觀優戲)〉에는 열두 마당을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배비장타령〉, 〈옹고집타령〉,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강릉매화타령〉, 〈무숙이타령〉, 〈가짜신선탄령〉으로 기록. 〈가짜신선탄령〉 대신 〈숙영낭자전〉을 판소리 열두 마당에 포함시키기도 함. 이 판소리의 사설은 그 자체가 모두 소설이니, 이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함.
- 대부분의 판소리계 소설은 ‘설화→판소리→소설’로 진행되었지만, 〈화용도〉는 ‘소설→판소리→소설’로, 〈숙영낭자전〉은 ‘소설→판소리’의 과정을 거침.
- 판소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형성되었기에 판소리계 소설 또한 구비 전승 과정을 밟으며 성장

■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

- 문체와 수사법의 다양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입말, 생동하는 구어(口語)에 의한 문체. 이로 인해 이야기가 생동감있게 진행되며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의 묘사도 실감 나게 실현. 양반의 우아함과 서민의 상스러운 모습을 동시에 가짐. 판소리의 어휘나 문체는 인물의 성격과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 판소리계 소설은 이러한 판소리의 사설에서 영향. 기존의 문장체 소설이 갖지 못한 다양성과 생동성을 작품 속에 함유
- 현실감 있는 인물 설정: 판소리계 소설의 인물은 유형적 인물이 아니라 개성있는 인물. 인물에 대해 금기하는 바가 없이 비판과 질책을 하기도 함. 판소리계 소설의 인물은 박제된 규범성을 벗어나 현실에서 살아 숨쉬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다양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인물을 창조.
- 인물 구성의 다원화: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중심 인물 이외의 주변적 인물에 대해 비중을 둠. 등장인물의 성격이 입체화되고 주변적 인물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비판소리계 소설에서 보이는 등장 인물의 단조로움과 천편일률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남
- 구성과 주제의 다면화: 판소리에서는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리에서 다 구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판소리 공연은 재미있는 대목을 선택하고 청중들의 호응이 있

을 경우 다른 대목을 더함. 판소리 사설은 앞뒤 문맥이나 논리성을 의식하지 않음. 판소리는 그 장면 하나로 완성. 이러한 영향으로 판소리계 소설은 문체나 어휘 및 인물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구성에 있어서도 다원성을 보임. 장면의 독자성을 보이는 복합적 구성, 삽입가요를 포함한 삽입요소가 보여주는 복선적 의미망, 그리고 앞뒤가 서로 괴리되고 모순되는 듯하면서도 내면에 흐르는 일관된 작가 의식 등은 판소리계 소설의 구조의 특징

2-2-3. 창을 잃은 판소리 <배비장전>

■ <배비장전>은 현재는 소설로만 알려져 있으나 조선시대에 판소리 형태로 존재

■ 판소리의 향유층과 향유의식

- 19세기에 판소리를 즐기는 양반층이 확대. 중인층을 비롯한 평민 부호들의 판소리 향유도 성행. 평민층 역시 판소리 향유층으로 존속. 판소리 향유층이 전 계층으로 확대. 어느 특정한 계층이 독점적인 향유의 중심으로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 향유의식의 경우에도 양반층은 판소리에서 총·효·열만 찾았다는가 평민층은 세속적 관심만 가졌다는 판단은 실상과 어긋남.
- 판소리의 높은 예술적 성취는 당대 일급 문인을 청중으로 끌어들임. 양반층은 나름대로의 감식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판소리가 양반층을 적극적인 향유층으로 포섭하면서 보인 변모는 평민성을 상실하거나 혹 양반층의 기호에 영합했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님. 각 향유층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야 함
- 판소리는 평민층을 기반으로 하여 발흥한 신흥예술이며 여러 계층의 공감을 받으면서 발전했다는 것이 기본 흐름

■ 창을 잃은 판소리의 특징

- 唱을 잃은 판소리 7마당: <변강쇠가>, <장끼타령>, <옹고집전>, <무숙이타령>, <강릉매화타령>, <배비장전>
- 인물 유형: 뒤틀린 성격의 보유자거나 경직된 부류. 뒤틀린 성격은 변강쇠, 장끼, 옹고집, 무숙이가 대표적. 경직된 성격은 배비장과 골생원. 창을 잃은 판소리는 긍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거나 이의 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음
- 갈등구조: 唱을 잃은 판소리에서 개인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회로부터 야기된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공통점. 주인공과 세계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해결 방안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귀결. 주인공을 희극화하여 경직성을 교정하는 공모 관계가 존재.
- 작가의 시각: 唱을 잃은 판소리에서 작가는 그 주인공에게 부정적 시각을 보임. 개별적 차원에서 특정한 계층의 관심이나 의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작품이 일률적

으로 특정 계층의 관심사가 되지 못함. 주인공들이 도덕적 관점에서 부정적이어서 계층문제를 떠나 도덕률에서 평가가 가능. 이러한 평가가 일반론적 차원에서 가능하나 구체적 정황에서 무의미할 수 있음. 정상에서 일탈된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 삶의 건전성과 균형 감각 상실.

- 미적 특질: 창을 잃은 판소리의 미적 특질은 골계미에 치우친 경향. 풍자가 암도적이며 비장미 결여. 비장미는 인물이 긍정적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나 객관적 정황에 의해 좌절될 때 나타나는 미적 특질. 주로 전승 5가에서 주인공의 고난을 표현. 19세기 후반 비장미로의 경사가 판소리사의 흐름이었다면 창을 잃은 판소리가 비장미를 결여하고 골계미에 편향되었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 어긋났다는 의미.

■ 〈배비장전〉의 향유 기록

- 1754년 유진한의 〈만화본춘향가〉

濟州將留裴將齒 제주에선 배비장의 이빨을 남겨두었네¹⁵⁾

- 1843년 송만재의 〈관우희〉

慾浪沈淪不顧身, 肯辭剃鬚復挑齦, 中筵負妓裴將, 自是倥侗可笑人¹⁶⁾

- 신재효의 〈오섬가〉

제주기싱 이랑이가 정비중을 후리랴고 강두에 이별할제 거줏수랑 거줏울음 두발을 쑹버치고 두쥬먹 불근 쥐고 가슴 광” 두다리며 업퍼지락 잡바지락 ھ도통곡 우는말이 나아리 써나신후 천슈만흔 협의 설움 엇지할고 „ „ „ 숨월 동풍 홍도벽도 곳 『마닥 임의 싱각 구월호풍 황국단풍 씨』로 임의싱각 서정의 달이뜬들 눌과함씌 놀앗시며 동각의 막화핀들 눌과함씌 귀경할고 올 『 혼 협의 회포 어듸 『 푸오릿 『-중략-다시는 줄것업다 쇼협의 평싱수랑 나오리 웃는잇색 압니 ھ나 췌여쥬오 난감한 청이로다 싱니를 엇지 췌야 방자놈엽피셨다 아죠 췌기 쉽소이다 맛치로 코송울여 집게로 좁아 췌이 유혀리 낭즈 혼듸-중략-이랑이 ھ직 ھ고 도라셔며 웃두구나 빅비중 쏘 둘너서 캣속의 좁어넉코 무수한 조롱죽난 엇지 아니 허망 ھ며¹⁷⁾

■ 18세기 중엽에 〈배비장타령〉이 불렸으며 19세기까지 존재

■ 唱을 잃은 판소리로서 〈배비장전〉

15) 유진한, 송하준 옮김, 『국역 만화집』, 학자원, 2013, 201쪽.

16) 이해구, 「宋萬載의 〈觀優戲〉」, 『판소리연구』1, 판소리학회, 1989, 283쪽.

17) 이병기 외 편, 『한국고전문학대계12-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관, 1971, 684~686쪽.

- <배비장전>의 세계상은 양반관료 사회에서 배태된 풍속 또는 세태. 배비장과 애장 그리고 방자는 민중적 적실성이나 진지성을 담지하지 않음.
- 배비장이 당시 관료사회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를 관습 안으로 견인하려는 의도는 긍정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정당화 될 수 없음. 배비장의 풍자와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웃음은 민중적 시각.
- 희화화의 과정을 겪고 난 뒤 배비장이 동질성을 얻게 되는 사회란 곧 지방 관야의 그것일 뿐
- 배비장을 망신시키는 웃음의 주체는 민중만일 수 없고 양반층도 포함. 봉건사회 지방 관야의 불건전성을 내포하고 있음.

■ <배비장전>의 풍자 주체가 제주민이라는 점에서 판소리에 투영된 평민적 세계관과 맞물려 있음

- 배비장에 대한 풍자 주체는 제주민이며 풍자의 대상이 배비장이라는 한 개인의 관료가 아니라 제주에 부임 온 양반 관료들이라는 점
- 제주민의 실상을 작품의 저변에 깔고 진행됨으로써 제주 민중의 고난을 웃음으로 승화

■ <배비장전> 서사 특징

- 희극적이고 과잉된 행동, 사건의 과감한 생략과 급박한 진행과 격정적이고 골계적인 대사 등 서사보다는 극 장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무대화하기에 유리
- <배비장전>은 판소리 창으로 구연되었기 때문에 각기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장면 중심의 공연물로서 활용 가능

■ <배비장전>에 나타나는 판소리 사설치례의 흔적

- 사설치례는 길게 늘어 놓는 언어 표현을 통해 다양한 형상을 꾸며서 치러내는 양태를 의미
- 열거와 반복을 통해 그 대상을 구상적으로 보여 줌¹⁸⁾
- 행렬의 구성과 이들의 복식이 반복적인 사설로 나타나면서 상황을 묘사
- 신관 도임 행렬

구관(舊官)은 인교(印交)하고 신관(新官)은 도임이라 좌우청장(左右青帳) 번 듯 들고 호고 있게 들어갈 제 전비후(前陪後陪) 사령군로(使令軍奴) 숨승섭수 노랑 홍의(紅衣) 남(藍) 견티 눌너 씌고 인모전립(人毛戰笠) 우렁 상모 날벌 용 쓰(勇字) 짹 부치고 곤장주장(棍杖朱杖) 번 듯 들고 쌍쌍이 느러셔서 에이싸루 에이싸루 혼금(禁)이 엄숙(嚴肅)한데 청일산(淸日山) 휴(休) 타성(青日傘下吹打聲)이 원근산천(遠近山川) 움작인다 (<배비장전>, 32~33쪽)

18) 박영주, 「판소리 사설치례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22~33쪽.

2-3. 제주와 제주민

- 〈배비장전〉의 배경은 제주목 관아를 비롯한 제주
- 배비장 훼절의 주체인 방자와 애랑은 제주민

2-3-1. 작품 배경으로서 제주

- 작품의 공간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 소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구조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
-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성과 사회성으로 인해 작품과 관련된 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함
- 〈배비장전〉은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고소설
-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中에서

제주도가 배경이다. 〈배비장전〉은 제주도 사람이 짓지 않고 제주도 체험을 직접 나타낸 것도 아니다. 제주도 지명이나 장면 묘사가 막연하거나 부정확해서 대강 전해 들은 바에 따라 꾸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라도 그만일 지역을 제주라고 한 것은 아니다.¹⁹⁾

- 지역 사투리로 서술되지 않아 제주도 사람이 창작하였거나 제주도 체험을 직접 나타내 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하지만 〈배비장전〉에는 제주의 대표적인 지명과 함께 제주 목사의 행차와 부임 경로 등이 실제 지명과 일치
 - 〈배비장전〉의 제주도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성으로 나타남
 - 목사 일행의 꽃놀이 장면은 제주 풍광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줌

룡두(龍頭) 식인 쥐흉남여(朱紅藍輿) 호피(虎皮) 도듬 놈히 타고 전월 부월 솜영 집소(執事) 순시령기(巡視令旗) 버려 세고 디로상(大路上) 나아갈 제 록의홍裳(綠衣紅裳) 미식(美色)들은 빅슈호솜(白袖丹衫) 놈히들어 풍악(風樂)소리 화답호야 지야즈 만슈화림(萬樹花林) 김흔 곳에 쫓고 죄도 간다 한느 산 중(中)턱에 올나스니 벽희(碧海)는 양양(洋洋)하고 대야(大野)는 망망이라 왕발(王勃)이 잇셨드면 각우쥬지무궁귀(覺宇宙之無窮句)를 이곳에 읊혔스리

19)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305쪽.

다시 점점 올나가니 이도명춘(以鳥鳴春)으로 원갓 식 우름운다 쇠소리 고고고 썩국식 썩국썩국 할미식 가불갑죽 접동식 유흥으흥 여고서도 모악 저고서도 프드득 빅화산제빅도(百花山啼百鳥)가 이 산에 모다 외였다 양류청청(楊柳青青) 느러진 가지 벽계잔잔호춘풍(碧溪潺潺好春風)에 얼크러지고 뒤티려져서 손(客)을 보고 읍(揖)을 허고 명주분분폭포수(明珠紛紛瀑布水)는 범증(范增)의 옥(玉) 부수듯 와르르 쾅쾅 로룡(老龍)이 잠을 씻고 산곡(山谷)이 상응(相應) 허니 해외(海外) 삼신(三神) 어티련고 만(萬) 장봉리(丈蓬萊) 여고로다 송하(松下)에 남여 노코 경기(경기)를 삶혀보니 영주사면(瀛州四面) 푸른 물결 장년일식(長天一色) 둘년는듸 쌍쌍벽구(雙雙白鷗)는 물결 따라 흘니 쓰고 점점(點點) 어선(漁船)은 뜻을 달고 왕리(往來) 허니 산수춘풍무한경(山水春風無限景)이 보든 바에 처음이라 (<배비장전>, 37~38쪽)

■ 배비장이 망신을 당하는 방법 또한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배경으로 함

목소 은근이 허인 불너 분부(分付) 허되
(목) 너의들이 일시(一時)에 빠 지나가는 소리를 허여 보아라
여러 허인령(令)을 듣고 일시에 삼문을 삐不克(劈不可) 곤장을 뚜닥이면서 어기여초 소리를 허니
嬖비장 궤 속에서 반겨 듯고 궁리호야 싱각호되 삐不克(劈不可) 허는 소리는 닷 감는 모양이오
출렁출렁 허는 소리는 노 젓는 모양이니 익느(欵乃) 일성(一聲)이 반갑도다-중략-것해 있든
사령놈들 사공인 체하고 썩 나서며
(사) 무슨 말이오
(비) 거기 가는 빠가 어디 빠임나
(사) 제주 빠임네
(비) 무엇 시렸습니까
(사) 머역 전복 허 숨 시렸습니까 (<배비장전> 87~88쪽)

2-3-2. 제주민의 활약

■ 배비장 망신주기의 주모자는 방자와 애랑

■ 애랑의 활약

- 애랑은 <배비장전>의 중심인물로 모든 사건의 원인이자 경과의 주역
- <배비장전>의 모든 이본이 제주의 풍광에 이어 애랑을 소개함으로써 <배비장전>의 중심 인물임을 보여줌

호남좌도(湖南左道) 제주군(濟州郡)은 동(東)으로 일본호협(日本海峽) 서(西)으로 죄선호협(朝鮮海峽) 연화부수(蓮花浮水) 형국(形局)으로 남해(南海) 중(中)에 돌출(突出) 허니 그(其)

중(中)에 한라산(漢拏山)은 도내(島內) 데일(第一) 명산(名山)이오 탐라(耽羅) 고국(古國) 쥬봉(主峰)이라 빅천(百川)이 조종(朝宗)하고 만악(萬嶽)이 경규(競秀)하고 산정신수(山精神水) 정기(精氣)로 애랑(愛娘)이가 싱겨났다
 이랑이 천성(賤生)으로 창가(娼家)에 낫슬망정(色態)은 월서시(越西施) 용광(容光)은 양태진(楊太眞) 직질(材質)은 최잉잉(崔鶯鶯) 가무는 조비연(趙飛燕) 천반(千般)이나 요나(婬娜)하고 만반(萬般)이나 괴이하고 풍류남자(風流男子)가 한번 보면 청종(靑聰)을 머물지 아들즈 업더라 (〈배비장전〉, 1쪽)

인생 천지간(人生天地間)에 무론 남녀(無論男女)하고 인종(人種)은 일반이연만 기중에 우열(愚劣)이 판이(判異)하야 남자에도 현인군자(賢人君子)와 우부천맹(愚夫賤氓)이 있고 여중(女中)에도 정부열절(貞婦烈節)과 음여간희(淫女奸姬)가 대불핍절(代不乏絕)하여 형형색색(形形色色)으로 측량치 못할 것은 자고금금(自古及今) 사람의 성질이라
 사람의 성질이란 거운 거생(居生)하는 지방의 산천풍기(山川風氣)를 많이 응하여 산명수려(山名秀麗)한 지방에는 사람의 성질이 순후공근(淳厚恭謹)하여 악한 기운이 별로 없고 산천이 험준(險峻)한 지방에는 그대로 사람의 성질이 우준간활(愚蠢奸猾)하게 나는 법이라
 호남좌도(湖南左道) 제주군(濟州郡) 할라산(漢拏山)은 옛적 탐라국(耽羅國) 주산이요 남방도 중(南方島中) 제일명산(第一名山)이라 험견하고 수려한 정기(精氣)가 어리어서 기생 애랑(妓生愛娘)이라 생겨낳나 보더라
 애랑이가 비록 천기(賤妓)로 낫일망정(色態)은 월서시(越西施) 양태진(楊太眞)을 압구하고 지혜는 남자로 말하면 진유자(陣留子)에 나리지 아니하고 간교(奸巧)는 구미호(九尾狐)가 활생하였던지 호색남자(好色男子)가 얼커들면 상토 끝가지 빠져 허덕허덕하는 터일러라 (김삼불본, 〈배비장전〉 13~14쪽)

- 애랑은 제주 최고의 명기로 묘사됨
- 기생 점고시 애랑의 소개: 미모 뿐 아니라 시부에도 능한 것으로 묘사

적(嫡) 흉(雄) 인간강선(謫下人間降仙)이 시능부능가무능(詩能賦能歌舞能)에 제일미식(第一美色) 애랑(愛娘)이 (〈배비장전〉 36쪽)

■ 방자의 활약

- 신분 질서를 전도시키는 역할
- 목욕하는 애랑에게 배비장이 반한 것을 알면서 모른 체 하며 배비장을 조롱
- “그뒤로 뒤답(後答)이나 말공(馬公)되는 점점 업셔지겠다”로 대표됨

목욕(沐浴)하는 져 녀즈(女子)를 보려 旱고 계변화초(溪邊花草) 좁은 길로 몸을 숨겨 가만가만 섭분 스며 가는 소리로 방조를 부르니 방조도 그득로 뒤집힌다 말공기는 점점 업셔지것 다

(방) 예- 웨 부르우

(비) 너 져 거동 좀 보아라

(방) 그 무엇 잇소

(비) 이 익 요란이 구지마라 종용이 구경 旱자 물에 놀고 산(山)에 놀고 빅만교태(百萬嬌態) 다 부리니 져것이 금(金)이나 옥(玉)이나

(방) 이곳이 려수(麗水)가 아니여든 금(金)이 엊지 노오릿가

(비) 그러면 옥(玉)이로구나

(방) 이곳이 곤륜산(崑崙山) 아니여든 옥(玉)이 어이 잇스릿가

(비) 금(金)도 옥(玉)도 아니면 二十四番花信風에 먼저 피인 미화(梅花)나

(방) 동각설중(東閣雪中) 아니여든 미화(梅花) 웃지 뛰오릿가

(비) 그러면 도화(桃花)나

(방) 무릉춘풍(武陵春風) 아니여든 도화(桃花) 웃지 뛰오릿가

(비) 미화 도화 다 아니면 헤당화(海棠花)나

(방) 명수십리(明沙十里) 아니여든 旱 당화(海棠花)가 당하릿가

(비) 그러면 황국단풍(黃菊丹楓) 국화(菊花)나

(방) 구일룡산(九日龍山) 아니여든 국화(菊花)가 당하릿가

(비) 이 익 웃 아니면 월서시(越西施) 양귀비(楊貴妃)나

(방) 오호청풍(五湖清風) 아니여든 월서시(越西施) 어이 오며 온천수(溫泉水) 아니여든 귀비(貴妃) 목욕(沐浴) 어이 하오릿가

(비) 셔시(西施) 귀비(貴妃) 제 아니면 입안흔미(入眼魂迷) 불여호야 여호 아니라 독갑이라도 사성결단(死生決斷) 혹 호갯다 이고 이고 날 죽인다

방조 엿자오되 나으리 무엇을 보시고 이다지 맷치심낫가 소인에 눈에 눈에 아무것도 아느뵈옵니다

(비) 이놈아 져괴져괴 져 건너 빅포장 속에 목욕하는 져것을 못 본단 말이냐

(방) 네- 나는 나리고서 무엇을 보시고 그리 旱시나 旱 엿지요, 올소이다 져 건너 목욕하는 녀인 말솜이오낫가 (<배비장전> 45~47쪽)

- “상놈의 눈이라 양반의 눈보다 뒤단 무되”라는 배비장의 말에 방자는 “컹컹 旱고 음탐(淫貪) 旱야 남녀유별(男女有別) 체면(体面)도 모른다”며 반문
- 상하의 신분 질서를 전도시키는 묘미
- 여색에 흑한 양반을 통렬하게 풍자
- 애랑과 더불어 사건을 주도하는 방자
- 연출자 내지는 작가에 가까움²⁰⁾

20) 권두환 외, 「방자형 인물의 등장과 그 기능」,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16쪽.

- 배비장의 심부름을 하는 체하며 사건의 정황을 주도
- 본토인과 제주인의 대결을 형상화

(방) 나으리 정경을 보이오니 뭉치바람에 죽는 한이 잇슬지라도 그리 훌 슈 밋게 업소
하고 성녕설녕 가만가만 거러가서 헷절 혼번 굽신하고

(방) 쉬- 이랑아 빅비장이 발서 네게 흑흑엿시니 무슨 음식 좀 차려다고
이랑이 웃고 다담상 한 상을 정결하게 차리갖다

대모장반 금침화기(金彩花器) 벼려 노코 빗 조흔 청유빅분(淸油白粉) 듀건화전(杜鵑花煎) 한
접시 소담하고 담아 노코 제주소산(濟州所產) 감유조(甘柚子) 설당(雪糖) 쑤려 지여노코 동명
추파(洞庭秋波) 맑은 술 조라병에 가득 너어 옥수(玉手)로 누여주며 준절이 담전갈을 허것다

(의) 너의 나리 무례(無禮)하나 괴같이 자심타기 이 음식 보늬오니 그도 자시고 너도 먹고
량인디작산화기(兩人對酌山花開)라 일빅일빅부일빅(一杯一杯復一杯)로 삼수빅(三四盃) 마
신 후에 그 곳 잠시 잊지 말고 군조(君子)는 견괴이작(見機而作)이라 허니 속거속서(速去速
去)하라 미구(未久)에 뒤틸날하니

방조 도라와 이와 갓치 전갈하고
빅비장 질겨라고 음식 바다 압해 노코 칭찬하고 여 가로되

(빅) 것불 아니라 허니 이러흘 줄은 알엇거니와 져 감(柑)의 이(齒) 조옥이 낫스니 웨일일가
방조놈 엿즈온디

(방) 그 녀인이 감조(柑子) 속지를 니(齒)로 무려 썩옵듸다

빅비장 썰썰 우슈면서

(빅) 이 음식 너 다 먹어라 나는 감조 하나만 먹겠다

방조놈이 짓구지 감조를 집우며 허는 말이

(방) 니쌀 자옥 난 것이라 그 녀인의 춤이 무더 드러우니 소인이가 먹겠고

(빅) 이 놈 벨소리 말고 이리 다고

감조를 썩어서 껌질은 감식(甘食) 후(後)에 그 녀인과 전갈하고
이 갓흔 조흔 음식을 보늬어서서 잘 먹엇습니다 하고 쇠 무례한은 말솜이나 텐싱양(天生陽)
하고 디싱음(地生陰)하니 음양비합(陰陽配合)은 리지소직(理之所在)라 방탕(放蕩)한 화류기
(花柳客)이 훌등차산(忽登此山)하야 탐화봉접(探花蜂蝶)의 마음을 지지오제(知之又知之) 허옵
소셔 하고 엿주어라

방조가 다녀와 허는 말이

(방) 그 녀인 답례불청(答禮不聽)하고 뒤 칙무례(大責無禮) 허옵듸다

빅비장 무료(無聊)하야 탄식(歎息)하며 하는 말이

(빅) 할일업다 나려가자 (<배비장전> 53~55쪽)

- 배비장은 방자의 계획과 지시대로 움직임
- 방자는 ‘망령’과 ‘비례’로 배비장을 모욕하면서 조롱

(빅) 올타 인제에 보앗단 말이냐 상놈의 눈이라 양반의 눈보다 뒤단 무듸구나

(방) 네- 눈은 반상(班常)이 다르닛가 소인의 눈이 나리 눈보다 무듸여 져려흔 비례(非禮)의

것이 아니 봐옵니다마는 마음도 반상이 달너 나으리 마음은 소인보다 컹컹하고 음탐(淫貪)하고 남녀유별(男女有別) 체면(体面)도 모르고 남의 집 규중처녀(閨中處女) 은근(懶懶)히 목욕(沐浴)하는 것을 욕심(慾心)내여 무례히 눈을 쏘아 구경훈단 말슴이오낫가
근래(近來)에 서울 량반(兩班)들 양반(兩班) 즈세(藉勢)하고 계집이라 흐면 체면(体面) 업시 함부로 덤벙이다 봉변(逢變)도 마니 당흐옵되다 나으리도 시골이라고 업수이 여기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요
유부가인(有夫佳人) 유부녀조(有婦女子) 약수(藥水)에 목욕(沐浴)하면 허물 업는 일가친척(一家親戚) 은근이 무덧다가 무례(無禮)한 타인(他人) 남조(男子) 버릇 업는 눈치 알면 당장에 쑤여 나와 이 쌈 저 쌈 난타(난타)하야 삼작업시 보리만 탈 것이니 비례(非禮)의 성각은 일절단념(一切斷念) 흐시오 (<배비장전> 47~48쪽)

- 배비장은 “나 죽고 살기는 네 손에 달려있다”며 방자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살려 달라고 함

비비장이 이처럼 이절트가
(비) 에라 죽드리도 말이나 한번 흐여 보겠다
하고 방조를 부르겄다
(비) 이 이 방조야
(방) 예- 웨 브르심낫가
(비) 이 이 이리 좀 오너라 나는 속 죽을 병이 드렷고나
(방) 무슨 병환이 드셨기에 그처럼 신음(呻吟)을 흐심낫가 모춘(暮春) 감기(感氣)인듯 흐니
패옥산(敗毒散)이나 두어 텁 쓰시지오
(비) 니 병은 피독산 먹을 병이 아닐다
(방) 그러면 망령 병환이 드셨나 보이다 망령병에는 당약이 잇지오
(비) 무신 약이란 말이냐
(방) 소년 량반 망령에는 흥독기를 삶어서 먹슴된다
(비) 안일다 니 병에는 약이 있다마는 웃기가 씩 어렵구나
(방) 그 무신 약이기에 그처럼 어렵단 말슴이오 뒤관절 약명이나 말슴 흐시오
세상에 약치고 구치 못할 리치가 잇스릿가
(비) 이 이 그 말만 드려도 속이 좀 시원하니 그러면 나 죽고 살기는 네 손에 달녀스니 좀
살려다고
(방) 소인의 힘티로는 약(藥)을 구해야 볼 거시니 어서 약명(藥名)을 말슴 흐시오
(비) 약명(藥名)은 미인(美人)이나 너도 아다십히 작일 한나산 슈포동 록림간에서 목욕하든
그 녀인 한번 보고 온 연후에 자연히 병이 되여 죽을 디경이로구나 그 녀조 좀 보게 소기(紹
介)해려무다
(방) 나으리게셔는 웨 어제부터 망령되어 비례(非禮)의 물건을 탐흐시오 그 녀조로 말흘진듸
당디(當代) 문한가(文翰家)의 셀로 규중(閨中)에 김히 드려와 니외가 각별하니 설혹 볼 마음
이 잇기로 무슨 슈로 쐐어 니오 (<배비장전> 56~58쪽)

- 양반 복색으로 한껏 치장하고 애랑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배비장에게 방자는 '유부녀 간통'이라며 배비장의 비도덕적 행위를 비판
- 방자의 조언으로 배비장은 결국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벙거지'를 쓰고 애랑에게 감

밤들기를 기다려 방자는 제 집으로 내보니고 봉 방에 혼조 안져 그녀조에게 발 뵈랴고 몸 텁시를 한참 내는 판이였다

외울망근 덩주탕건 쾨즈 전립 광디씨에 패동기 혼 칙로 봉 방에 혼조 웃둑 셔셔 독갑이 들 닌 듯키 혼조말로 두련거리기를

(비) 이 모양으로 가만가만 담 넘어 드러가면 그 녀인 괴슈치고 혼연(欣然) 상영(相迎) 흐렸다 거름을 혼번 디학지도(大學之道)로 이리 거려 드려가 슈인수 후 디천명이라 흐니 녀조에게 혼번 이리 군례(軍禮)로 뵈렸다

혼창 이리 습의흘 제

방조놈 쫓밧게 문을 펼석 열며 나으리 무엇흐시오

비비장 짐작 놀나

(비) 너 발서 왓느냐

(방) 네 군례 전에 디령(待令) 흐엿고

(비) 이놈 내가 짐작 놀나 바로 췈이 난다

흐며 퍽동기 혼 칙로 쪽 나셔니 오제산월락(烏蹄山月落) 흐고 어화(漁火) 슈에 불 빛친다 야 구(夜久) 흐니 현잠식(喧暫息)이오 춘심(春深) 흐니 학몽난(鶴夢暖)이라 전괴약 미진 낭조 촉야 중(此夜中)에 어서 가서 만단정회(萬端情懷) 풀니로다 거들거려 쪽 나셔니

방조놈 빼비장의 소미를 쥐며 권면흐는 말이

(방) 여보 나으리 소견도 바이업소 아닌 밤중에 유부녀(有夫女)를 간통(姦通) 가면서 져 복식(服色)이 다 무엇이요 그 모양으로 가시다가는 될 날도 다 틀니오리다

(비) 그러면 무엇을 입고 가랴느냐

(방) 우아리막이에 슈건으로 허리나 잘근 동이고 가든하게 나셔여지오

(비) 그럼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방) 초라커든 가지 마시오그려

(비) 이놈 요란이 구지 마라 알몸으로라도 가마구나 이제 보아라 웃더흐냐

(방) 그것이 아조 죽소마는 누가 보면 한나산 미산양순으로 알겠스니 제쥬 복식을 차려 보시오

(비) 제쥬 복식(服色)은 엇더흐냐

(방) 기가죽 두루마기에 노벙거지를 쓰지오

(비) 그것은 과이 초라쿠나

(방) 초라커든 고만두시오

(비) 그런탄 말이다 기가죽은 고만두고 도야지 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비비장 훌일업시 방조의 지휘(指揮)디로 다시 차리고 압뒤를 한번 살펴보더니

(비) 이 익 방자야 췈 흉(凶) 흐구나 범이 보면 기로 알겠다 군기총(軍機銃) 하나만 내여 들고 가자

(방) 흉 흉 거든 가시지 마시오그려

(비) 그 익이 그렷남 말이지 흉 흉 면 엇더흐랴 제 성정(性情) 그러케 팔팔흘 줄을 몰낫다 정 가기 어려우면 뉴 업(負)고라도 가마

(방) 황송흐오이다 그러면 다른 말습 마시고 소인만 따라오시오 (〈배비장전〉, 66~69쪽)

- 수행자로서 집행하는 역할이나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건의 주모자라는 점에서 방자의 행위는 민중 참여의 길을 보여 줌

■ 해녀와 사공

- 배비장이 서울로 도망치다가 만난 해녀에게 하대하다 무시당함
- 자신이 관아에서 망신당한 일이 민가에도 소문이 난 것을 알고 자괴감에 빠짐

강변으로 오락가락 션척(船隻)을 차질 적에 별안간 물속으로 거무슈름흔 물건 흔나히 털벙털
벙 나오는지라

비비장 쌈작 놀느 에그머니 젓것이 무엇이야 즘싱도 아니요 고기도 아니요 아마 물귀신이
날 잡으려 나오나보다 흔고 도망을 흔랴다가 다시 싱각하니 니가 이 모양이 되여 도망흔여
살면 무엇하고 차차리 저 귀신에게 잡혀 죽는 것이 올타 흔고 니를 밧식 갈며 정신을 차려
즈세 보니 귀신은 아니요 물속에 드러가 전복 짜가지고 나오는 계집이라 머리는 다방나릇
비슷 몸은 물썩가 올나 숙검정 한가지 모양인데 발가벗은 몸에 계집 흔 폭만 적갈 멱이듯
잔뜩 촉고 나오는 체격은 처음 보는 수름은 뉘라 훌 것 업시 괴급질식을 흔겠더라
이씩 비비장은 써나는 빅가 어듸 있나 무려보라고 뛰움을 얹지로 참고

(빅) 이보게 이 사룸 말 좀 무려보세

그 계집이 흔춤 물쓰름이 보다가 뒤답고 아니흔고 고기를 외두루니 비비장 그 중에도 분히
라고 목소리를 도도와 다시 척망 겸 뭇것다

(빅) 이 수름 량반이 말을 무르면 엊지흔야 대답이 업노

(계집) 무슨 말이란나 량반 량반 무슨 량반이야 횡금이 도와야 량반이지 량반이면 남녀유별
(男女有別) 례의 염치(禮義廉恥)도 모로고 남의 녀인(女人)네 발가벗고 일흔는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락이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낫잠 자다 왓습니까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흔
듯기 실쿤 어서 가오 오르지 아니흔야 우리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짜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거시니 어서 밧비 가시라구 오식이 세력이 짤니줄 갓튼 비비장도 궤속 귀신이
될 번흔 일 못드렸습나

비비장이 구식적(舊式的) 습관(習慣)으로 하방이라고 흔 손 노코 하대를 흔다가 그 말을 드
리보니 모양이 쏘 슈통흔 쑨더러 붓그려운 마음이 압셔져서 혼조말로 조탄을 흔것다

(빅) 허허 내가 금년(今年) 신슈(身數) 불길(不吉)흔다 우리 부모 말류(挽留)흔 제 오지나 마
랏더면 조흘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왓다가 경향(京鄉)에 유명흔 우숨거리가 되고 쏘 도처마
다 망신을 당흔니 헉도중이라는 데는 촨 수름 못 살 곳이로구 흔며 분흔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니쌍을 어우루고 십지 안컨마는 헉는 점점 셔산(西山)에 걸치고 압길은 무를 사룸이 업
셔 함경도 문조로 봇흔데 부트라 하는 말과 갓치 사과(謝過)나 흔고 다시 무를 슈밧게 업다
흔야 말 공티를 얼마쯤 올녀 다시 슈작을 흔것다 (<배비장전>, 93~95쪽)

- 서울로 가는 배를 어렵게 수소문하여 만난 사공에게도 반말하다 수모를 당함
- 육지에서 떨어진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사공의 역할이 육지보다 더 중요
하게 설정됨

빈비장이 그 말 듯고 조와라고 헐겁지겁 그 배로 뛰여가서 사공을 찾는다
 (빈) 어 이 배 스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너
 (스공) 어 스공은 웨 츄져
 (빈) 말 좀 무려 보면
 (스) 무슨 말
 (빈) 그 빙가 어드로 가는 빙여
 (스) 물로 가는 빙여
 원리 빙비장이 스공더러 위덕호기는 초라하고 히라 호자니 제 모양보고 밧을는지 몰라 어
 중생쌩이 말을 내놋타가 스공에 턱답이 한층 더 올너가는 것을 보고 혼숨을 휘- 쉬며
 (빈) 허 내가 그저 춤몽(春夢)을 못 섹고 죽 실슈를 허엿구나
 어법을 곳쳐 입맛이 쑥 드러붓게
 (빈) 여보시오 로형이 이 빙 임자시오 (<배비장전>, 98~99쪽)

2-3-3. 제주 배경과 제주민 설정의 의의

- <배비장전>에 나타나는 제주민들은 당대 제주민들이 가진 집단적 공분의 표상
- 양반을 비롯한 외지 관료들에 대한 공분은 도민들에 대한 수탈 때문
- 제주지역 진상의 실상

- 제주의 공부(貢賦)를 정한 것은 태종 8년부터

제주가 바다를 격해 있어 민호의 공부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으니, 대호·중호)·소호를 분
 간하여 그 토산인 마필로 하되, 대호는 대마 한 필, 중호는 중마 한 필, 소호는 5호가 아울러
 중마 한 필을 내게 하여, 암수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공부하게 하고, 기축년 봄
 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 初定濟州貢賦. 濟州隔海, 民戶貢賦, 至今未定. 乞大中
 小戶分揀, 以其土產馬匹, 大戶大馬一匹, 中戶中馬一匹, 小戶五并中馬一匹. 勿論雌雄, 擇其
 可騎馬匹爲賦, 自己丑年春節, 紛令出陸 . (<태종실록> 권 16, 태종 8년 9월 12일)

- 기록에 나타난 제주의 진상품

제주목-대모·표고·우무·비자·감귤·유자·유감·동정귤·금귤·청귤·산귤·전복·인포·퇴포·조포·
 오징어·옥두어·곤포·돌유자나무·이년목·비자나무·좋은말이요, 약재는 진피·마뿌리·석골풀·
 초골풀·소태나무열매·구리대뿌리·팔각·영릉향·오배자·치자·향부자·모과·윗미나리·푸른귤껍
 질·백변두·바곳·암나무껍질·후박·오징어뼈·두충·순비기나무열매·석결명·끼무릇뿌리·누른국
 화·녹용·박상·회향·탱자껍데기이다. 山稻, 薺, 穂, 茭, 喬麥, 麻麥. 土貢, 珊瑚, 藜膏, 牛毛,

榧子, 柑子, 柚子, 乳柑, 洞庭橘, 金橘, 青橘, 山橘, 全鮑, 引鮑, 槐鮑, 條鮑, 烏賊魚, 玉頭魚, 昆布, 山柚子木, 二年木, 椎子木, 良馬. 藥材, 陳皮, 山藥, 石斛, 草薢, 川練子, 白芷, 八角, 零陵香, 五倍子, 桀子, 香附子, 木瓜, 柴胡, 青皮, 白扁豆, 草烏頭, 海東皮, 厚朴, 烏魚骨, 杜沖, 蔓荊子, 石決明, 半夏, 黃菊, 鹿茸, 舶上, 苗香, 枳殼.(〈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

정의현-대모·표고·우무·미역·다시마·감귤·비자·퇴포·조포·오징어·옥두어·전복요, 약재는 묵은 쿨껍질·마뿌리·석골풀·구리때뿌리·영릉향·향부자·탱자껍데기·푸른귤껍데기·엄나무껍질·후박·두총·치자·끼무릇뿌리·녹용이다. 土宜, 山稻, 穩, 粟, 荻, 小豆, 蕎麥, 麴麥. 土貢, 琥珀, 藥膏, 牛毛, 薤, 昆布, 柑橘, 椎子, 槐鮑, 條鮑, 烏賊魚, 玉頭魚, 全鮑. 藥材, 陳皮, 山藥, 石斛, 白芷, 零陵香, 香附子, 枳實, 青皮, 海東皮, 厚朴, 杜沖, 桀子, 半夏, 鹿茸(〈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정의현)

대정현-전복·표고·우무·미역·다시마·비자·감귤·유감·동정귤·청귤이요, 약재는 후박·탱자·석골풀·팔각·두총·끼무릇뿌리·치자·향부자·푸른귤껍질·묵은귤껍질·엄나무껍질·영릉향이다. 土宜, 山稻, 穩, 粟, 小豆, 蕎麥, 麴麥. 土貢, 全鮑, 藥膏, 牛毛, 薤, 昆布, 椎子, 柑橘, 乳柑, 洞庭橘, 青橘. 藥材, 厚朴, 枳實, 石斛, 八角, 杜沖, 半夏, 桀子, 香附子, 青皮, 陳皮, 海東皮, 零陵香.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전라도/제주목/대정현,

1년 내에 공마 4~500필, 각종 전복 9,000여첩, 오징어 700여첩, 산과(酸果) 38,000여 개, 말안장 4~50부, 사슴가죽 5~60령, 노루가죽 50령, 사슴허 5~60개, 사슴꼬리 5~60개, 말린 사슴고기 200여조, 각종 약재 470여근, 말에 입히는 여러 기구들 680여부, 그 외 표고, 비자, 산유자, 이년목, 활집, 통개, 나전, 포갑 종결, 양태, 모자, 빗 삼장과 같은 작디 작은 잡물들이 모두 공헌에 관계됩니다. (『남한박물』 誌貢)

- 진상물목 가운데 말, 감귤, 해산물과 약재의 진상이 거의 대부분
- 조선시대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상공은 미납으로 바뀌었으나 제주도는 현물로 상납하는 형식의 진상은 변화가 없었음
- 오히려 조선후기 제주도의 진상은 더욱 체계화되어 감에 따라 진상 물목이 다양해짐. 진상을 중에서도 제주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우마와 감귤, 해산물과 약재 진상을 대상으로 많은 수량이 봉진.

■ 풍자의 이면에 제주도의 역사적 실상이 반영

- 많은 진상의 종류와 수량은 18세기까지 주로 목자, 포작인, 잠녀, 약한 등의 고역 담당자들에 의해서 직접 총당. 진상의 막중한 부담은 고역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 제주민들에게까지 가중

- 조선후기 제주사회는 수취체제와 관아재정 운영과정에서 지방관과 관리들의 고질적 부정 비리로 인해 많은 폐해를 드러냄
- 〈배비장전〉은 남성 훼절담의 배경으로 최적의 공간²¹⁾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기담(美妓談)의 차원을 넘어 제주도민의 척박한 삶과 외지 관료들로 대표되는 양반에 대한 풍자적 성격을 내포

21) 김동윤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도」, 『탐라문화』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180쪽.

V. 제주목 관아와 <배비장전>의 관광 연계 방안

- 제주와 제주목관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배비장전>을 제주목 관아의 문학 관광 콘텐츠로 활용
 - <배비장전>의 풍자가 제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배비장전>이 가진 공연물로서의 성격 활용

1. 전시관 조성

- <배비장전>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주목관아에 별도의 작품 전시 공간 조성

〈그림 14〉 교방지



■ 교방지(教坊址) 활용

- 현재 제주목 관아 중대문 왼쪽에 교방지 존재
- 교방은 관기(官妓)와 악공(樂工)를 가르치는 곳. 원래 장춘원(藏春院)이었던 것이 1689년(숙종 15년) 이우항(李宇恒) 목사에 의해 교방으로 그 이름이 바뀐 듯함. 악공은 관노(官奴) 중에서 선발하였고, 기생은 관비(官婢) 중에서 용모가 있는 자를 택하였음.
- 제주 기생 애랑이 중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교방 활용의 의의

1-1. 전시관으로서 교방지의 의의

-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에 의하면, 교방에는 본기(本妓)와 요녀기 및 다모(茶母)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

1-1-1. 제주의 교방과 기생문화

■ 제주 교방에 대한 기록

좌위랑(左衛廊)에 있다. 1689년(숙종 15년)에 목사 이우항(李宇恒)이 창건하였는데, 기생(妓生)과 악공(樂工)이 음악을 익히는 교방(教坊)으로 삼았다. 악공은 관노(官奴)로 정했는데 정원이 없고, 기생은 관비(官婢) 중에서 재주와 용모 있는 자를 거두어 뽑았다. 지금은 없어졌다 (『신역 증보 탐라지』, 54쪽)

장춘원(藏春院) : 신과원 서쪽에 있는데, 곧 기생이나 악공이 음악을 익히는 곳이다. 악공은 관노(官奴) 중에서 골라 정하고 정원은 없었으며, 교서(敎書)를 받거나 전문(箋文)을 올릴 때 쓰지만 그에 관계되는 예(禮)는 자세하지 않다. 기생은 관비(官婢) 중에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자를 올려서 정밀하게 골랐다. (『탐라지』, 93쪽.)

- 17세기 중반에 이미 교방의 역할을 하고 있던 '장춘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주 교방은 17세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행사에서 교방악 및 관련 연희를 관장
- 제주 교방은 '장춘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다가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장춘원과 교방이 동시에 존재하였고, 이후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거나 아니면 '교방'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17~19세기 제주 교방의 기생은 시기에 따라 적개는 40여 명에서 많게는 80여 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²²⁾

22) 제주의 교방 문화와 기생 활동에 대한 문헌 검토,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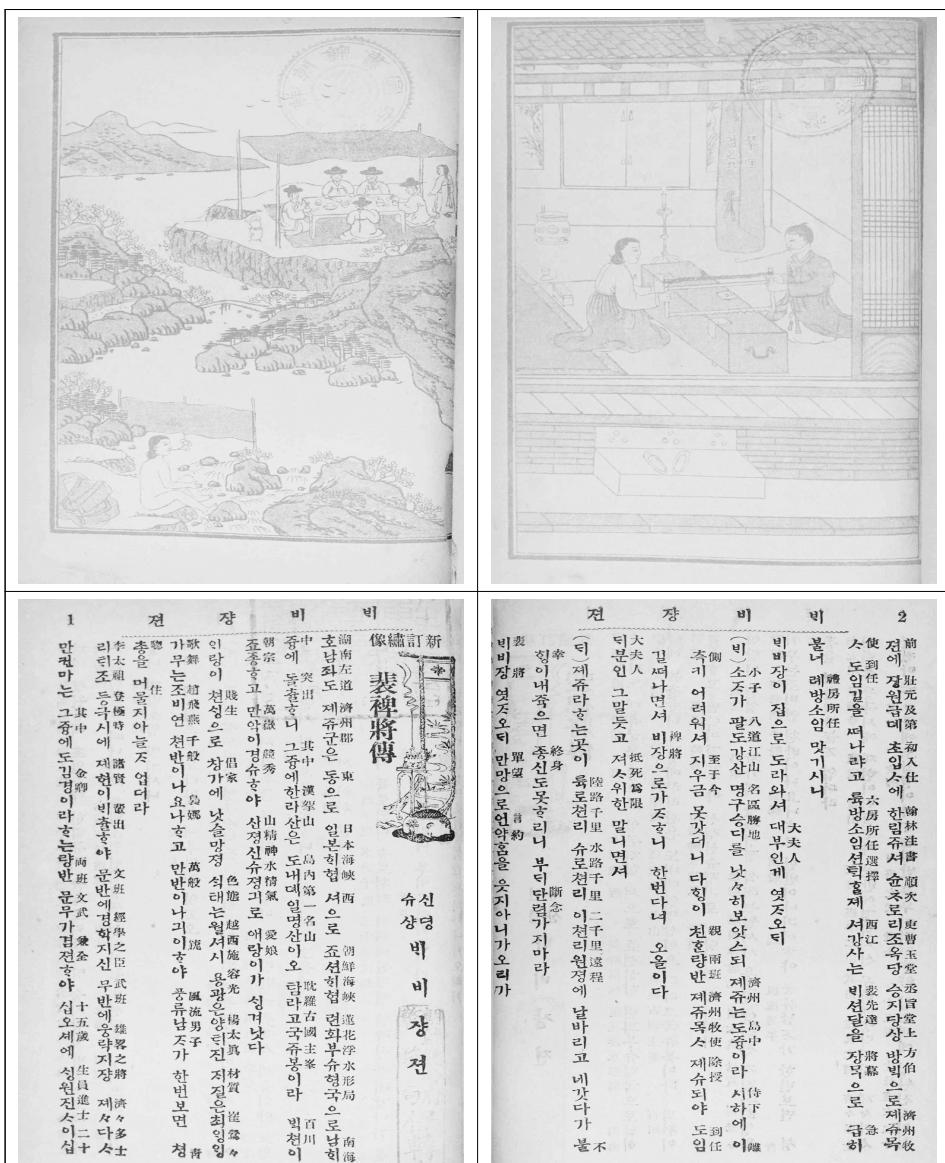
1-2. 전시물

1-2-1. 도서

■ 현전하는 3종의 초기 출판본 사본 및 해설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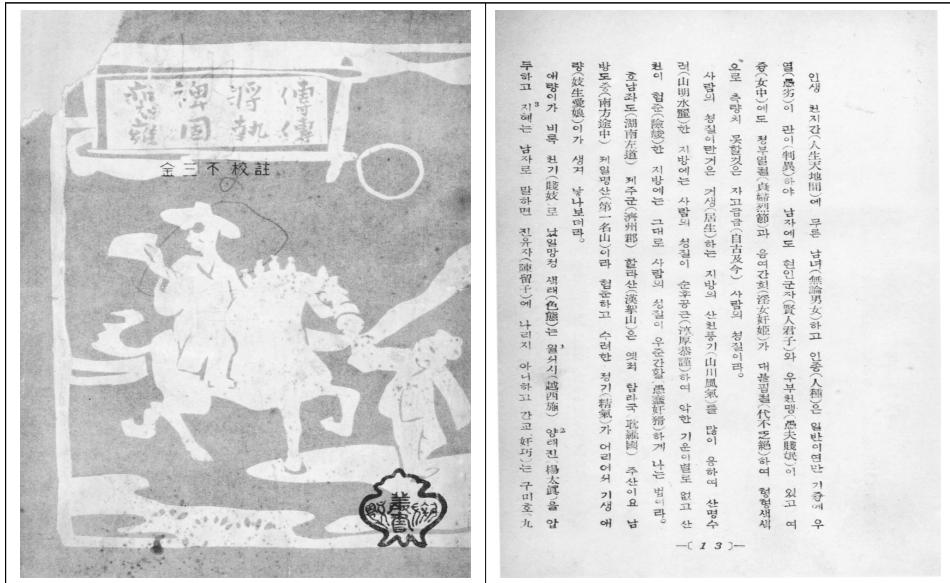
- 신구서림본(1916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15〉 신구서림본 〈배비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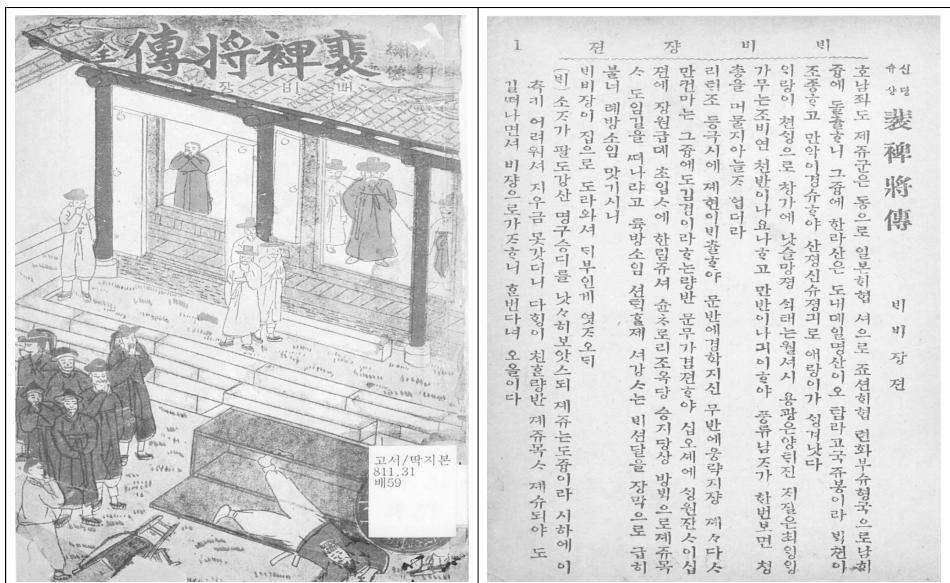
- 국제문화관본(1950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16〉 국제문화관본 〈배비장전〉



- 세창서관본(1956년) 이화여대 소장

〈그림 17〉 세창서관본 〈배비장전〉



■ 박동진 창본 사본 및 해설 전시

- 충남 공주시 소재 박동진 판소리 전시관 소장 <배비장타령> 사본 전시

■ 1950년대 이후 출판된 <배비장전> 선별 전시

1-2-2. 해제 안내판

■ <배비장전>의 내용과 특징,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해제 안내판을 전시함으로써 관람자의 이해를 도모

■ 해제 예시

<배비장전>은 판소리 <배비장 타령>에서 비롯된 판소리계 소설 중 하나로 현재 <배비장타령>의 판소리 전승은 거의 끊겼으며 1916년에 간행된 신구서림본과 1950년에 간행된 국제문화관본 등의 소설로만 전한다. 소설 <배비장전>은 우리나라 풍자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배비장에 대한 풍자가 주 내용이지만 제주 목사를 비롯한 양반층에 대한 풍자도 들어 있다. <배비장전>은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고전소설로 제주의 지명과 풍광이 사실적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배비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풍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풍자의 주체가 되는 애랑과 방자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것이다. 배비장과 제주 목사가 서울에서 내려 온 양반인데 비해 애랑과 방자는 제주 토착민이라는 점에서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민이 주인공인 소설이다.

1-2-3. <배비장전>의 주요 내용

■ 서사를 축약하여 주요 장면을 드라마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

■ 미디어 아트, 증강현실(가상현실) 상영물을 활용한 터치 스크린, 관람자 인식 시스템으로 지원

- 미디어 아트 : 1934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계 예술전에서 미디어아트라는 용어의 시작. 이후 키네틱아트, 라이트아트의 형태로 발전.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디오아트, 컴퓨터아트라는 명칭이 사용.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미술에 있어서 매체 활용에 대해 통칭할 수 있는 용어 부재. 90년대 후반에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테크놀로지아트(Technology Art)로 명명. 테크놀로지아트의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일컫는 용어로 ‘미디어아트’의 개념이 자리잡게 됨. 미디어아트는 매체(미디어)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마주하여 새로운 예술작업을 구현하는 시도²³⁾. 미디어아트 작품은 가시적이고, 감상자의 새로운 감수성을 일깨우고 새로운 미적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들로 시각화한다는 특징을 가짐

- 국립 제주박물관 실감 영상실 ‘영주십경(瀛洲十景)’, ‘표해, 바다 너머의 꿈’, ‘제주 영상시 심원(深遠)의 명상’의 예

〈그림 18〉 국립 제주박물관 실감 영상 일부



- 증강현실(가상현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增強現實)은 현실세계에 가상환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 HMD(Head-mounted Display)나 스마트폰 등 컴퓨팅 기기를 사용해 부착된 카메라로 현실세계를 해석하고 객체(object)나 요소(elemente)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가상의 환경을 기기에 연결된 디스플레이로 표현하는 것. 기기의 카메라로 현실세계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입력된 영상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 현실세계 정보와 추출된 정보를 비교해 카메라에 비치는 실제 위치를 포착→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와 일치하는 3D 가상환경을 구성→ 영상에 실시간 합성. 컴퓨터 그래픽(CG),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나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영상 해석과 상황 인식, 맥락인식(Context-Awareness),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등이 필요²⁴⁾
- 서울기록문화관 위치기반 증강현실의 예

23) 최문선, 「현대미술에서 미디어아트의 위상: 상호작용성과 물성의 확장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쪽.

24) 이건, 「Web3D 기반 증강현실 기술 표준화 동향」, 『정보과학회지』32-8, 정보과학회, 2014. 40쪽.

〈그림 19〉 서울기록문화관 증강현실 전시 체험 일부



1-2-4.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 관련 내용

■ 제주의 위치

호남 좌도 제주군은 동으로 일본 해협 서로 조선해협 연화부수 형국으로 남해 중 돌출하니 그 중에 한라산은 도내 제일 명산이오 탐라 고국 주봉이라. (<배비장전>, 1쪽)

■ 한라산 풍광

한느산 중(中)턱에 올나스니 벽회(碧海)는 양양(洋洋)하고 대야(大野)는 망망이라 왕발(王勃)이 잇셨드면 각우쥬지무궁귀(覺宇宙之無窮句)를 이곳에 읊혔스리 다시 점점 올나가니 이도명춘(以鳥鳴春)으로 원갓 식 우름운다 쇠소리 고고고기 쑥국식 쑥국쑥국 할미식 가불갑족 점동식 유흥으흥 여괴셔도 소악 쳐괴셔도 프드득 백화산제백묘(百花山啼百鳥)가 이 산에 모다 외였다 양류청정(楊柳青青) 느러진 가지 벽계잔간호춘풍(碧溪潺潺好春風)에 얼크러지고 뒤트러져서 손(客)을 보고 읍(揖)을 하고 명쥬분분폭포슈(明珠紛紛瀑布水)는 범증(范增)의 옥(玉)부수듯 와르르 쾅쾅 로룡(老龍)이 잠을 씻고 산곡(山谷)이 상응(相應)하고 해외(海外) 삼신(三神) 어듸런고 만(萬) 장봉리(丈蓬萊) 여괴로다 송하(松下)에 남여 노코 경기를 삶혀보니 영주사면(瀛州四面) 무른 물결 장년일식(長天一色) 둘년는더 쌍쌍벽구(雙雙白鷗)는 물결 따라 훌니 쓰고 점점(點點) 어선(漁船)은 뜻을 달고 왕리(往來)하고 산수춘풍무한경(山水春風無限景)이 보든 바에 처음이라 (<배비장전>, 37~38쪽)

■ 정비장 물목

- 정비장 물목은 제주민에 대한 수탈과 함께 제주 특산물의 면면을 보여줌

중량 세량 당건 우황 인삼 월자 마미 장피 록피 흥합 전복 해삼 문어 석어 장각 소각 다시마
대하 유자 백자 진피 삼총란간 이종문갑 갑게수리 백목 세포 물면주 제마 은안 금편 간지
부채 생강 마늘 겨자 후추 쑥갓 부추 (〈배비장전〉, 15쪽)

■ 한양~제주 경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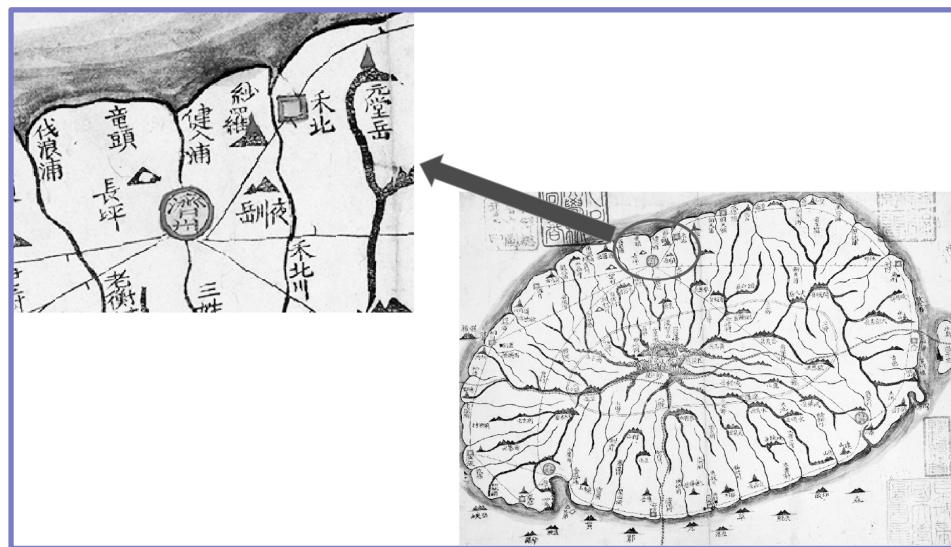
- 조선시대 제주 목사의 부임 경로는 서울을 출발하여 강진을 거쳐 해남까지 와서 해남에서 배를 타고 제주 화북포로 들어 옴

〈그림 20〉 해남 대로²⁵⁾



25) 서울 역사박물관 전시물 ‘한양으로 가는 10대로(大路)’를 활용하여 편집하였음

〈그림 21〉 대동여지도 제주도와 화북포 부분²⁶⁾



- 한양~ 해남 육로와 해남~제주 뱃길 지도 제작
- 한양에서 출발하여 뱃길을 거쳐 화북포로 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제작, 전시

2. 마당극 상설 공연

- <배비장전>은 장르 특성상 공연물로서의 성격을 보유
- 이를 활용하여 마당극으로 제작, 공연할 경우 관광 수요 증가에 기여

2-1. <배비장전>의 콘텐츠 변개 양상

2-1-1. <배비장전>의 주요 공연 콘텐츠

- 드라마

26)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의 대동여지도를 활용하여 편집하였음

- 1983년 MBC 신년 특집극 〈배비장전〉
- 1988년 KBS 특집 드라마 〈배비장전〉

■ 영화

- 1965년 신상옥 감독 〈배비장〉

■ 오페라

- 2015 1월 〈배비장전〉 국립극장
- 2023년 10월 구미 오페라단 코믹오페라 〈배비장전〉

■ 뮤지컬

- 1966 〈살짜기 읍서예〉 초연 이후 2013년 7월 7대 공연
- 2014년 7월 정동극장 〈전통뮤지컬 배비장전〉
- 2017 6월 호남연정국악연수원 〈해학 뮤지컬 ‘화순 新 배비장전’〉

■ 창극

- 2016 6월 국립 창극단 〈배비장전〉
- 2018 7월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배비장전〉

■ 발레

- 1984 국립발레단 〈배비장〉

■ 마당극

- 2014 9월 고양 연극축제 한마당 한국연극협회 고양지부 주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 〈新 배비장전〉
- 2013 10월 노원 문화거리 〈마당놀이 배비장전〉
- 2013 1월 창원종합운동장 소극장 〈배비장전〉

■ 〈배비장전〉은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 제작물을 비롯하여 오페라, 뮤지컬, 창극, 마당극으로 꾸준히 제작, 공연

■ 다양한 장르로 제작된다는 점은 전통 문화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 〈배비장전〉의 장르 특성을 살린 마당극 공연의 경우 마당극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열린 공간에서의 공연은 많지 않음

| <배비장전>을 활용한 제주목 관아의 문학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 | |

2-1-2. 제주지역 <배비장전> 공연 콘텐츠

- 2022년 7월 방선문 축제 중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애랑이 넘실>
 -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배비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국악을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편곡하고, 무용과 합창을 더해 새롭게 창작한 종합예술극
 - 제주 브랜드 공연 탄생의 시발점
- 2023년 8월 총체 예술극 <新 배비장전-“이 방에 들어가면 어떤 향기가 날까?”>
 - <배비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형식의 총체 공연예술을 표방
 - 2023년, 현 시점의 제주를 일상으로 하여 서사 무대를 옮기고 눈높이를 맞춤
 - 제주를 대표하는 기생 '애랑'과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춤꾼 일곱 '별'이 환생하여 펼치는 춤과 음악, 만담으로 완성
 - “제주 구비문학의 꽃 <신 배비장전>”이라는 설명은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고전소설” 등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그림 22〉 제주지역 <배비장전> 공연 포스터



- 제주의 〈배비장전〉 공연 콘텐츠는 타 지역의 기존 공연에 비해 다양한 장르를 복합한 세계적 제주문화예술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가짐
 - 공연의 성격을 마당극에 중점을 두어 재창작 필요
- 연극 극단 돌담 〈배비장전〉
 - 최종원 연극배우가 제주를 기반으로 극단 '돌담'을 창단. 창단연극 〈배비장전〉
 - 제주시 세이레 아트센터 12월 22일 공연 예정 작품

2-2. 마당극의 개념

- 마당극의 형식을 이루는 것은 전통극적 요소이지만 전통에서 출발한 마당극이 서구 실험 연극의 특성을 공유함
 - 마당극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극이 굿에서 비롯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민중성을 가짐
 - 관객과 무대의 분리를 지양하는 태도는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정치적 의미와 제의적 의미로 해석
 - 연극적 공간과 실제적 공간의 간극을 없애는 특성
 - 예술과 삶의 경계를 없애고 예술을 통한 현실의 변혁을 지향

2-2-1. 김방옥의 마당극 개념²⁷⁾

- 첫째, 전통극의 양식을 이용하여 쓰여진 희곡이나 공연 대본이 마당(혹은 극장무대 외의 장소에서) 공연되는 경우.
 - 주로 전래의 가면극이 소규모로 변형된 상태에서 공연되는 경우 혹은 전통극의 일부 요소와 지방민요, 굿 등의 형태를 정제하여 공연.
- 둘째, 기존의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쓰여진 희곡이 마당(혹은 극장무대 외의 장소에서) 공연되는 경우.
- 셋째, 전통극 양식을 이용하여 쓰여진 희곡이나 공연 대본이 극장무대에서 공연되는 경우.
 - 70년대 초반에 시도되었던 전통극적 요소의 현대적 수용은 서구 근대극에 기반한 평민적이며 설명적인 전개방식을 변모시킨 시도에 한함

27) 김방옥, 「마당극의 양식화 문제」, 『한국연극』6-3, 한국연극협회, 1981, 62쪽.

- 넷째, 즉흥극으로 대체로 강한 사회의식이 표면에 노출된 공연
 - 사전에 연 대본에 의한 진행이나 전통극적 요소들의 개념이 없는 무형식의 즉흥극
- 마당에서 관객과 배우가 비슷한 차원에서 현장감을 가지고 즉, 배우가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극 중 상황에 적합한 순발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2-1-2. 임진택의 마당극 개념²⁸⁾

- 마당이란 말의 원래 뜻은 장소적 개념
 - 마당은 집 안이라 집 밖에 있는 평평한 땅을 일컫는 것
 - 그 중에서도 집 밖에 있는 땅을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음
 - 마당이란 말에는 개인의 소유보다는 공동의 소유라는 의미가 숨어 있음
 - 마당이란 현실의 일부이며 생활의 연장인 장소이나 상황이므로 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중인 일에 주로 관심
 - 마당이라는 단어가 장소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를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판이라는 말고 동질적
- 탈판·춤판·굿판·소리판 할 때의 판 역시 장소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을 공유하면서 마당 보다 훨씬 생동하는 느낌
 - 마당극은 연희자와 관중이 한 덩어리이고 그 연희마당과 관중석이 서로 통하여 관중이 주인이 되는 연극

2-3. 마당극의 성격

2-3-1. 마당 정신과 놀이 정신

- 마당 정신
 - 마당은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상황개념으로서 삶의 토대이자 이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화 생성의 토대
 -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화생성의 토대
 - 공동 집회 장소로서 삶의 생산성을 드높이고 대결을 거쳐 내부의 결속을 강화
 - 궁극적으로 대립자와 화해 및 친교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 포용성을 가짐

28)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통권55호 제15권 5호, 1980, 봄호.

■ 놀이 정신

- 신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계기의 내재적 동인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
- 민속 연희의 정신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민중적 미의식의 내재적 존립 근거로서 신명을 솟구치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연희를 성립시키는 근원이자 바탕

2-3-2. 마당극의 네 가지 성격

■ 상황적 진실성

- 인간과 사회의 실제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냄
- 다른 연극에서는 잘 다루지 않거나 왜곡하고 있던 사회적 현실과 그 속에서의 인간 모습을 진실 그대로 다루고자 하는 리얼리즘 정신과 상통
- 구체적인 현실 문제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현실적 진실성에 접근
- 사회적 진실성과 현재적 진실성이 통일될 때의 상황을 규정하는 의미
- 연희공간에서 진실을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서로 확인하고 확인받음으로써 사회성과 현대성 그리고 구체성이 확보되어 확실한 상황적 진실성에 도달

■ 집단적 신명성

- 마당극이 외향적 자발성과 집단성을 가진 신명의 예술 현상을 만들어 냄을 의미
- 신명은 모든 대립적 요소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응어리진 한과 고통을 풀어헤침으로써 이를 해소하는 놀이의 원동력
- 사람마다 내재된 신명을 밖으로 도출시키고 그 신명을 진답에 공유함으로써 폭발력을 야기
-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의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것
- 승리를 확신하거나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참다운 신명 발생
- 현실 인식의 상황적 진실성은 현실 극복의 집단적 신명성으로 확산

■ 현장적 운동성

- 마당극은 한판의 놀이로서 상황에 따른 운동성을 가짐
- 현장적 분위기가 생활 속에 축적되어 잠재했다가 운동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
- 사회 운동적 집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공연으로도 해석
- 마당극이 전체 집회의 한 부분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극 자체도 집회 행사적 성격으로 진행됨으로써 극 밖의 현실 공간에서 인식과 정서 역동성과 신명이 극 안으

로 삼투

- 극 안에서 더욱 강화되며 집단화되고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발전된 인식과 정서, 역동성과 신명이 다시 현실 공간으로 삼투되는 성질을 가짐

■ 민중적 전형성

- 개인의 문제가 공동의 문제로, 개인적 신명이 집단적 신명으로 공유되는 과정의 반복은 면전 형식을 획득
- 일상적 생활의 매듭이며 판이 마무리를 통해 새 출발의 전기가 됨
- 마당극에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달보다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층 더 향상된 것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중시
- 표현 방식도 연희자와 관객 집단이 생활과 예술 체험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축적해 온 것을 즐겨 쓰는 것

■ 이상의 성격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뒤엉켜 있음

- 상황적 진실성 때문에 그것을 집단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집단적 신명성이 표출
- 집단적 신명성과 현장적 운동성으로 개인의 진실성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그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보
- 민중적 전형성이 가진 통일성으로 집단적 신명성이 가능
- 집단적 신명성과 상황적 진실성의 현장적 운동의 경험이 있음으로 민중적 전형성 재생산
- 집단적 신명성이 있기에 현장적 운동성도 가능

2-3-3. 마당극의 공연 방식

■ 탈춤 형태로 현실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마당극

- 연희자를 통해 제시되는 대사만 오늘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 연희 방식이나 춤사위, 연극의 구조 등은 그대로 탈춤에서 차용
- 주로 대학가에서 행해짐
- 대학가에서 탈춤을 빌린 직설적인 현실 비판은 메시지만으로도 호소력을 지님
- 마당극이 비민주적 사회에서의 정치발언과 현실 참여의 장이 된 것은 조선 시대의 탈춤이 지니고 있었던 현실 비판적 성격의 계승
- 현실이나 삶의 문제를 해학과 풍자라는 예술적 장치로 그려내야지 이념적으로 치우치면 민중과 유리될 위험 내재
- 마당극이 이념의 도구가 되는 현상은 대중적이고 미학적인 기반을 가진 민족극의 성립을 저해하는 요인

■ 마당극 스타일과 서사극 스타일이 융합된 마당극

- 종래 마당극의 탈 미학을 극복하고 하나의 연결된 예술 양식을 이룩하려는 노력의 결과
- 실내 극장에서의 상연을 염두에 둔 무대극 형식
- 대학가의 마당극이 직설적인 현실 고발에 치우친데 비해 연극을 교육의 장으로 이해하고 현실을 역사 위에 설정해 보임으로써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

■ 일인극 스타일의 마당극

- 일인창의 판소리를 구조적으로 수용
- 긴 사설과 입담으로 줄거리를 풀어 신명나는 장면이나 중요한 장면에서 극중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판소리적 양식

■ 마당극보다 놀이를 강조하는 마당극

- 고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새로운 평가를 내린다는 취지
- 문화방송이 1981년부터 진행한 공연이 대표적
- 전통의 재창조라는 미명하에 전통을 표피적 흥미 위주로 재구성하여 마치 하나의 코미디나 쇼처럼 보여주는 전통의 상품화 문제점 내포
- 고전의 어느 한 쪽면만을 축출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놀이성을 강조하여 전통의 왜곡 소지

■ 재야 연극,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마당극

- 서구적 무대 형식에 마당극의 이념적 성격과 서사구조를 채용한 연극 형식
- 현장의 구체적 현실감은 뛰어나나 표현 방식이 도식적이고 상투적
- 흑백 논리로 예술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점

■ 마당극이나 마당 놀이가 대부분 이념 과잉이나 세태 풍자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민족극으로서 마당극의 정착화를 위해 우려할 만한 현상

■ 사회적 모순과 삶의 불안, 소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그려내는 가운데 심층적으로 투시하지 못하고 흑백 논리로 현실과 삶의 외피적 현상만을 풍자하는 것은 마당극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 초래

■ 전통의 현대적 수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를 수용하고 재정립하려는 역사 의식이 필요

■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험정신과 무대적 형상화 작업 필요

2-4. 마당극의 기본 원리

2-4-1. 공동 창작

■ 전통 민속극은 민중들의 집단적인 참여로 창작, 구성, 연희, 변화, 축적되면서 발전

- 조선 후기 사회는 농간적 질곡에 대한 민중 저항 전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의 염원으로 확대
- 전통 민속극의 속성은 개인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 공동 창작은 어느 한 작품을 창작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활 체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작업에 있어서도 하나의 공연보다는 그 성과의 축적과 상호 교류 그리고 창작 집단의 보존과 확산이 중요하다. 생활 집단에서는 생활체험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 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 자극 등에 의해서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²⁹⁾

■ 일반적으로 공연 창작 방법으로서 공동 창작은 공연 준비 과정에서의 집단성을 의미

- 마당극에서 공동 창작이 중요한 것은 종합 예술로서 분업에 의한 작업 능률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염원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결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진 점
- 공연을 통한 집단력의 확인, 의식 공유 및 공유된 의식을 공동으로 전달한다는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효율적
- 창작 과정에서 개인사적 창작이 범할 수 있는 사적 편견을 제어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모든 상이한 경험들을 공동의 힘에 의해 공동의 그릇에 통이렷^ㄱ으로 용해시킨다는 새로운 작업 방식으로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을 목적으로 함
- 공동 창작은 우리사회에 내재한 모순과 갈등을 전형적 구조로 잡아내고 그 해결을 위해 공동체적 관심을 부각시키는 데에 초점
- 하나의 주제가 성취될 때까지 첨예하고 풍부하게 사회적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야말로 마당극의 생명력

■ 마당극을 통해 단합된 힘은 다음 단계의 창조적 운동으로 변화, 발전. 창조적 운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객관적 상황과 인간의 삶과의 관계에 있어 균형점을 깨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구심점

29) 박인배, “공동 창작에 대하여”, <연우무대 창작연구 발표 4 ‘허연 개구리’> 공연 팜플렛, 1983.

2-4-2. 인물의 유형성

- 마당극은 민중적 삶에 이로운 인물과 해로운 인물 사이의 갈등으로 이루어진 탈춤의 기본 구조를 이어 받음³⁰⁾
- 마당극은 인물 묘사에 있어 피압박 계층으로서의 민중과 민중의 삶을 저해하는 억압계층 사이의 대립구조로 세계를 파악하기에 양극 구조에 의해 유형적 전형으로 형상화
 - 유형적 인물의 특징은 대사, 행동, 춤과, 노래, 탈의 착용 등으로 가시화
 - 마당극에서는 개인으로서 주인공 외에 집단적 주인공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음. 주로 민중 계층의 인물들이 집단적으로 형상화
 - 마당극의 인물 연기는 인물의 유형화에 기반하기에 인물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디테일 보다는 사회적 특징이 과장적으로 나타남
 - 관객을 의식하는 태도, 놀이적이며 현장적 순발력과 신명 등에 의해 증폭
- 마당극의 인물이란 전통유산에 근거하거나 사회적·정치적 특성과 그 대표성이 강화된 유형성의 보편성에 근거하면서도 개별적인 구체적 생동감과 극적 흥미를 아울러 지닌 인물을 지향
- 등장인물의 역할 바꾸기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짐. 역할 바꾸기는 마당극이 극장 무대에서 탈피하여 삼일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2-4-3. 극 구성의 형태

- 즉흥성이 강조되는 마당극은 극의 뼈대가 되는 구성 원리를 설정하고 이에 의거해 다른 공연 요소들은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으로 진행
- 마당극의 기본 원리: 앞풀이-각 마당들- 뒷풀이
- 놀이성, 형장성, 즉흥성, 개방성, 기동성으로 표현되는 마당극의 속성상 짤막하고 단순 한 구조의 촌극적 마당들이 통일된 한판의 주제 아래 병렬적으로 위치하는 구조가 바람 직함³¹⁾

30)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익사, 1981, 185~220쪽.

31) 임진택, 『민중 연희의 창조』, 창작과 비평사, 1990, 121쪽.

2-4-4. 관객과의 소통

■ 마당극이란 관중이 연극의 주인인 연극

- 연희자와 관객이 분리되고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는 무대극과는 달리 연희자와 관중이 한덩어리이고 연희마당과 관중석이 서로 통하며 관중이 주인이 되는 연극³²⁾

■ 마당극의 무대 공간은 관중들이 마당 주위에 빙 둘러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

- 관중의 입장을 평등하게 해주며 전면적 시선을 가능하게 함
- 무대 공간을 사이에 두고 관객들이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서로 손쉽게 반응할 수 있고 공동의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를 두고 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
- 형태적 의미 뿐 아니라 공연과 관객의 만남에 있어 평등성, 개방성, 집단성, 참여성 등의 의미를 가짐

■ 마당극에서는 놀이판과 관중석이 서로 통하고 있으며 관중의 반응과 개입이 적극성을 띤다에 따라 공간의 형태가 이동

■ 개방된 연극이라는 점과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의 임의성이 장점

2-4-5. 풍자와 신명

■ 풍자는 한국 전통 예술에서 가장 흔한 미적 정서

- 풍자란 어떤 집단에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나 집단 이외에 위배되는 대상을 공격
- 공격 속에 여유와 공격하는자의 흥겨움이 담김
- 풍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생활 양식과 의식을 지닌 집단과 그들 공동의 적이 존재

■ 신명은 전통적 연희 일반을 밑받침하는 기본적인 힘

- 전통 사회의 대동 놀이, 농악, 궁, 판소리, 마당극 등의 원천적 힘
- 우리의 삶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삶을 물리치는 살풀이 과정이 절정에 오를 때 부여되는 초인적 능력의 예술적 체험
- 신명 풀이가 집단적으로 공유될 때 집단적 신명의 마당풀이가 됨³³⁾
- 마당극은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와 희원의 반영
- 놀이판 자체가 보장해주는 현실로부터의 일탈, 개방적 가능성, 해방감으로 인해 일상과 다른 놀이의 세계로 비약할 가능성을 내포

32) 임진택, 위의 책, 21쪽.

33) 채희완, 「민중 연희에 있어서 예술 체험으로서의 신명」, 『예술과 비평』 봄호, 서울신문사, 1985, 133쪽.

2-5. 마당극 공연 장소

■ 관덕정 앞 광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관덕정 앞 광장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제주의 중심지

2-5-1. 관덕정의 입지와 특징

- 관덕정은 목사와 판관의 업무 영역 중간 지점인 읍성의 중심부에 위치
- 정자(亭子)로서의 기능과 목사의 집무 공간으로의 기능을 겸하였음
- 관덕정 광장은 조선시대 군사적 목적의 광장으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와 근현대시기까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 관덕정 광장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관덕정 광장은 제주 근현대의 핵심적인 도시의 주요 공간이자 시민광장으로서의 역사를 지속

2-5-2.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의 주요 기능

■ 공마(貢馬) 진상을 위한 점마(點馬) 공간

- 진상 목적에 따라 말의 외형 뿐 아니라 잘 길들여진 말의 습성과 행태까지 파악.
- 이를 위해서는 말이 걷고 뛰고 달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마장의 울타리 기능과 같은 물리적 시설물이 필수적
- 관덕정 앞 광장의 규모는 마장을 펼치기에 충분한 공간

■ 군사훈련

- 말을 타고 전술훈련을 할 수있을 정도로 광장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짐작

■ 도시 광장으로서의 기능

- 과거시험, 기로연 행사, 광해군의 빈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
- 19세기 말부터 관덕정 광장에서 오일장 형성
- 민란의 현장 : 1901년 발생한 난으로 ‘이재수의 난’이라고 불림. 극심한 조세폐단, 1900년 전후 제주로 급격히 전파된 천주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발. 제주성을 거점으로 한 천주교 신자인 봉세관(封稅官) 강봉현과 이에 반발한 관노 출신 이재수가 이끄는 민란 세력이 충돌, 관덕정 광장에서 교인 317인 척살
- 제주 4·3의 도화선: 1947년 3월 1일 제주민전 주최 제28주년 3·1절 기념식에 경찰

의 발포로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주민 6명 사망, 8명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 발생

- 관덕정 광장은 조선시대 군사적 목적의 광장으로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와 근현대시기까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시민항쟁과 경제,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제주 근현대의 시민광장으로서 시민항쟁과 경제, 문화 활동의 중심
-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中에서³⁴⁾
 - 관덕정 광장은 일제 강점기에도 제주의 살아 있는 광장
 - 제주의 이정표는 관덕정 입석이 기준
 - 제주시가 신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관덕정 앞 광장을 잊어버린 것은 큰 상실
 - 관덕정 앞 광장의 기능을 살리는 것은 관광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과제
 - 관덕정 앞 광장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작은 계기만 주면 반드시 되살아 날 수 있는 공간
- 관덕정 앞 광장의 활용은 제주의 광장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임
- <배비장전>을 마당극 형태로 제작하여 공연한다면 제주를 대표하는 공연물이 될 수 있을 것
 -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안동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안동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좋은 예

2-6. <배비장전>의 마당극 공연의 의의

- 마당극의 신명과 현장성, 풍자는 <배비장전>의 성격과 부합
- 관덕정 광장이 가진 도시 광장으로서의 역사성을 각인
- 제주목 관아를 배경으로 하는 <배비장전>의 특징을 살려 제주목 관아의 장소성 획득에 일조할 수 있음
- 제주민들이 풍자의 주체가 되었던 것처럼 관객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획
 - <배비장전>의 풍자성을 바탕으로 하여 극본 공모
 - 제주 문화예술 공연 단체의 공연으로 기획
 - 관광객이 구경꾼이 아니라 공연의 일부로 참여함으로써 <배비장전>이 가진 풍자와 해학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34)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7, 창비, 2012, 244~246쪽.

3. 제주목사 행차 재현

3-1. 전통 문화 행차 재현의 가치와 필요성

3-1-1. 전통 문화 재현의 개념

■ 전통문화 재현 행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과 자기정체성을 갖는 중요한 의례의 성격을 가짐

- 전통문화 재현행사는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전통과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 과거의 인물과 자신, 그리고 자손들과의 공감을 확대하고 서로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하게 함.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외에 정서적이고, 호소력 있는 애착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 역사, 전통의 상징들을 보면서 영광된 시기를 재현하고 반추함으로써 정서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존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강화
- 전통문화 재현행사는 단순히 즐기는 1회용 행사가 아니라, 전통적 정서나 역사에 토대를 두는 축제로서, 희망과 활력의 장(場). 전통문화 재현행사가 벌어지는 지역은 문화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인식.. 전통문화 재현행사는 공동의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게 해 지역 활성화에도 큰 영향력을 미침
- 축제로서의 재현행사는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지역홍보를 통해 지역상품의 상품성을 높임

■ 전통문화 재현행사는 왕과 관련된 행사가 가장 많았고, 감사(관찰사) 행차, 기타 인물 순으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전통문화 재현행사가 전국적으로 50여개 이상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음.

■ 전통문화 재현행사는 진정한 의미의 전통문화 재현행사라고 볼 수 없음

- 엄밀한 의미에서 전통의 정확한 재현은 있을 수 없으며, 상품화 및 경제성 확보 전략에 비추어 선택된 전통.
- 전통의 재구성과 상품화는 항상 전통의 진위문제를 묻는 질문에 직면. 상징성과 전통성이 매우 강한 지역의 축제들도 ‘진짜’인가라는 문제(authenticity)와 정확한 재현이라는 문제로 논쟁
- 명확한 고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전통문화행사나 전통행렬 등의 시연과 관련해 많이 제기되고 있음.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증명을 받아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등장.

- 지역 축제를 통한 과거의 재현은 재구성 된 것이지만, 공공연하게 시연되고 인정되어 점차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 현실화
- 지역축제의 이벤트화와 상품화라는 과제가 선차적인 상황 하에서는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기호와 볼거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을 추구³⁵⁾

3-1-2. 전통행사의 시행 방향

■ 첫째, 전통 그대로 복원·재현하는 방법

- 종묘제례는 전통의 복원
- 전통을 복원하여 재현하는 행사는 의례(儀禮)와 인물구성, 행사장소의 선택, 복식·깃발·무기 등이 시대고증을 거쳐 완벽하게 재탄생되는 것을 전제로 함

■ 둘째, 현대인의 정서를 접합한 전통을 재해석하는 방법

- 왕궁수문장교대의식은 전통의 재해석
-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행사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상상력이 가미되어 창작. 사실성보다는 관람객들이 우리 문화를 즐긴다는 점이 중요.

■ 시대고증 필요. 현실적으로 완벽한 시대고증을 거친 전통 행사는 거의 없음

- 현존하는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고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고증에 가장
- 가깝게 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
- 진정성 있는 전통문화 행사는 행사 주최 측과 관객이 감동으로 통하여 과거에서 전래 되어 있듯이 후대에도 계승될 것

■ 전통문화 재현행사는 등장인물과 관객이 시작부터 종료까지 감성·향수·낭만을 담은 하나의 서사(敘事)로서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 전통문화 재현행사가 성공하려면 화제성이 필요

- 화제성은 관광객들에게 행사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이는 재방문 욕구를 증가
- 전통재현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특별한 맛을 느끼길 원하는 관광객과 함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즐기길 바라는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 지역의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필요

35) 이정덕, 『지역축제와 지역정체성·풍남제와 춘향전의 사례를 통해』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1998, 참조.

- 재현행사를 보고 참여하려온 사람들은 그 축제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옴
- 다른 지방의 것을 모방하거나 짜깁기 하여 나열해 놓은 것이라면 굳이 그 문화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
- 프로그램 주체성이 강화되어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타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현행사의 개발과 홍보에 투자 필요
- 단순히 전통재현의 개념을 넘어서 관광 상품화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한 기획 필요

■ 프로그램에 지역성을 강화

-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타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계기
- 기존 프로그램들이 수동적 측면이 강조 되었다면 최근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몸으로 느끼고 직접 체험하려는 트렌드로 급속히 변화
- 방문객 모두가 직접 축제에 참여하여 구성원이 되어 즐길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의 확대와 직접적인 체험과 유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이 요구됨

3-2. 〈배비장전〉 행차 경로

■ 입도~제주목 관아까지

■ 동문~영무정~산지내~북슈각~칠성골~관덕정

■ 제주목사의 행차는 〈탐라순력도〉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전시관의 행사 경로는 〈배비장전〉의 내용을 근거로 함

구관(舊官)은 인교되(印交代)하고 신관(新官)은 도임이라 좌우청장(左右青帳) 번듯 들고 호기 있게 드러갈 제 전비후비(前陪後陪) 사령군로(使令軍奴) 솜승첩수 노랑 흥의(紅衣) 님(藍) 견디 놀나 씌고 인모전립(人毛戰笠) 우렁 상모 날낼 용 쟈(勇字) 짹 부치고 곤장쥬장(棍杖朱杖) 번듯 들고 쌍쌍이 느러셔서 에이싸루 에이싸루 혼금(禁)이 엄숙(嚴肅)한데 청일산(淸日山) 허취타 성(靑日傘下吹打聲)이 원근 산천(遠近山川) 움작인다
이나노 나노 뚜쏴 쳐르르

잉무 갓흔 고흔 기싱 나히 맛쳐 골나 씹아 물색(物色)으로 단장(綢裝) 한 쌍(對) 안(鞍)으로상(大路上)에 쌍쌍이 느러세고 청도(淸道) 한 쌍 순시(巡視) 두쌍 오식(五色) 기차(旗幟) 찬란(爛爛)하고 전비(前陪) 비장(裨將) 대단철(大綏天) 순은장식(純銀粧飾) 쇄금(灑金)하고 가진 궁전(弓箭) 빗기 차고 점모전립(猪毛氈笠) 밀화 퍼영(佩纓) 은입(銀入) 맹호수(猛虎鬚) 보기 조개 소조 쓰고 공쥬(公州) 면쥬(綿袖) 사마치를 가든하게 떨쳐 입고 은안박마(銀鞍白馬) 호피(虎皮) 도

듬 덩그러케 놈히 안져 운종룡(雲從龍) 풍종호(風從虎)로 셔실 잇게 나아가니 승피백운선인(乘彼白雲仙人)들이 이에서 더홀소나 영무정 바라보고 산지내 얼풋 건너 북수각 지내노코 칠성골 너른 길로 관덕정(觀德亭) 도라드러 전알전에 사비 흥고 만경루에 도임흘 제 일읍(一邑)의 남녀로소(男女老少) 구름 갓치 구경흔다(〈배비장전〉 32~33쪽)

3-3. 행차 재현 경로

- 조선시대 제주 목사 제주목 도착 노정: 화북포~화북진~산지천~칠성골~북수각~동문~관덕정
- 지명을 토대로 산지천~칠성골~북수각~동문~관덕정 행차 경로 구성
 - 산짓물 공원~북수구 광장~탐라문화 광장~관덕로~중앙사거리~제주우체국 앞~관덕정 광장
 - 총거리 약 780m, 도보 15분 이내
- 산짓물 공원에서 출발하여 관덕로를 지나 관덕정 광장에 도착하는 경로는 동문 시장, 중앙시장, 칠성로 쇼핑 센터를 비롯하여 주변 식당가 통과
 - 주변 관광객을 관람객으로 유치하는 효과

〈그림 23〉 행차 재현 경로



■ 63회 탐라문화제의 탐라퍼레이드의 예

- 관덕정~산짓물공원

〈그림 24〉 2023년 탐라퍼레이드 경로



- “탐라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첫 전국 공모.. 출발은 관덕정”, 『한라일보』, 2023.7.25. 기사 참조

- 탐라퍼레이드의 경우 관덕정을 출발하여 산짓물 공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행차는 〈배비장전〉과 관련된 제주목사 부임 행차라는 점에서 제주목 관야를 도착지로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 기존의 탐라 퍼레이드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배비장전〉과 연계한 행사로서의 의미를 가짐

■ 행차 의식을 정기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관야 관광이 가진 정적인 관람 관광 행태 극복

VI. 시사점 및 활용 효과

- 관아지와 문학작품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관광 콘텐츠로 다른 지역의 관아지와 차별성 부각
 - 전국에서 유일한 고소설 배경으로서 제주목 관아의 정체성 획득
- 역사 유적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탐방하는 최근의 관광 행태의 변화에 부응
- 마당극 등 지역 이벤트 또는 축제 등을 제작하고 개최함으로써 제주지역 공연 예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문화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큐레이터 및 관아 전시관 상주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지역 인력의 경제활동 지원
- 기존 관아 전시물(디오라마, 마네킹 연출 등)이 가진 정적인 성격을 탈피한 새로운 전시 가능성 제시
 - 4차 산업 시대의 기술과 인문학적 콘텐츠가 결합한 전시로 역사 유적의 현재성을 가짐
-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화하는 관광객의 패턴³⁶⁾에 부응
 - 제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습득하는 관광콘텐츠의 개발은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재고와 함께 관광의 지속성과 제주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36) 송성진, 「제주지역 관광지의 발전 방안-관람 및 공연관광지를 중심으로」, 『논문집』 32,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2009, 42쪽.

참고문헌

자료

- 『新訂繡像 裴裨將傳』, 신구서림, 1916.
- 김삼불 교주, 『배비장전, 응고집전』, 국제문화관, 1950.
- 『新訂繡像 裴裨將傳』, 세창서관, 1956.
- 담수계, 『(증보) 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 신광수, 『석북집』
- 이원진, 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이능화, 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 임제, 신호열 외 편, 『백호전집』, 창비, 2014.

참고 도서 및 논문

-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14, 반교어문학회, 2002.
- _____, 「〈배비장전〉의 변개와 문화콘텐츠 양상」, 『반교어문연구』40, 반교어문학회, 2015.
- 권인혁 외,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동윤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도」, 『탐라문화』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김방옥, 「마당극의 양식화 문제」, 『한국연극』6-3, 한국연극협회, 1981.
- 김영택, 「풍자소설의 개념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목원대논문집』 19, 1991.
- 김용범, 「소설 주인공의 지역 연고성 분쟁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홍길동전과 콩쥐팥쥐전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 김지원, 『해학과 풍자의 문학』, 문장사, 1982.
- 김태곤 외, 「조선시대 제주읍성 공간구조와 관덕정 광장의 성격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30-5, 한국건축 역사학회, 2021.
- 김향자 외,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광 교통 서비스 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남윤섭, 「문학공간의 장소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29-3, 한국사진지리학회, 2019.

- 류정아,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광관연구원, 2006.
- 박기종, 「전통문화 재현행사 발전방안 연구 : 이충무공 승전기념 행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11.
- 박영주, 「판소리 사설치례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 박희정, 「마당극 연구–전통극의 수용과 변형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논문, 2003.
- 백선혜,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대한지리학회지』39-6, 대한지리학회, 2004.
- 송성진, 「제주지역 관광지의 발전 방안관람 및 공연관광지를 중심으로」, 『논문집』 32,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2009.
-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72.
- 신희경, 「고전소설 공간 답사를 위한 제언」, 『돈암어문학』33, 돈암어문학회, 2018.
- 오현봉, 「풍자의 개념 연구」, 『국어교육』71, 한국어교육학회, 1990.
- 유진한, 송하준 옮김, 『국역 만화집』, 학자원, 2013.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7, 창비, 2012.
- 육재용, 「『배비장전』의 신고찰」, 『한민족어문학』50, 한민족어문학회, 2007.
- 이 건, 「Web3D 기반 증강현실 기술 표준화 동향」, 『정보과학회지』32-8, 정보과학회, 2014.
- 이병기 외 편, 『한국고전문학대계12-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관, 1971.
- 이무용,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41-1, 대한지리학회, 2006.
- 이 육, 「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 『탐라문화』3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 이은숙 외, 「종로 문학공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문화역사자리』19-2, 문화역사자리학회, 2007.
- 이정덕, 『지역축제와 지역정체성: 풍남제와 춘향전의 사례를 통해』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1998,
- 이혜구, 「宋萬載의 〈觀優戲〉」, 『판소리연구』1, 판소리학회, 1989.
- 임동철,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민속원, 1997.
-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통권55호 제15권 5호, 1980, 봄호.
- _____. 『민중 연희의 창조』, 창작과 비평사, 1990.
- 임화순 외, 「문화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연구」, 『탐라문화』4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장윤희,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익사, 1981.
- _____.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채희완, 「민중 연희에 있어서 예술 체험으로서의 신명」, 『예술과 비평』 봄호, 서울신문사, 1985.
- 최문선, 「현대미술에서 미디어아트의 위상: 상호작용성과 물성의 확장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06.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 Ra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출판사.
- Ronald, B. L., 1997, Storytelling: A New way to get close to your customer, Fortune Magazine, February 3.
- Schank, R.C., & Abelson, R.P.(1995), Knowledge and memory: The real story. In R. J. Wyer, Jr.(Ed.),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8, 1-86.
- Hillsdale, NJ: Erlbaum. Tuan, Yi-Fu., 1995, “Space and Place” 공간과 장소 (구동화·심승희 역), 서울: 삼영사
- Tuan, Yi-Fu., 1978, Literature and Geography :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In Humanistic Geography : Prospects and Problems, eds., D. Ley and M. S. Samuels, Chicago : Maarouga Press.

기타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lxmap/index.do>

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

문화재청 <https://www.cha.go.kr/main.html>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서울 역사 박물관 전시물 ‘한양으로 가는 10대로(大路)’

“그래서, 고전은 힘이 세다”... 2023, 다시 온 ‘배비장’ 혹은 ‘애랑’, 제주방송, 2023. 8. 15.
<https://v.daum.net/v/20230815130502869>“

제주도립예술단, '애랑이 넘실' 내달 9~10일 합동 공연", 『연합뉴스』 2022. 6. 22.

<https://v.daum.net/v/20220622104259889>

"탐라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첫 전국 공모.. 출발은 관덕정", 『한라일보』 2023.7.25.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90178781744934036>

박인배, "공동 창작에 대하여", 〈연우무대 창작연구 발표 4 '허연 개구리'〉 공연 팜플렛, 1983.

"배우 최종원 제주서 신생극단 '돌담' 창단", 『제주일보』 2023. 12. 6.

<https://jejunews1945.tistory.com/2617>

Abstract

Development plan for Jejumok government office's literary tourism contents using <Baebijangjeon>

Shin, Heekyung · Park, Sohyun

Keywords : <Baebijangjeon>, Jeju, Jejumok government office, literary tourism, tourism contents

Jeju Island is an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in name and reality, but compared to nature tourism content, the number of humanities tourism content utilizing history and relics is insignificant. The Jeju Literature Museum is meaningful as a tourist content that shows Jeju's identity by using Jeju literature containing myths and legends, history and reality, life and culture. However, <Baebijangjeon>, the only classical novel set in Jeju, Jejumok government office, and Jeju, is excluded.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induce pride and interest in <Baebijangjeon>, which is set in Jeju, and develop original tourism content for Jeju Mokgwana.

This study aims to develop tourism content using the classic novel <Baebijangjeon>, mainly set at Jeju Mokgwana. To this end, we spread awareness of Jeju's representative novel, Baebijangjeon, and cultivate the history and importance of Jeju Mokgwana as a tourist destination. Currently, most major government offices lack accessibility as tourist destinations, have problems with proximity, and lack original content. In comparison, the Jejumok government office has high accessibility and proximity. And it is advantageous to utiliz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place as the background of the novel <Baebijangjeon>. <Baebijangjeon> is content that satirizes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people of Jeju as the subject, and by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it has pansori-like characteristics, we can devise a plan to link the Jejumok government office with <Baebijangjeon> with tourism. First, it will create a separate exhibition space for works in the Gyobangji area inside the Jeju Mokgwana. In the exhibition room, it is proposed to display the book <Baebijangjeon>, the main contents of Baebijangjeon, and Jeju-related contents of <Baebijangjeon>. Second, it is proposed to be a permanent performance of Madanggeuk, a dramatization of <Baebijangjeon>. Third, it is proposed to reproduce the Jeju Moksa procession.

Our proposal high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n other regions through a unique form of tourism content that combines government agencies and literary works. In addition, by utilizing historical relics, it responds to recent changes in tourism behavior of exploring and experiencing cultural relics. Producing and holding local events or festivals, such as Madanggeuk, can revitalize performing arts in the Jeju region and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related cultural industries and the local economy. Also, it means support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workforce by increasing the number of associated curators and resident personnel at government office exhibition halls.

연 구 진

연구책임	신 희 경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공동연구	박 소 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제주학연구 89

〈배비장전〉을 활용한 제주목 관아의 문학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3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TEL.(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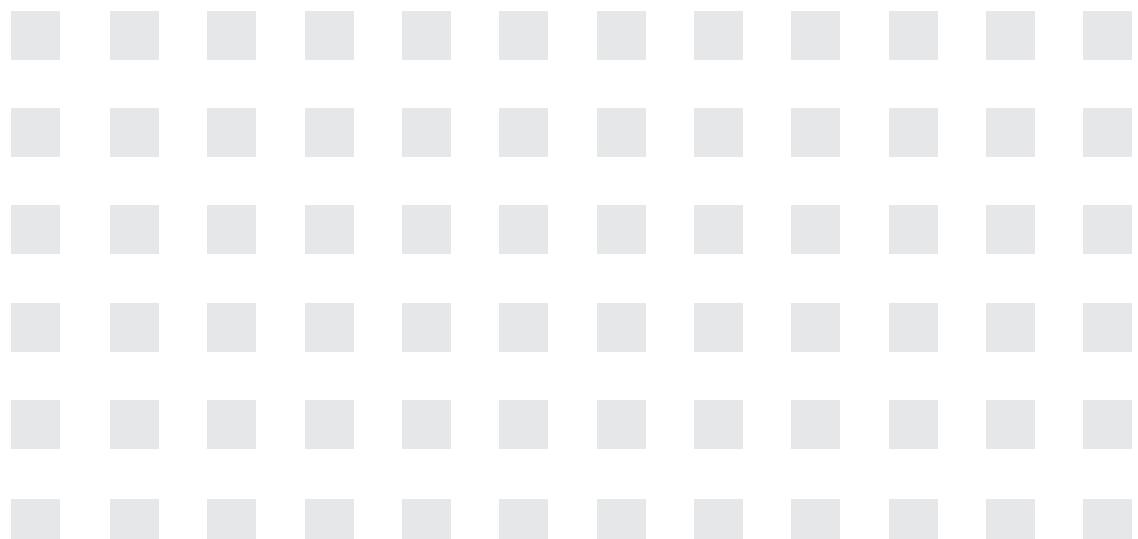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9-11-982611-8-2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비매품/무료

93090



9 791198 261182
ISBN 979-11-982611-8-2